

연구보고서 2019-3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이현주

곽윤경 · 강상경 · 노영주 · 전지현

【책임연구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저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영주 가족친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3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발 행 일 2019년 12월

저 자 이 현 주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주)삼일기획

최근 온라인이나 국민의 일상 대화에서 불안은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면 이러한 불안은 사회적 문제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주요 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의 불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개방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불안이 다른 사회의 불안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치안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는 불안 근저에 보다 근본적이고 한국 사회 고유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우리 사회의 불안이 갖는 특이성에 대하여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선행연구들에서와 다소 상이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불안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 경험을 분석한 결과 생활 불안정이 불안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활 불안정이 그리 높지 않고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에서도 불안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의미한 결과는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표면적인 불안 요소 외에 불안을 가중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고용, 노후 안정, 그리고 질환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구성원이 느끼는 불안을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과 개인의 힘으로 삶을 꾸려야 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달리 가족 단위의 대응 역량이 떨어진 상황도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가족은 참여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질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냈다. 물론 질적 분석으로 이루어진 초기 결과이므로 구체적 정책 제언보다는 정책 방향 모색으로 한정되었으나 개별 정책 수준을 넘어 정책이 무엇을 유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밖에 이 연구는 향후 사회적 불안에 대한 양적 분석, 설문조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한국 불안이 갖는 특이성과 시사점도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나 사회정책 기획에 이 연구가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이현주 연구위원의 주관하에 서울대학교 강상경 교수, 가족친화전략연구원 노영주 박사 그리고 원내의 곽윤경 박사, 전지현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에게 전문적 고견을 공유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연구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복지 현장의 실무 전문가분들이 의미 있는 경험과 전문 지식을 나누어 주셨다. 이분들의 의견이 이 연구의 기획과 완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연구 개요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선행연구의 경향과 본 연구의 의의	14
제3절 연구의 내용 구성	18
제4절 연구 방법의 개요	20
제2장 불안에 대한 이론적 이해	25
제1절 불안의 정의	27
제2절 개인 차원 불안과 환경	32
제3절 불안의 영향과 불안에 대한 대응	49
제3장 사회적 불안의 정의와 질적 분석 구조화	57
제1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의	59
제2절 연구 문제와 질적 분석 설계	82

제4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 사회적 불안의 변화와 시사점	91
제1절 분석 방법	93
제2절 사회적 불안 연관어 분석 결과	100
제3절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15

제5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 1

: 불안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139
제1절 분석 목적과 분석 방법	141
제2절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에 따른 불안 경험	143
제3절 불안 경험 유형	176
제4절 소결	197

제6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 2

: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불안의 요소 분석	217
제1절 분석 방법	219
제2절 불안 유형	220
제3절 불안의 기저 원인	229
제4절 불안 대처·대응	238
제5절 소결: 사회적 불안의 구조	246

제7장 결론: 주요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함의	251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253
제2절 정책적 함의	261
제3절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함의	262
 참고문헌	 265
 부록: 면접 조사 가이드	 271

표 목차

〈표 2-1〉 불안장애(anxiety disorder) 분류	43
〈표 2-2〉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의 진단 기준	44
〈표 2-3〉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의 환경적 위험 요인	46
〈표 3-1〉 사회불안 인식 검사 척도 개발 과정	61
〈표 3-2〉 사회불안 인식 검사 척도의 영역과 요인	61
〈표 3-3〉 사회적 불안 척도 개발 과정	64
〈표 3-4〉 사회적 불안 측정 도구	64
〈표 3-5〉 사회적 불안 척도의 하위 차원	65
〈표 3-6〉 사회불안 수준 측정 도구	66
〈표 3-7〉 사회불안 유발 사건에 대한 심리적 표상 구조 측정 도구	67
〈표 3-8〉 위험의 유형별 분류	71
〈표 3-9〉 ‘서울 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 조사’의 조사 내용	71
〈표 3-10〉 사회불안 지수(social unrest index) 구성(2013년)	75
〈표 3-11〉 질적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과 규모: 청년(19~40세)	85
〈표 3-12〉 질적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과 규모: 장년(41~60세)	85
〈표 3-13〉 연구 참여자 특성	86
〈표 3-14〉 예비 조사 인터뷰 가이드	87
〈표 3-15〉 면접 조사 가이드	88
〈표 4-1〉 사회적 불안을 대체하였던 관련 감정과 연관 개념	94
〈표 4-2〉 불안 관련 개념들의 워드임베딩 분석 결과(2007년, 2015년, 2018년)	96
〈표 4-3〉 분석 대상 정보원과 시기별 정보 규모의 변화	98
〈표 4-4〉 2007년 뉴스의 주요 연관어 분석 결과	101
〈표 4-5〉 2007년 블로그와 카페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103
〈표 4-6〉 2015년 뉴스 기사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메르스 제외)	106
〈표 4-7〉 2015년 블로그·카페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메르스 제외)	108
〈표 4-8〉 2018년 뉴스 기사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110

〈표 4-9〉 2018년 블로그와 카페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112
〈표 4-10〉 뉴스에 나타난 불안 연관어 변화	114
〈표 5-1〉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에 따른 불안 경험	144
〈표 5-2〉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낮은 집단의 특징	146
〈표 5-3〉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의 특징	152
〈표 5-4〉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도 높은 집단의 특징	155
〈표 5-5〉 불안과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의 특성	160
〈표 5-6〉 불안이 중간이고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의 특징	168
〈표 5-7〉 불안 경험 유형	177
〈표 5-8〉 불안 경험의 유형 분석	186
〈표 5-9〉 연구 참여자 특성	199
〈표 5-10〉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에 따른 불안 경험	201
〈표 5-11〉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낮은 집단의 특징	201
〈표 5-12〉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의 특징	202
〈표 5-13〉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도 높은 집단의 특징	202
〈표 5-14〉 불안과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의 특성	202
〈표 5-15〉 불안이 중간이고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의 특징	203
〈표 5-16〉 불안이 낮고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의 특징	203
〈표 5-17〉 불안 경험 유형	204
〈표 5-18〉 불안 경험의 유형 분석	208

그림 목차

[그림 1-1] 한국의 자살률 수준(2017년 기준)	10
[그림 1-2] 한국의 자살률 변화	10
[그림 1-3] 연구 방법의 개요	21
[그림 2-1] 심리적 요인 중심의 개인 차원의 불안	35
[그림 2-2] 개인 차원의 불안감 관련 요인 및 역동	36
[그림 2-3] 환경 차원의 불안감 관련 요인 및 역동	39
[그림 2-4]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	47
[그림 2-5] 사회적 불안	48
[그림 2-6] 불안 수준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51
[그림 2-7] 사회복지 대응 전략의 역사적 전개 과정	53
[그림 2-8]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응 전략	55
[그림 3-1] 불안의 구조와 위험의 사회적 구성	69
[그림 3-2] 위험의 사회적 전이 전개	70
[그림 3-3]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의 단계	73
[그림 3-4] 연도별 집회 개최 현황	74
[그림 4-1] 불안 키워드의 2007년 뉴스 기사 주제 분석	102
[그림 4-2] 불안 키워드의 2007년 블로그와 카페의 주제 분석	104
[그림 4-3] 불안 키워드의 2015년 뉴스 기사 주제 분석	107
[그림 4-4] 불안 키워드의 2015년 블로그와 카페의 주제 분석	109
[그림 4-5] 불안 키워드의 2018년 뉴스 기사 주제 분석	111
[그림 4-6] 불안 키워드의 2018년 블로그와 카페 주제 분석	111
[그림 4-7] 2007년 뉴스 기사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115
[그림 4-8] 2007년 뉴스 기사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116
[그림 4-9] 2007년 뉴스 기사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스트레스)	117
[그림 4-10] 2007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119
[그림 4-11] 2007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120

[그림 4-12] 2007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스트레스)	121
[그림 4-13] 메르스가 제외된 2015년 뉴스 기사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123
[그림 4-14] 메르스가 제외된 2015년 뉴스 기사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124
[그림 4-15] 메르스가 제외된 2015년 뉴스 기사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스트레스) ..	125
[그림 4-16] 메르스가 제외된 2015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126
[그림 4-17] 메르스가 제외된 2015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127
[그림 4-18] 메르스가 제외된 2015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스트레스) ...	128
[그림 4-19] 2018년 뉴스 기사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129
[그림 4-20] 2018년 뉴스 기사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130
[그림 4-21] 2018년 뉴스 기사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스트레스)	131
[그림 4-22] 2018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132
[그림 4-23] 2018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133
[그림 4-24] 2018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스트레스)	134
[그림 4-25] 인터넷 이용자의 변화	137
[그림 6-1] 연구 참여자의 불안 대처·대응 방법	238
[그림 6-2] 본 장의 결과 요약	247
[그림 7-1] 사회적 불안과 관련 요인의 관계 구조도	259

Abstract <<

A Study of Social Unrest in Korea: A Qualitative Analysis

Project Head: Lee, Hyon Joo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social unrest in Korea. As the first installment in a series of studies addressing social unrest, this study takes an exploratory qualitative approach, one of whose strengths is that it allows to identify the singularity of Koreans' social unrest in an open-ended manner.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felt uneasy about job insecurity, housing poverty, disease and associated financial burden, competition in children's education, etc., despite their relatively high life satisfaction scores. Some of the often-cited basic factors are: increasing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low trust in the government and in society as a whole; growing distrust in fairness; the declining abilities of families to care for their members; and the underdeveloped social policies.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and argues for the need for further surveys and studies of social unrest.

*Key words: social unrest, future uncertainty, qualitative analysis

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정책을 개선하거나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상의 대화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불안이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불안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하여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개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표면적인 사회적 불안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을 파악할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면담 내용은 현상학적 분석과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질적 분석과 더불어 연구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가 개인의 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려 시도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 경험이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 기반으로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불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정리하고 사회적 불안을 정의·해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안이 부정적인 현상이 되는 것은 개인의 대응 또는 사회의 대응력이 부족할 때라는 점도 연구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은 불안의 변화와 현재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불안 연관어의 변화 경향을 정리하자면 첫째, 정부, 대통령 연관어의 순위가 상승 중이다. 둘째, 건강은 주요한 연관어였는데, 최근 정신건강 연관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경찰, 안전 연관어가 중요한 연관어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가족이 연관어로 자주 나타나는 경향도 엿보였

다. 연관어 네트워크상 위치를 고려할 때 가족이 불안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가족으로 인하여 불안이 가중되는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의 불안은 교육과 취업, 부동산과 연결되지만 이러한 불안은 경제, 시장, 금융 등 보다 사회적인 이슈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간에 가족과 같은 연관어가 위치하고 있다. 불안 연관어의 변화는 인터넷 이용자 변화와 관련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불안 경험을 분석한 결과, 불안 경험은 빈곤, 취업, 사회적 지위, 가족 및 사회 환경 요인, 개인적 가치 추구 등과 관련이 있었다. 빈곤층이라 인지한 참여자 집단의 불안감이 가장 컸다. 그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느꼈다. 20~30대 취업 준비 청년층은 미래 불확실, 인생의 방향 등과 관련된 불안이 크다. 수도권 소득 중간층은 자녀 교육과 소득 확보에 관련된 사회적 지위 불안이 컸다. 가족원의 난치성 질환 등 특정한 요인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는 집단도 있었다.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준거 집단과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데 따른 불안감을 느끼는 집단도 있었다. 현상학적 분석에서 불안과 생활 만족의 관계가 단일하지는 않았다. 불안과 생활 만족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밝혀졌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질적 분석 결과를 보면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은 중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 다수는 가족, 건강 그리고 학업 문제가 중첩 및 상호 교차하여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불안에는 국내외 경기 상황, 한국 특유의 문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통제 불가능한 소셜 미디어(SNS),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미흡한 사회안전망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을 분석한 결과, 공적인 영역의 도움보다 사회적 지지나

본인의 힘으로 불안에 대응·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불안의 요인에는 전통적 문화 요인들도 혼재하였다. 한국은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면서, 아직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과도기에 있다. 이 간극이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사회정책의 수준과 무관하지 않지만 사회정책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보자면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 제도의 빠른 변경도 불안을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과 신뢰 회복은 더없이 중요하다. 가족 단위 부담을 줄이는 정책 확충은 긴요하다. 희망이 없다는 인식은 사회 변화에 부정적으로 대응할 위험을 초래한다. 정신건강정책 확대 등 개인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차 연도의 설문조사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조사는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불안의 기저에 작용하는 요소를 포괄하면서 개인주의 수용 정도, 가족과 친구 등 전통적 지지에 대한 태도 등 문화적 태도도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불안을 인지하는 데는 과거 경험과 미래 예견이 함께 작용한다. 이렇게 인지의 기준 시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대응 기제와 능력을 파악하는 조사 문항 개발도 중요하다.

*주요 용어: 사회적 불안, 불안, 질적 분석,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스트레스

제 1 장

서론: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의 경향과 본 연구의 의의

제3절 연구의 내용 구성

제4절 연구 방법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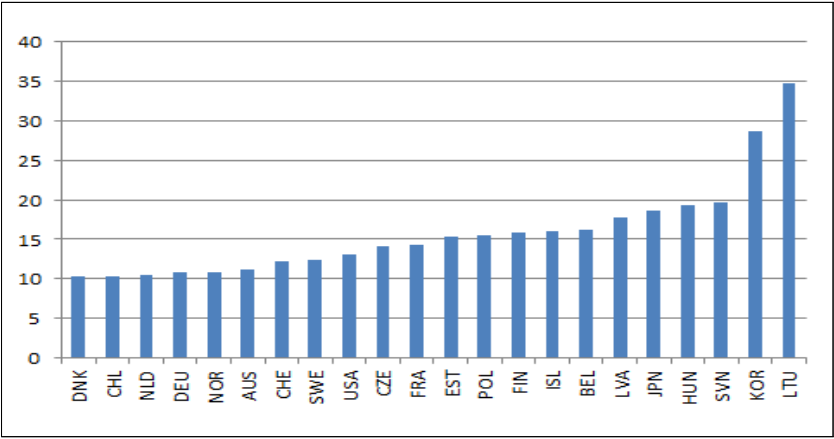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거나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탐색에서 출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을 짧게 정의하여 본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황이나 사건들로 인하여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사고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 기인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는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사회보장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사회적 불안의 처방일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는 데 전제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지 않을 때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것은 각종 정책 설계에 큰 함의를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은 그리 낮지 않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단언하는 근거로 주목하는 현상은 자살률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2017년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겨우 벗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자살률의 변화를 보면 다행히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2018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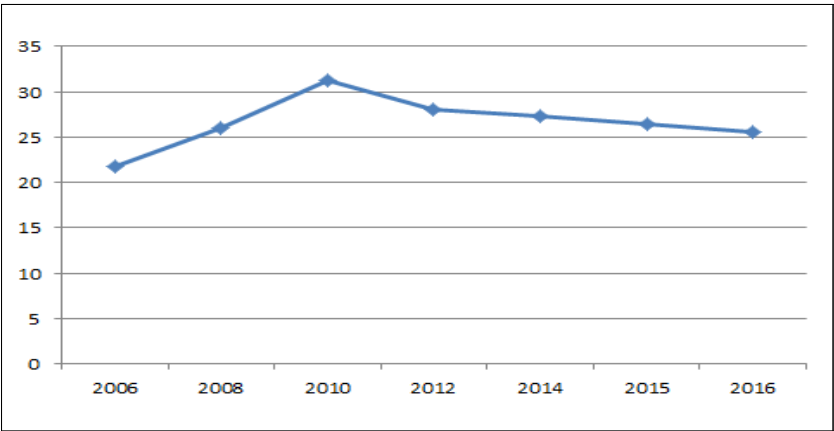
청, 2019).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로 초래되지만 사회의 불안이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바 이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자살이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는 현상임에는 분명하다.

[그림 1-1] 한국의 자살률 수준(2017년 기준)



자료: OECD.Stat. Health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19. 10. 24. 인출.

[그림 1-2] 한국의 자살률 변화



자료: 통계청. (2018). 2017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에서 2019. 10. 24. 인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몇 명이 모이면 불안과 관련이 있는 토로나 하소연 또는 질문을 주고받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불안이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서 어른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연구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하며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은 더욱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위험이 거의 등치되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이 분석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 중 적지 않은 연구들이 사회적 불안을 규명하기 이전에 전형적인 사회 문제의 영역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불안 수준을 조사하고 우리 사회의 불안이 어느 문제 영역에서 더 높게 인지되는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한정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안의 원형을 놓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불안이 주거, 교육, 의료, 안전이라는 생활 영역의 사회적 위험과 같은 전형적인 상태로 표현되더라도 그 근저에는 가장 핵심적인 불안의 모습이나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연구 방식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

사회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불안을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할 것이다. 선형적인 문제 설정과 정책 대응을 전제로 하는 불안 분석은 여타 선진국의 사회정책과의 비교로 이어진다. 선진 복지국가와 우리나라는 역사가 상이하고 현재 사회경제적 배경도 매우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주 언급되는 주거, 의료, 교육제도와 문화가 상이하고 각 영역 간의 관계도 다르다. 빠른 경제 발전으로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은 큰 세대 차이를 경험하고 있고, 세대 내 인식의 변화도 클 뿐 아니라 사회와 사회정책도

빠르게 변하여 그 속도에 대한 적응과 안정성 유지는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및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쉽지 않고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가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해 겪는 갈등도 크다.

한국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나름의 이해에 도달하자면 우리나라 상황에 토대를 둔 보다 개방적인 질문과 답의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는 사회적 불안과 관련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정교하게 발전, 심화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빠른 경제사회 변화로 이미 적응에 많은 힘을 써 왔지만 기술 발전과 더불어 또다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사회의 불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 불안을 귀납적 방식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기획을 위한 기초 정보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불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불안의 경험을 초점으로 하여 탐색적이고 귀납적인 방식으로 불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 사회의 불안 내용과 수준 그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안 경험을 분석하여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어려움, 사회가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목표를 구분하여 보면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안 경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한다. 불안의 영역이나 불안 경험 집단에 대한 선험적 정의를 벗어나 우리 사회의 불안을 개방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의

불안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 보장제도의 한계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이다. 두 개의 연구 목표는 서로 관련된다. 개방적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에 접근하는 것은, 외국의 사회불안과 그 유형화를 차용하는 연구 또는 사회적 불안 현상을 선형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을 분석하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과제는 일반 연구 사업으로 다년간 수행을 예정한 중기 과제이다. 한 해 연구로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을 유지하여 연구를 완성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귀납적 방식의 질적 연구를 시작으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연도별 연구의 세부 계획은 상이하며 2019년 질적 연구에서 설문조사 기초를 마련한 후 2020년 이후 사회적 불안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할 예정이다. 5년 예정의 본 연구의 연도별 설계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향후 5년의 설계

- 1차 연도(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 2차 연도(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실태 조사
- 3차 연도(202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제도의 조응 실태 분석
- 4차 연도(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 5차 연도(2023)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적 불안 대응 기제 구축 방안

여러 번의 자문회의에서 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연도별 연구에서 경직된 기획을 수정하여 보다 탄력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연도별로 주요한 연구 방법을 두되, 해당 연구 방법의 한계

를 줄이는 보완적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었다. 즉 2차년에 주된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기획하였다 하여도 설문조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질적 면담을 병행하여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한 연구 설계라는 제안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차년 이후의 주된 연구 방법과 주제를 유지하되 한국 사회의 불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질적 연구나 집단 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로 하였다.

2019년의 본 연구는 전체 연구 기획에서 1차 연도 연구에 해당된다.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여 특수한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기초 정보를 축적하였다. 본 연구는 1차년 연구로 질적 분석의 완결성을 가지도록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2차년 연구를 위한 기반 작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2차 연도에 수행을 예정하고 있는 조사를 위한 준비가 1차년 연구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측정할 지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합의 도출하였다. 양적 분석의 토대가 될 조사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불안 지표의 구조화를 위하여 분석 결과 중 유의미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경향과 본 연구의 의의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불안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둘째, 특정 집단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셋째, 엄격한 학문적 틀을 따라 집필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불안 등 관련 개

념에 대한 탐색적 기술이다. 넷째, 그 밖의 관련 연구로는 정신건강을 초점으로 한 개인 수준의 불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이나 관련 요인들을 규명한 연구들이 첫 번째 유형(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최인철, 김범준, 2005; 조권중, 2014; 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몬, 채수미, 차미란, 김효진, 2015;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이다. 예를 들어 최인철과 김범준의 연구(2005)는 11개의 대범주(정보화, 경제, 사회보장, 집단 갈등, 정치, 통일·안보, 안전사고, 범죄, 교육, 윤리, 질병)별로 사회 불안 유발 사건에 대한 심리적 표상 구조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발생 가능성과 대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지 상태를 측정, 우리 사회의 불안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위험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신뢰 등 대처 역량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불안의 수준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불안을 규명하고 있다. 최인철, 김범준(2005)과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의 연구는 개인적 대처나 인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둔 반면 이후 연구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불안 인식 수준을 규명하거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별 영역의 유관성을 밝히는 데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연구들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역 구분과 그 영역별 구성원의 인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도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에 대한 분석, 대응이 공론화되는 추세이다. OECD, ILO, UN 등 국제기구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용 불안과 이민자, 그리고 각종 질환의 확산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지표 개발과 측정, 그리고 각국의 사회적 위험 관리 경험과 관리 방식에 대한 제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3년 노동시장, 정부 신뢰, 일상의 자유, 그리고 삶의 수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의 지표를 구성하여 이를 분석한 바 있다(ILO, 2013).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원인을 탐색하는 주요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 중 두 번째 유형은 특정 집단의 문제 경험과 사회불안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우리 사회에서 불안 수준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당 집단의 사회불안을 진단하고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대표적으로 청소년, 노인,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불안 수준을 기존 지표를 적용하여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불안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시도한 연구들이다. 김태형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의 불안에 대한 탐색(김태형, 2010)이나 제정임, 단비뉴스취재팀(2018)의 사회적 불안 경험에 대한 공유를 시도한 글, 안주엽 외(2016)의 연구와 김혜진(2015)의 연구와 같이 고용과 행복을 주제로 우리 사회의 불안을 접근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위험이나 불안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해부하는 연구(이재열, 2015; 조병희 외, 2018)도 우리 사회의 불안에 대한 의미 있는 직관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본격적인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불안이 갖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불안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구조는 첫 번째 연구에서 많은 시사점을 구하였지만 사회적 불안에 대한 내용적 기반에는 세 번째 연구들이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관련 연구로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초점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사회적 불안이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불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구성원 개인의 불안,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한 분석의 틀이 된다. 개인의 정신건강을 다룬 가장 대표적인 연구군은 개인의 사회적 불안이나 불안을 다룬 연구로 주로 임상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이다. 상기 연구는 개인 수준의 정신, 정서적 불안을 파악하기 위한 기존 측정 지표의 적용과 개선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개인의 불안이 사회적 불안과 상당 수준 연관되므로 이 연구들은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단서를 제공하였다. 다만 상기 연구들이 요인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개인 요인에 주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해외에서 개발된 지표를 적용하여 진단하고 있음은 본 연구와 큰 관련을 갖지 못한 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개인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견지하면서 분석을 하였고 이러한 점은 결론에서도 중요한 논의 기반이 되었다.

기존 연구의 한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불안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불안이 무엇인가’ 하는 한국의 특이성을 고려하는 것이 다소 미진하다. 개인불안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을 주제로 한 연구는 그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서구의 불안 지표 또는 정교한 수준으로 개발되지 못한 구조화 전 단계의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적지 않아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에 대해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적지 않은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사회적 단위의 불안을 초점으로 하고 한국 사회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기초 정보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의 불안에 대한 귀납적 연구가 부족하고 이러한 연구 방법의 편향이 우리 사회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이해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2012년 OECD 보고서를 시작으로 ILO와 UN 등 국제기구도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에 대한 보고서 등을 내놓고 있으며 이 보고서들은 고용 불안과 불평등을 주요 원인 중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 한국 사회의 경우 외국의 위험 요인이 공유될 뿐 아니라 사회보장이 취약하여 특유의 위험도 공히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발전의 경로와 속도가 다른 국가가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의 특이성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경험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전면적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불안이 어디서 발생하며 무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포괄적이고 종합적 연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불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향후 한국형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함의를 제공한다. 셋째,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가 책임의 포용적 복지 국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연구의 내용 구성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귀납적 방식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불안, 사회적 불안에 대한 기존 논의와 연구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기존 연구가 갖는 한계와 과제를 정리하였다. 불안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저술을 기초로 불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검토

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사회적 불안 증후, 또는 개인 차원의 불안과 사회적 차원의 불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연구 틀 구성의 전 단계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는 2차 연도 연구에서 수행할 조사 설계에 기초가 되는 불안(개인 단위, 사회 단위 막론, 가능한 수준에서)을 측정하는 척도 또는 지표에 대한 검토와 그 수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포괄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특이성을 논의한 연구들로부터 해외의 불안과 우리나라 불안이 갖는 차이, 그 사회 환경의 상이성을 검토하고 함의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는 질적 연구의 설계뿐 아니라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포괄한 사회불안 지표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유는 이러한 검토가 2019년 질적 분석에서 인터뷰 가이드의 구성과 분석, 해석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지만 이후 이러한 질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0년 조사의 설계에서도 기초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그 특이성을 고려하여 조사하자면 기존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지표를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불안과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과 척도 등 조사 도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는 아직 충분한 정도로 일반적 도구가 개발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다양한 연구의 시도를 공히 고려하고 그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본론은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귀납적 분석이다. 불안에 대한 탐색은 아래의 문제로 시작하였다. 한국 사회의 누가, 무엇을, 왜 불안해하는가? 불안의 수준은 어떠한가? 변화되고 있는가? 심리적 불안과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고 따라서 불안을 측정하는 영역이 다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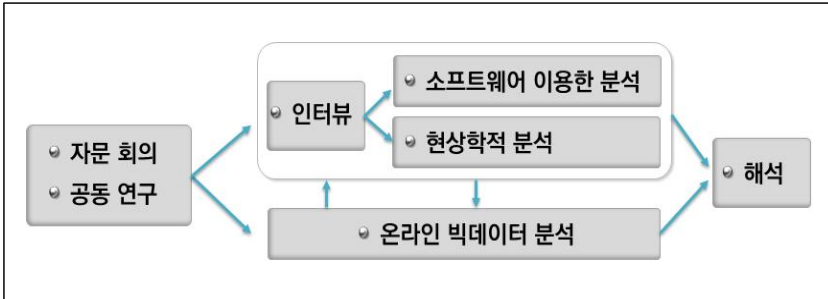
가능한 한 이러한 영역이 전반적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청년과 아동 가구의 불안 경험, 장년과 노후에 대한 불안 경험,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의 불안 경험이 다루어지도록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귀납적 방식으로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질적 연구였다. 질적 연구와 더불어 한국의 사회적 불안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보조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면담으로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내용을 기초로 사회정책에 반영할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이다. 후속 연구 중 본 연구의 2차년 연구를 위하여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조사하는 데 활용할 지표에 대하여 초기 구조화 방향을 정리하고 향후 설문을 위한 제안을 담았다. 그리고 후속 연구 중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할 일반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4절 연구 방법의 개요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면담을 기초로 한 질적 분석이다. 면담 내용은 현상학적 분석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에 공히 활용되었다. 질적 분석과 더불어 연구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설계와 결과 해석을 위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자문 회의를 병행하였다.

[그림 1-3] 연구 방법의 개요



질적 연구에 앞서 본 연구의 초반에는 여러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자주 개최하였다. 자문 회의에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정신보건 전문가, 질적 연구 전문가 등과 함께 아동 복지 시설, 교정 시설, 경찰, 소방관 등 각종 일선 기관의 실무자와 상담사도 참여하였다. 자문 회의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논의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의 경험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 자문 회의를 통하여 연구의 설계가 구체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결과 해석에 필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 초기에는 선행연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투여되었다. 개인 차원의 불안, 사회적 불안에 대한 기존 연구를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특이성에 대한 문헌과 연구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적 불안에 대해 적지 않은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본 연구가 어떻게 한국의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규명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선행연구 검토는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의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문 회의와 선행연구 검토는 연구

초반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중후반에도 분석 결과의 해석이나 시사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속되었다.

자문 회의와 선행연구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질적 연구의 근간이 되는 면담을 위한 인터뷰 가이드를 마련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모두 녹취록으로 연구진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녹취록을 기초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질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담 초기에는 비구조화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 면담을 실시하면서 조금 더 구조화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청년, 아동 가구의 돌봄자, 장년과 노인, 저소득층, 중산층 등 다양한 집단으로 면담 참여자를 구성하였고 면담은 불안을 화두로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되, 초기의 실험적 면담 이후에는 일정 수준의 반구조화를 시도하였다. 면담의 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가 포함된 연구진과 자주 회의를 개최하여 면담에 대한 검토와 이후 보완을 계속하여 갔다. 앞서 연구 방법을 표현한 그림에서와 같이 질적 분석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분석과 현상학적 분석을 공히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으로 사회적 불안 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탐색하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Atlas.ti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관련 요인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와 질적 연구 다경험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다.

온라인 빅데이터는 질적 분석과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이보다 조금 앞서 착수되었다. 이유는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요 관련 개념을 확인하고 이로써 인터뷰 가이드의 주요 개념들을 확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실험적 면담 이후 초기 결과를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도 하여

이후 온라인 빅데이터와 질적 분석을 동기간에 공히 진행하였다.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SNS 분석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 관련 개념과 현상을 이해할 기회를 마련한 것인데 이 방법은 최근 사회적 불안의 주요 현상, 유관어뿐 아니라 그 변화도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 현상학적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그리고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등 개별 연구 방법은 해당 분석을 다룬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제 2 장

불안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제1절 불안의 정의

제2절 개인 차원 불안과 환경

제3절 불안의 영향과 불안에 대한 대응

2

불안에 대한 이론적 이해 <<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이 사회 환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사회적 불안도 개인의 불안으로 현화된다는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즉 개인의 불안 경험과 사회적 불안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불안으로 사회적 불안이 강화, 심화될 수 있고,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정책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불안 경험에도 영향을 준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가 개인의 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려 시도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 경험이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 기반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불안을 이해하려는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불안에 대한 정의, 개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구성, 불안의 영향과 불안에 대한 대응 등을 중심으로 불안에 대하여 원론적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제1절 불안의 정의

1. 불안의 사전적 개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불안(不安)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을 나타내는 명사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나타내는 ‘불안감’의 개념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구 변하거나 흔들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불안정’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9b). 전자인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불안감의 개념은 사람이 어떠한 연유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나타낸다. 후자인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구 변하거나 흔들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불안정은 심리 상태의 불안정뿐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적 불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립국어원의 불안 정의에 따르면 불안은 개인 차원의 심리적 측면의 ‘불안감’뿐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적 ‘불안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샘’에 따르면 불안(不安)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정의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국립국어원, 2019a). “첫째.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둘째.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리어 뒤숭숭함. 셋째. 몸이 편안하지 아니함. 넷째. 마음에 미안함. 다섯째.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 즉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 여섯째.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 깃들인 허무에서 오는 위기적 의식”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불안감은 몸이 편안하지 아니할 때 오기도 하고, 환경적 분위기가 어수선했을 때 느껴지기도 하며, 특정 대상이 없이 막연하게 올 수도 있고,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 깃들인 허무에서 유래하는 위기의식에서 오기도 한다. 이처럼 불안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존재론적, 기질적 특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19b)에 따라 불안을 정의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불안(不安)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을 나타내는 명사로, 개인 체계 내적 차원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나타내는 “불안감”으로 정의된다. 둘째, 환경 체계 맥락에서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구

변하거나 흔들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나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불안정”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요약하면 불안은 개인이 인지하는 불안감과 체계 요소 간 항상성이 불안정한 상태로 개념화할 수 있다.

2. 불안에 대한 심리적 접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사람의 성격을 결정짓는 정신 구조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된 의식의 수준과 원초아,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 성격 구조로 대표된다(Boeree, 2007). 정신분석이론은 원초아의 모든 부분은 무의식이고, 자아와 초자아의 상당 부분도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무의식결정론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 구조의 대부분을 무의식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차원에서 원초아, 자아, 초자아 사이에 균형 또는 항상성이 유지될 때 긍정적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무의식의 원초아적 욕구가 너무 강하거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자아나 초자아의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격 구조나 의식 수준 간 항상성이 파괴되는데, 프로이트는 이러한 부정적 심리 상태를 불안(Anxiety)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신분석이론에 따르면 불안이란 지나치게 원초아적 욕구가 크게 발현되거나 초자아의 규제로 인해 의식 수준이나 성격 구조 간의 항상성이 파괴된 양상이 나타나 자아가 과도한 부담을 느낄 때 생기는 부정적 감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강상경, 2018). 프로이트는 원초적 욕구의 근원과 갈등 관계의 특징을 기준으로 불안을 현실적 불안(realistic anxiety),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 및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 등 세 가지로 개념화하였다(Hall, 2010).

현실적 불안(realistic anxiety)이란 외부 세계로부터 발생하고 다가오

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위협 요인들이 있고 이러한 현실적 위협 요인들에 대처할 자아 및 자원상의 적응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발생하는 불안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 내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자아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시험을 잘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경우 현실적 불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적 불안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등 외적 요구(taxation)를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내적 자원이나 외적 자원을 통해 적응하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각에서 생겨난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 불안은 환경이나 상황 등 객관적 상황과 인지된 내적 능력 간의 불균형 상태에 대한 깨달음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은 무의식의 발로인 원초아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원초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고 인지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안이다. 원초아적 욕구는 무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에 이를 즉각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에 어긋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극심한 허기를 느끼는 상황인데 돈이 없는 경우에 제과점의 가판대에 진열된 빵을 보았을 때, 원초아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빵을 먹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규범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초자아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먹는 행동을 저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항상성의 와해가 도덕적 불안이다.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은 무의식 영역의 원초아가 본능적으로 위협을 인식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부정적 심리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원초아적 본능이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식 수준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경증적 불안도 심리적 균형 상태가 파괴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 불안이나 도덕적 불안에

서 살펴본 항상성의 와해 현상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신경증적 불안과 현실적 불안 및 도덕적 불안은 작동하는 의식 수준이나 성격 구조상에서 같등하고 충돌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현실적 불안은 현실과 자아 사이의 같등 양상이고,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의 같등인 반면,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아에서 기인한 원인 불명의 불안이다. 현실적 불안이나 도덕적 불안은 의식 수준의 자아나 초자아적 규범이 반영된 상태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므로 불안의 작동 메커니즘을 의식 수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신경증적 불안은 의식 수준에서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 영역인 원초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신경증적 불안의 작동 메커니즘은 의식 수준에서 인지하고 개념화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연유로 불안한 감정은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의식 수준에서 규명하기 어려울 경우 신경증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불안 개념의 영향을 받아 초기 정신질환 분류 체계[예: DSM(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체계]에서 진단의 하나로 분류되었던 ‘신경증(neurosis)’이란 증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귀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신질환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서 불안은 원초아, 자아, 초자아 간의 역동에서 균형이나 항상성이 와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Boeree, 2007). 불안의 개념적 정의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정신분석이론에서의 불안도 하나의 차원이 아닌 다양한 차원 간의 역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에서 원초아와 자아는 유전적 특징이나 심리적 특징을 아우르는 개인 차원의 특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초자아는 사회적 윤리나 규범을 염두에 두고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환경 차원의 특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불안이란 단순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특성과 환경적 차원의 특성 간의 상호 역동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Boeree, 2007).

불안에 대한 사전적, 심리학적 정의는 대부분 불안이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경험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위협 또는 사회적 위협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제2절 개인 차원 불안과 환경

이 절에서는 개인 차원의 불안과 환경 차원의 불안, 즉 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불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1. 개인 차원의 불안: 불안감

불안은 인간이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고통스럽거나 거슬리는 불쾌한 감정적 경험이다. 평소에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절벽 위의 구름다리를 건너야 하는 상황 등에서 행위자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이 불안이다. 불안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불안감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 하고 긴장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측면도 있다(권석만, 2013). 학생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 느끼는 불안감은 학생들이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험공부를 하게 동기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응적이고 순기능적인 정상적 불안이다. 하지만 시험과 같은 일상생활상의 적응적 불안을 느낄 상황인데 과도한 불안감이 생겨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실제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불안감으로 인해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병적인 불

안이라고 한다(권석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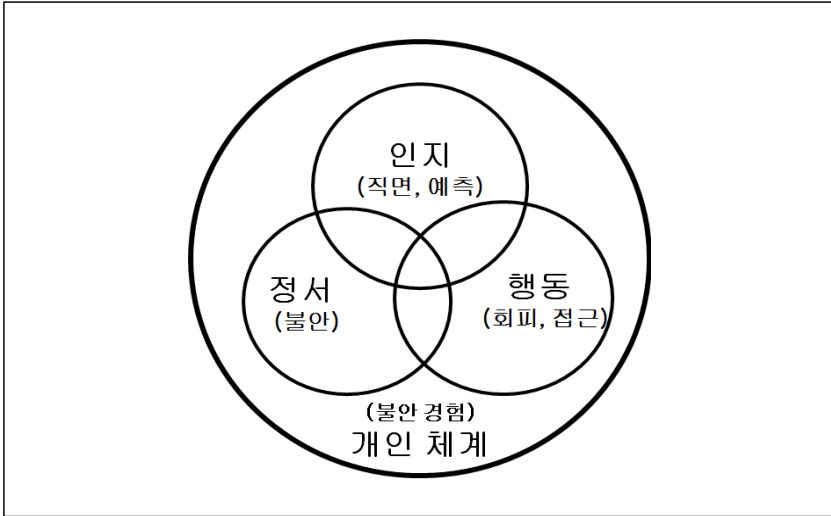
불안이 기능적인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임상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병적인 불안, 불안장애가 된다. 병적인 불안은 불안감으로 인해 당사자가 평소에 수행해 오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임상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역기능적 불안에 대한 개인 차원의 임상적 접근은 주로 임상심리학, 정신건강의학 및 정신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에 따르면 역기능적 불안은 불안 증상의 경험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 및 직업 기능의 저하로 특징지워진다. DSM-5에 포함된 불안장애에는 (1) 분리불안장애, (2) 선택적 함구증, (3) 특정 공포증(동물형, 자연환경형, 혈액-주사-손상형, 기타 의학적 도움에 대한 공포, 부상에 대한 공포, 상황형, 기타형), (4)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5) 공황장애, (6) 공황발작 명시자, (7) 광장공포증, (8) 범불안장애, (9) 물질·약물 치료로 유발된 불안장애, (10)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불안장애, (11) 달리 명시된 불안장애, (12) 명시되지 않은 불안장애 등 총 12가지 하위 불안장애가 포함되어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처럼 불안장애 범주에는 통제하지 못할 수준의 공포나 불안 및 이로 인한 행동상의 장애를 나타내는 다양한 진단들이 포함된다. 공포란 행위자가 직면한 실재하는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인지에서 비롯되는 감정적 반응이고, 불안이란 앞으로 다가올 위협에 대한 예측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이러한 공포나 인지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절벽 위에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행위자가 절벽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공포

‘정서’가 유발되고, 이러한 공포 정서는 절벽에서 조심하거나 절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공포라는 불안감은 개인 체계 내적인 심리적 기제들인 ‘인지-정서-행동’의 역동 관계하에서 작동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기인하는 불안의 경우도 이러한 개인 체계 내적 심리적 요인들이 작동한다. 이를 뒤에 통계학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학생이 시험에 대한 불안 ‘정서’를 느끼게 되면 순기능적 작동의 경우에는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공부라는 ‘행동’을 하지만, 역기능적 작동의 경우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통계학 시험을 포기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불안감은 개인 체계 내적 요인들인 ‘인지-행동-정서’ 등 다양한 요인들 간의 역동의 과정이자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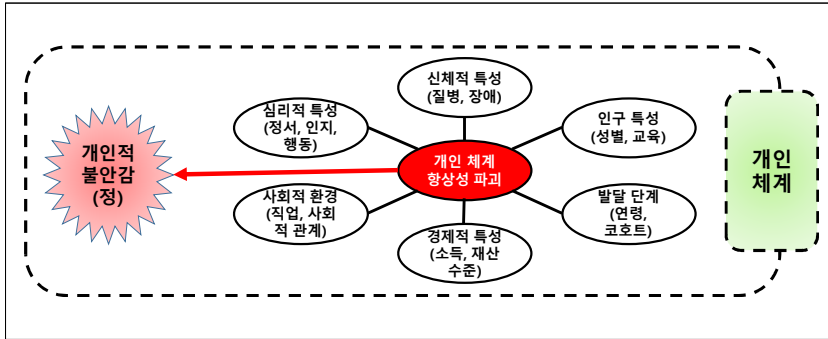
요약하면 불안은 직면한 공포나 다가올 상황에 대한 예견을 통해 활성화된다. 대부분의 개인 체계 내적 요인들 간 항상성이 유지되어 적응적이고 순기능적이지만, 개인 체계 내적 역동의 과정에서 항상성이 깨어질 경우 불안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는 역기능적 결과도 초래한다. 이러한 역기능적 불안은 불안장애로 치료나 예방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개인 체계 내적 역동은 행위자의 신체적 상황, 환경적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만, 위에서 논의한 불안의 개인 체계 내적 심리적 요인들 간의 역동을 중심으로 개인 체계 차원의 불안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심리적 요인 중심의 개인 차원의 불안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신체적 특징, 사회적 특징, 경제적 특징, 인구학적 특징 등의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불안장애의 경우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ikh, Leskin, & Klein, 2002). 불안장애도 대부분의 정신장애처럼 당사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관계 등 사회적 특성, 소득이나 자산 수준 등 경제적 특성, 질병이나 장애 여부 등 신체적 특성 등 다양한 차원의 개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소득이나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공포나 불안의 위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물질, 인적 자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불안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낮을 수 있다. 심리적 요인들 외에 다양한 개인 차원의 신체, 심리, 사회, 경제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고려해 개인 차원의 불안감과 관련된 요인들 간의 역동을 도식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개인 차원의 불안감 관련 요인 및 역동



개인 차원의 불안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 이론 관점에서 개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체계 구성 요인들 간 ‘안정-불안’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체계 이론 관점에서 환경을 고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체계 이론의 주요 용어인 체계는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를 의미한다”(강상경, 2018, p. 226).

체계 이론 관점에서 개인 체계는 위 [그림 2-2]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개인 체계는 그 개인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 환경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인구 특성, 발달 단계 특성 등 하위 체계 요인들 간의 역동적 구성체이다. 역동적 구성체로서의 안정적 개인 체계는 한 개인의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발달 단계 요인들 사이에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항상성이란 개인 체계 요인들 간의 변화하지 않는 균형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 상호작용의 역동은 존재하는데 이러한 역동이 크게 깨어짐이나 흐트러짐 없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강상경, 2018).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동적 개인 체계는 건강한 체계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신체적 요인의 한 부분인 청각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개인 체계 전체적으로 볼 때 청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청각장애는 청신경의 이상으로 구두로 전달되는 언어 자극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러한 언어 자극의 이해 저하는 개인 체계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각장애로 인해 개인 체계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제약이 생기고, 나아가 개인 체계 항상성 파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항상성 파괴는 개인의 직업 활동, 학습활동, 생산활동 등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상의 저하로 연결되고 이러한 기능상의 저하는 개인 체계의 항상성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보청기 등 보조기구로 보완이 가능하거나,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 아닌 수화나 입술 모양 읽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청신경 저하로 인해 초래된 항상성 파괴를 최소화하고 기능 회복이 가능한데, 이렇게 항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인 체계는 건강한 체계이다.

이처럼 체계의 항상성이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이러한 장애의 상대적 개념 또는 사회적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에도 반영되어 있다(WHO, 2013). UN의 장애 개념은 질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으로 인해 기능상의 항상성이 깨어졌을 때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청각 기능 이상의 예에 적용한다면 청각 질환이 생겼을 때 기능 저하로 인한 항상성 파괴의 위험이 있지만, 보청기나 수화 등 수단을 이용해 의사소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항상성 회복이 가능하므로 질환은 있지만 장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이해는 개인 체계의 다른 요인들에도 적용된다. 직업 상실로 인한 소득 단절과 이로 인한 가장으로서의 기능 저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가장으로서의 기능 저하의 근접 원인은 소득 단절에 있고 근원적 원인은 직업 상실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 상실은 개인 체계 항상성을 파괴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을 지원하여 직업재활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하게 하거나, 실업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상실한 소득의 일정 수준을 보조해 줌으로써 개인 체계의 항상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림 2-2]에 도식화된 개인 체계는 상호 의존하는 하위 요인들 간의 역동적 구성체이다. 이러한 개인 체계가 위 그림에서 도식화된 하위 요인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의 원인으로 인해 항상성이 파괴되었을 때 개인 차원의 불안이 일어나고, 개인 차원의 불안은 불안감으로 표출된다. 개인 체계는 다양한 환경 체계에 속해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개인 체계 하위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환경 체계 요인들과 역동적 관계를 형성하므로(Von Bertalanffy, 1968), 개인 체계의 불안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환경 차원의 불안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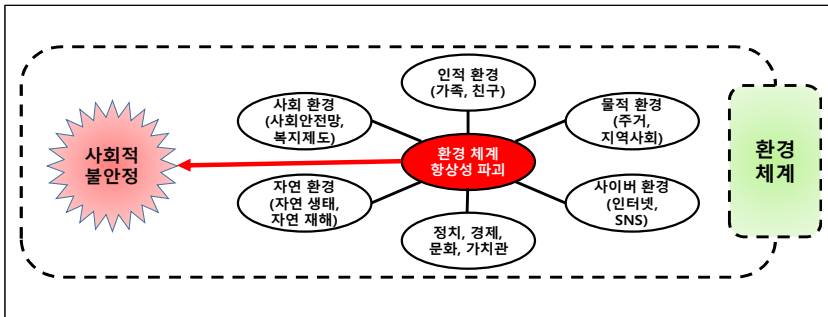
개인불안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개인의 불안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동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된다. 불안장애로 분류될 수준의 병적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병적인 단계 이전이라 하여도 개인의 일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준의 불안은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불안을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개인의 통제력이 취약한 경우, 불안으로 인해 개인의 항상성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개인의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여러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공히 경험되며 그 수준이 병적, 또는 병적 수준 이하라 하여

도 다분히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역량을 높이거나 개인의 환경,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모색하여 볼 일이다.

2. 환경 차원의 불안: 하위 체계들 간의 부정합과 불안정

환경 차원의 불안은 환경 체계 요인들 간의 ‘불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2-3]에 도식화된 것처럼 환경 체계는 사회 환경, 자연환경,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사이버 환경, 정치 환경, 경제 환경, 한 사회의 문화 및 가치관 등 다양한 하위 체계를 포함한다.

[그림 2-3] 환경 차원의 불안감 관련 요인 및 역동



환경 차원의 불안은 환경 체계 요인들 간의 ‘불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하에서 노부모 부양은 가족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대가족이 핵가족화 되고, 단독 가구가 급증하는 최근의 한국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부모에 대한 가족 부양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는 사회 체계 차원에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욕구와 부양 제공의 가족 구조 간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항상성의 파괴는 사회 체계의 전반적 불안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부양 중심에서 사회적 부양으로 사회적 가치관이 변하고, 이에 부응하여 사회적 부양 시스템인 노인 돌봄 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도화하면서 가족 부양 기능 저하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은 회복되고 사회 체계 차원에서는 부양 욕구와 부양서비스 공급 간의 안정을 다시 찾음으로써 항상성을 회복할 수 있다.

사회 체계 불안정의 예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1997년 소위 IMF 사태는 우리 사회 체계 다방면으로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외환위기는 금융기관 와해, 기업 와해를 넘어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 가구주 실업으로 인한 가족 와해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체계의 불안정은 동시에 회복 탄력성을 보여 주었다. 그 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고, 민간 차원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 절약 등을 통해 외환위기로 유발된 사회 체계 불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위기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 체계의 항상성 파괴는 사회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체계의 변화로 인한 돌봄 부담 체계의 변화가 사회적 돌봄 안전망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연결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사회 불안정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체계 불안정은 안정으로 일보 전진하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안정이 항상 유지되는 사회는 평안할지는 모르지만 진보는 없는 정체된 사회

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긴장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이자 에너지이다(Thelen, 1969).

하지만 사회 체계의 불안정으로 와해된 항상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 불안정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사회 체계의 불안정이 개인 체계의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대응 체계나 전략은 국가 차원의 관심사일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와 같이 촘촘히 연결된 국제적 관계를 생각할 때 사회 불안정에 대한 대응 전략은 지구촌 차원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실제 환경 체계의 불안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최근 국제 관계하에서는 지구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 불안정이 발생하기도 한다.

OECD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의 국제적 사례를 분석하면서 미래에 지구촌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영역으로 간주하였다(Renn, Jovanović, & Schröter, 2011). OECD는 사회적 불안정을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s)’으로 간주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2010년의 그리스 금융위기, 2009년의 조류독감, 사이버 안전(Cyber security) 등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뒤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을 논의하였다. 그리스 금융위기의 경우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이지는 하지만 그리스와 채무·채권 관계에 있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 불안정을 초래하였고, 조류독감은 발생하는 지역은 달랐지만 한번 발생하면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전 세계적 전파력을 가지고, 사이버 안전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 연결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국제적 대처가 필요한 영역이다(Renn, Jovanović, & Schröter, 2011).

OECD는 2011년에 국제 사회적 차원의 불안정에 대해 살펴본 다음, 후속 편으로 2012년에 사회적 불안 위험 관리 정책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 이 보고서에서는 2011년 보고서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적 불안정을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 전파 효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체계적 위험으로 간주하였다. 사회 체계 불안정은 개인 체계에 영향을 주고 사회 체계 불안은 개인 차원에서 공포, 불공정, 불만족 등으로 표현된다(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불안과 사회불안이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불안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 간의 부정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이다. 사회 하위 체계들 간의 부정합으로 초래된 사회불안이 개인의 불안으로 표현되고, 개인의 불안에 이러한 부정합이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불안과 개인불안으로 표현된 사회불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리 기반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체계와 경제 체계의 부정합, 가족 부양 전통과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 기능의 부정합 등은 우리 사회의 개인적 불안 경험을 이해하는 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회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체계 불안정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위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3. 개인의 불안과 환경

사회적 불안에 대해 합의된 개념적 정의나 표준화된 측정 도구와 비교하여 심리학 분야에서 사회불안은 개인의 정신과적 불안장애(anxiety disorder) 측면에서 그 정의와 측정 도구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는 1990년대 이후 그 중요성이 주

목받기 시작하여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개인의 부적응 행동 및 인지 증상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 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는 불안장애(anxiety disorder)의 진단 분류 중 하나이다. 사회불안(social anxiety)은 처음에는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1980년 DSM-III의 분류 체계에 도입되었고, 1987년 DSM-III-R와 1992년 ICD-10 개정을 통해 광장공포증이나 단순 공포증과 같은 다른 공포증과 별개의 진단 체계로 분리되었다(Lecrubier et al., 2000, p. 1). 그리고 DSM-IV 이후에는 사회공포증(social phobia)과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표 2-1〉 불안장애(anxiety disorder) 분류

-
- 분리불안장애: Separation Anxiety Disorder
 - 선택적 함구증: Selective Mutism
 - 특정 공포증: Specific Phobias
 -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Social Anxiety Disorder(Social Phobia)
 - 공황장애: Panic Disorder
 - 공황발작: Panic Attack Specifier
 - 광장공포증: Agoraphobia
 - 범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GAD)
 - 물질·약물로 유발된 불안장애
: Substance/Medication-Induced Anxiety Disorder
 -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불안장애
: Anxiety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Other Specified Anxiety Disorder
 - 명시되지 않은 불안장애: Unspecified Anxiety Disorder
-

자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pp. xviii-xix.

기존 심리학에서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인관계에서의 평가 불안이나 사회적 공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DSM에서 사회불안장

애(사회공포증)를 진단하는 기준을 <표 2-2>에서 살펴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불안(social anxiety)이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여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으로서 사회불안장애란 사회적 상황에서의 단순한 수행 불안이나 수줍음, 무대 공포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적이고 현저하게 나타나 사회적 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임상적으로 심각한 손상이나 고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 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견딘다는 것이다.

<표 2-2>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의 진단 기준

구분	내용
정의	- 타인이 주시하는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 예: 사회적 관계(대화를 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기 등), 관찰되는 상황(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행동 등), 다른 사람 앞에서의 활동(연설하기 등) -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동을 하거나 불안 증상을 보일까 봐 느끼는 두려움 • 예: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러운 행동,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행동 - 사회적 상황이 거의 항상 두려움이나 불안을 유발
대응	-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도의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서 견딤
특징	- 두려움이나 불안이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 위협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해 지나치게 큼 - 두려움, 불안, 회피가 지속적이고, 보통 6개월 이상 지속
영향	- 두려움, 불안, 회피가 사회적이거나 직업적, 그리고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
기타 진단 기준	- 두려움, 불안, 회피가 물질(약물 남용, 약물 치료 등)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생리학적 영향에 기인한 것이 아님 - 두려움, 불안, 회피가 공황장애, 신체 이형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잘 설명되지 않음 - 다른 의학적 상태(예를 들어 파킨슨병, 비만, 화상이나 부상에 의한 신체 손상)가 존재한다면 두려움, 불안, 회피는 관련이 없거나 혹은 과도하게 나타남

자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pp. 202-203의 내용 정리.

정신의학적 진단명이나 진단 기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불안과 공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다.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은 불안을 ‘만성화된 공포(두려움)’로 이해한다(김태형, 2010, p. 19). ‘공포’가 명시적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 비교적 짧고 강한 강도로 발생하는 감정이라면, ‘불안’은 나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에 따르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지속 기간이 긴 감정 형태이다. 프로이트가 주장했듯이 불안은 외상적 순간의 직접적인 결과로도 발생하지만, 단지 그러한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위협 신호에 의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다(김태형, 2010, p. 20).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불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개인 수준의 임상적 불안(clinical anxiety)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불안을 사회적 기술의 부족, 타인의 평가나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 낮은 자존감 등 개인적인 성향이나 부적응 측면에서 접근한다. 불안의 측정은 DSM의 진단 기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 관련 척도들을 사용하는데(김남재, 2004; 오강섭, 임세원, 2008; 구훈정, 양은주, 권정혜, 2012; 강진화, 이정애, 오강섭, 임세원, 2013; 오경자, 문혜신, 2002; Lecrubier et al., 2000),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수행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불안을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보고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잠재적인 사회적 요인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의료적 접근이 갖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지는 그 해결 방안을 어디에서 찾을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안의 원인을 개인 수준에서 찾는 것은 개인을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적 개입 등과 같이 개별적 치료와 개입의 대상으로만 보게 한다. 즉 문

제의 근본적 원인이 사회적 환경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 상태를 개별화함으로써, 단순히 개별 수준에서 치료 및 관리해야 하는 다른 질병처럼 그 상태를 더욱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Barca, 2018). Barca(2018)는 사회불안(social anxiety)이 그 원인을 단일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사회적 세계와 관련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한다.

Christina & Schmidt(2008) 역시 지난 20년 동안 사회불안장애의 생물학적이고 기질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사회불안의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사회불안장애의 전통적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간과되었던 환경 위험 요인에 초점을 두고, 최근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불안장애의 환경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3〉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의 환경적 위험 요인

요인	관련 변수
양육 및 가족 환경	- 육아: 부정적 양육 습관, 아버지 영향, 형제, 문화 - 부모의 정신 병리: 부의 정신 병리, 부모의 불안장애, 부모의 사회공포 - 애착: 애착과 불안, 애착과 양육 유형
불운한 인생의 사건	- 출산 전후: 모의 스트레스 및 불안, 모-태아 신경생물학적 모델, 임신 기간 동안 정신과 약물 - 외상적 사건: 불운한 환경, 성적·신체적 학대, 동료 관계 및 괴롭힘, 왕따, 부 부간 불화
사회적·문화적 요인	- 사회경제적 지위(SES) - 문화와 사회: 문화적 규범, 민족성, 출생 코호트
성 역할	- 성별 차이: 가족의 불행에 대한 성별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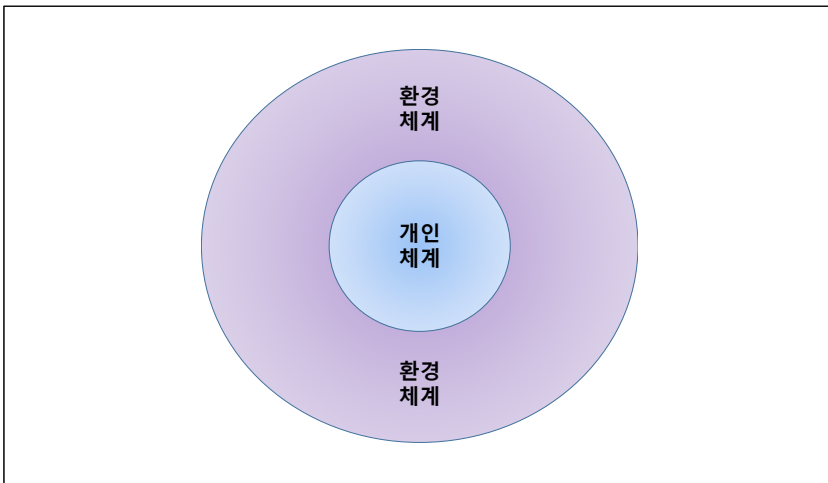
자료: Christina, A. B. & Schmidt, L. A. (2008). Social anxiety disorder: A review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Neuropsychiatric Disease and Treatment*. 4(1), pp. 123-143 내용 토대로 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심리학적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불안은 대인불안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의 기질 및 부적응 문제에 주목하여 불

안을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유기적 연관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는 사회 구성원 개인들의 경험으로부터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본 연구의 구성에 중요한 근간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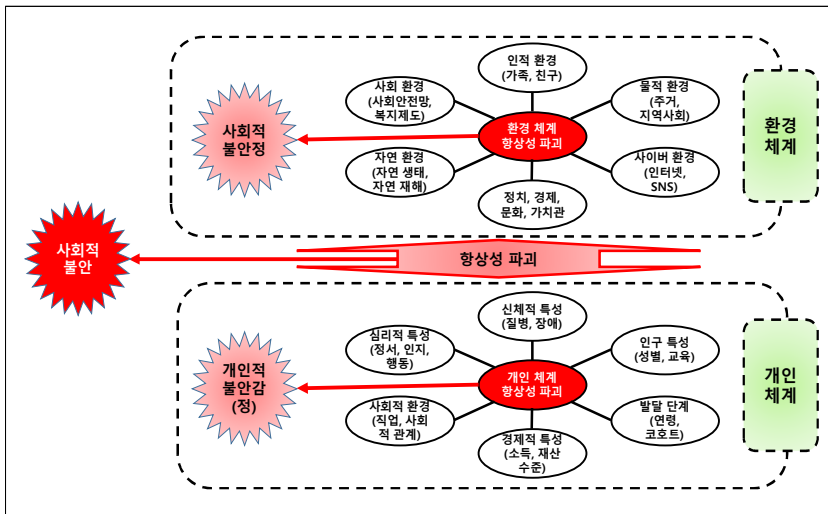
환경 체계와 개인 체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동적 상호작용을 하는 상호 의존적 체계이다(Von Bertalanffy, 1968). 개인 체계는 다양한 환경 체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개인 체계 내적인 요인의 불안정에 의해서도 변화하지만, 환경 체계의 변화에 의해 개인 체계의 변화가 유발되기도 한다.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 관점에서 개인 체계와 환경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2-4]와 같다. 환경 속의 인간의 개념은 환경 체계 차원의 ‘불안정’이나 개인 체계 차원의 ‘불안감’의 발생 및 개인 체계와 환경 체계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 2-4]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사회적 불안의 개념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개인 체계 내적 항상성 파괴는 신체·정신질환, 실업 등 개인 차원의 요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개인 차원의 특성들은 개인 체계 내적 요인들 간의 역동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 체계 요인 간 상호작용과 환경 요인들과의 총체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에 직면하고,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은 개인 차원의 건강이나 정신건강의 저하로 연결된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사회에 많을수록 사회 체계 차원에서는 체계의 항상성 회복을 위해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하지만 개인 체계와 사회 체계 간 이러한 항상성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체계 간 항상성이 깨어지고, 이러한 상태는 사회적 불안정 즉 사회불안으로 연결된다.

[그림 2-5] 사회적 불안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사회적 불안은 ‘개인 체계 불안감’과 ‘사회 체계 불안정’의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항상성이 파괴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항상 문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이고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긍정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항상성 파괴로 인한 불안정이 없다면 개인이나 사회는 정체되고 발전도 없다. 사회적 불안이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화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불안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악화, 즉 사회적으로 항상성 파괴가 있을 때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3절 불안의 영향과 불안에 대한 대응

본 연구는 개인의 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을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개인의 불안 인식과 대응이라는 기제를 검토하고 개인의 불안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제, 이러한 불안에 대한 대응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본 절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을 이해하고 이후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불안의 영향과 대응에 대하여 정리, 소개하고 있다.

1. 불안의 영향

사회적 불안의 영향은 언제나 같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불안 연구는 대체로 사회불안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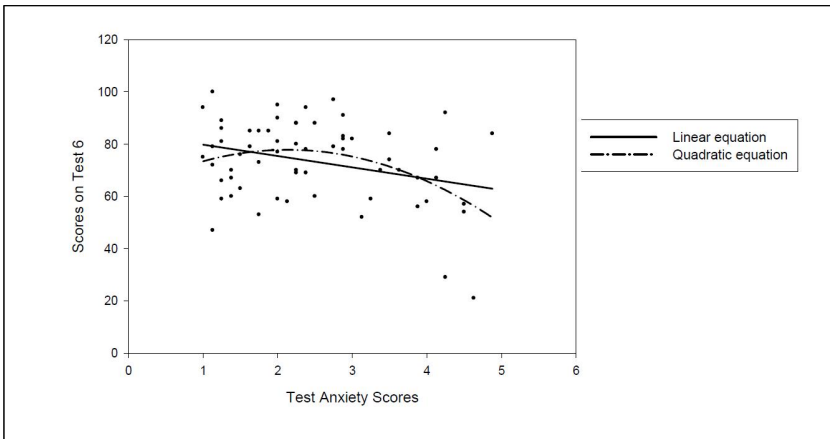
면 불안을 줄일까 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불안은 부정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기능도 있다. 예를 들어 시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시험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절벽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추락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권석만, 2013).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불안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진행된 연구들이 지배적이다. 기존 문헌의 한계를 고려할 때 불안을 정상적인 정서 경험으로 이해하거나 불안의 긍정적 측면과 연관되는 대응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안과 수행 기능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 문헌의 상당 부분은 불안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를 보여 준다. 불안 수준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아 불안과 학업 성취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El-anzi, 2005).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 모집단의 불안과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만 검증하고 지역이나 성별에 따른 하위 집단 내의 불안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Singh & Thurkral(2009)의 연구에서는 전체 집단에서는 불안과 성취도의 관계가 선형 부적 관계로 나타났으나, 도시와 농어촌 또는 성별 간 하위 집단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불안과 성취도의 관계는 개인이나 상황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불안과 수행 기능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또 다른 결과는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라는 주장이다. Kelley, Zayac, & Correia(2008)의 연구에서는 불안 수준과 성취도의 관계가 비선형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2-6]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경

우 성취도가 제일 낮았고, 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는 성취도가 중간 정도였으며, 불안 수준이 중간 정도일 때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장 높은 학업 성취도를 위해서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수준의 불안보다는 적정 수준의 불안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림 2-6] 불안 수준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자료: Kelley, J., Zayac, R., & Correia, C. (2008). Curvilinear relationships between statistics anxiety and performanc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Evidence for optimal anxiety. *Statistics Education Research Journal*, 7(1), p. 11.

통계학 시험을 통해 도출한 Kelley et al.(2008)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안과 외국어 습득 정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Horwits(2017)는 언어를 배우는 것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서도 불안과 성취도의 선형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선형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통계학 성취도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외국어 습득과 불안의 관계도 비선형 관계이므로 적정 수준의 불안은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불안이나 너무 낮은 수준의 불안은 오히려 외국어 습득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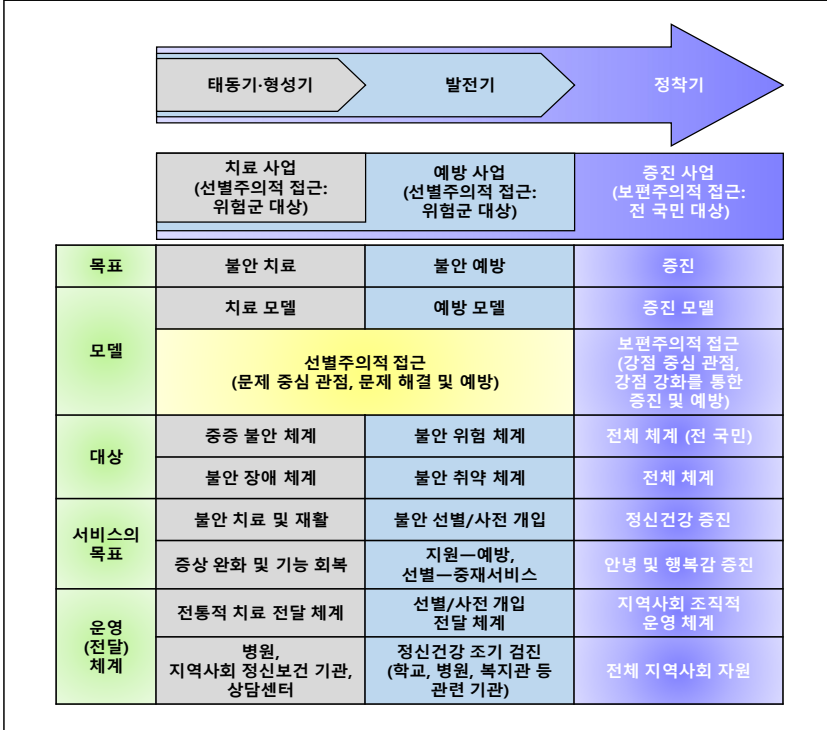
는 불안의 존재 유무뿐 아니라 불안의 수준과 이를 유발하는 요인, 대응의 수준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불안에 대한 대응

지금까지 사회적 불안의 개념적 정의, 개인 체계 불안감 및 사회 체계 불안정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체계 간 항상성의 와해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적 불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개인 체계 요소들 간의 항상성 파괴로 개인 체계 불안감이 유발되고, 사회 체계 요소들 간의 항상성 파괴로 사회 체계 불안정이 나타나며, 개인 체계 및 사회 체계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항상성 파괴가 나타날 때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사회적 불안은 항상 부정적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안의 긍정 기능은 극대화하고 부정 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대응 전략은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따라 변화해 왔다. [그림 2-7]은 대응 전략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강상경, 2013).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로 출발한 초창기 사회복지 개입은 사회적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 사회복지의 주 대상은 취약계층이고 개입의 전략은 사후 개입 치료 모델이다. 치료 모델에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접근은 개인 체계 불안감에 대한 사후 치료적 개입과 사회 체계 불안정에 대한 사후 회복 위주의 개입이 중심이 된다. 대응 전략의 목표는 불안 치료 및 회복이고 중심적인 전달 체계는 병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 상담센터 등이 주를 이룬다.

[그림 2-7] 사회복지 대응 전략의 역사적 전개 과정



자료: 강상경. (2013). 한국 정신보건서비스의 전개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7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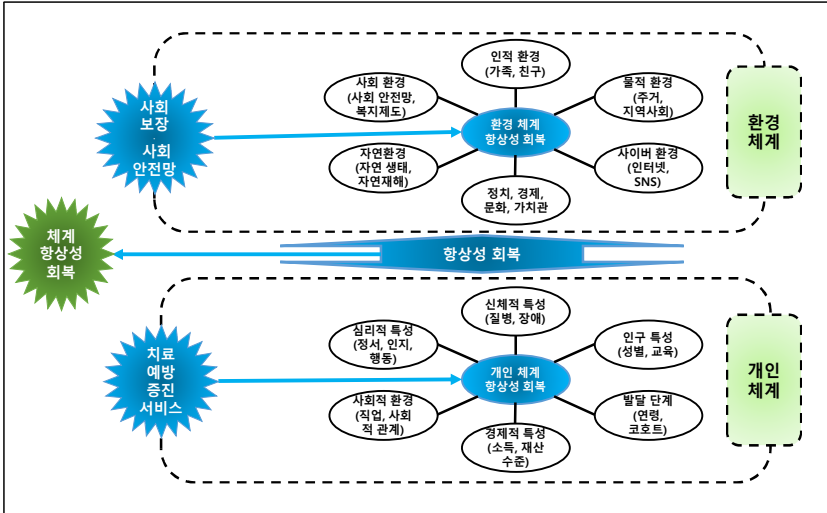
치료 모델의 사후 개입 성격이 사전의 예방적 개입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나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인권의 개념이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치료 모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예방적 모델이 등장하였다. 예방 모델은 불안 위험 체계를 중심으로 개인 체계 차원에서 하위 요인들 간 항상성 저하 요소들에 대해 사전 예방 대응을 하고 사회 체계 차원에서 체계 간 항상성이 와해되지 않도록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예방적 개입의 주체로는 전통적 치료 서비스 전달 기관의 범주를 넘어 학교, 복지관 등 관련 기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조기 검

진과 같은 예방적 개입을 통해 선별된 불안 위험 체계에 대해서는 항상성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지원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WHO의 건강 개념에서 나타난 것처럼 건강은 질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체계 및 구성 요소들이 건강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건강에 대한 대응 전략은 취약 체계나 위험 체계의 치료나 예방 모델을 넘어 체계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증진 모델을 취하고 있다(강상경, 2013). 증진 모델에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응 전략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녕감의 증진을 목표로 보편적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응 전략도 치료-예방-증진 사업까지를 망라하는 보편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증진 모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은 개인 체계 차원의 치료, 예방, 증진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부터 국민이 생존, 안전,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 체계 및 각종 사회안전망까지를 포괄한다.

불안에 대한 대응 전략은 사회적 불안의 역동적 메커니즘을 고려한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 2-8]은 지금까지 살펴본 체계 간 항상성 파괴의 결과로 초래되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도식화한 것이다. 앞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사회적 불안의 하위 속성들이 개인 체계 불안감, 사회 체계 불안정 및 체계 간 항상성의 파괴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불안의 이러한 다차원적 특성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증진지향의 보편적 대응 전략도 개인 체계와 사회 체계 및 체계 간 항상성 회복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8]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응 전략



개인 체계 불안감에 대한 증진 지향의 보편적 접근 전략은 치료-예방-증진 지향적 개입 전략을 망라한다. 치료 대응 전략은 개인 체계를 구성하는 각 하위 요인 및 하위 체계 간 와해된 항상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 등 다차원적 개인 체계 구성 요소들 간 와해된 항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방 대응 전략은 이러한 항상성 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며, 증진 대응 전략은 개인 체계 및 하위 요인들이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게 건강한 항상성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병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도전적 행동보다는 회피적 행동을 보이고, 외부 자극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불안감은 정서 특성상 개인의 인지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 (Gross, 2002). 사람들은 불안 자체를 성공을 위한 동기화의 근원으로 선택하기도 하고(Strack, Lopes, & Esteves, 2015; Strack, Lopes,

Esteves, & Fernandes-Berroca, 2017), 정서 조절을 통해 목표로 하는 최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Tamir & Ford, 2009). 단지 정서-인지-행동의 역동적 관계를 생각할 때, 병적인 불안으로 악화되기 전 또는 그 이후라 하여도 개인 체계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불안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체계 불안정에 대한 증진 지향의 보편적 접근 전략도 개인 체계 접근과 마찬가지로 치료-예방-증진 지향적 개입 전략을 포괄한다. 치료적 관점의 사회 체계 대응 전략도 사회 환경, 자연환경, 물적 환경, 인적 환경, 정치 환경, 경제 환경 등 다차원적 사회 체계 구성 요소들 간 와해된 항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개인 체계 접근 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예방적 대응 전략은 항상성 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응을 하는 것이며, 증진 대응 전략은 사회 체계 요인들이 항상성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전략은 사회 체계의 불안정을 생태 체계 위협으로 간주하는 OECD의 입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

사회적 불안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불안이 치료와 회복 및 항상성 증진을 위한 긍정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개인 체계 전략과 사회 체계 전략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 체계와 사회 체계 간 역동적 메커니즘의 항상성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체계 차원의 항상성 와해는 개인 체계 내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체계의 이슈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불안 대응 체계 전략을 구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3 장

사회적 불안의 정의와 질적 분석 구조화

제1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의

제2절 연구 문제와 질적 분석 설계

3

사회적 불안의 정의와 << 질적 분석 구조화

제1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의

1. 사회적 불안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측정

사회적 불안을 정의하기에 앞서 사회적 불안을 정의하거나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사회적 불안이라는 용어는 학자들을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들에서조차 사회불안을 직접 정의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사회적 불안을 정의하는 것과 측정하는 것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사회적 불안을 정의할 때 현상과 원인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도 존재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불안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기보다 측정 지표를 통한 조작적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은 불안의 원인이나 현상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통해 사회불안을 기술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의가 일관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측정 지표 검토를 통해 사회불안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의 2차 연도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한다.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 및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에 관심을 둔다. 특히 Beck의 『위험사회(risk society)』가 발간된 이후 위험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었고, 그 이후

위험을 인식하는 것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의 관계를 이론화하기 시작하였다(Vail, Wheellock, & Hill, 1999; Wilkinson, 2001;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p. 9에서 재인용). 사회적 위험의 영역별로 불안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불안의 개념 정의나 실제 측정을 시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훈구(2004)는 사회불안을 정의함에 있어 기존에 심리학에서 대인불안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사회불안, 즉 'social anxiety'가 아니라 'social worry'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사회적 혼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이훈구, 2004, p. 8). 하지만 이 연구 또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기보다 지표 개발 및 측정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

사회불안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서울 한 대학의 심리학 과목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불안의 영역과 핵심 주제들을 추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어떤 점에서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 2차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그 결과 나타난 영역과 세부 내용을 비교하였다. 당면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불안의 원인과 많은 부분 공통적인 불안 요소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그는 사회불안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즉 이 연구는 사회불안을 불안의 원인과 요소 차원에서 정의 내리고 그 전제하에 척도 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표 3-1〉 사회불안 인식 검사 척도 개발 과정

분석 절차	분석 방법
예비 조사	-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영역) 추출을 통해 사회불안 정의 • 사회불안의 원인 질문 통해 17개 영역 및 영역별 세부 주제 추출 • 해결 필요 과제 질문 통해 18개 영역 및 영역별 세부 주제 추출
영역별 논문 검토	- 영역별 불안을 유발하는 핵심 주제 도출 - 영역별로 30개 이상씩 태도 문항 제작
1차 요인 분석	- 영역별 요인과 문항 추출(6개 영역, 41개 요인, 132개 문항)
타당도 검사	- 1차 요인 분석 결과 추출된 문항과 불안 관련 다른 조사 문항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이 낮은 문항 제거
2차 요인 분석	- 타당도 검증 결과 남은 문항을 토대로 요인 분석 결과 최종 문항 선정

자료: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사회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법문사. pp. 7-34 관련 내용 토대로 정리.

예비 조사 이후 선정된 6개 영역별 관련 논문 검토와 요인 분석 및 타당도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4개 요인, 4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고 사회불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3-2〉 사회불안 인식 검사 척도의 영역과 요인

영역	요인(문항 수)
정치 문제	대통령에 대한 불신(4개 문항)
	정치인에 대한 불신(4개 문항)
	정치 불안과 관련된 위기의식(3개 문항)
경제 문제	경제에 대한 비판적 전망(4개 문항)
	노사 문제(2개 문항)
남북문제	북한/김정일에 대한 불신(5개 문항)
	주한 미군 철수 관련(2개 문항)
노사 문제	강경 노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7개 문항)
	정부의 대처 능력 부재(2개 문항)
교육 문제	교사에 대한 불신(4개 문항)
	교육제도 문제(2개 문항)
빈부 격차	재벌과 정부에 대한 불신(6개 문항)
	빈부 격차에 대한 수용(2개 문항)
	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회 병리 현상 증가(2개 문항)

자료: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사회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법문사. pp. 229-238 토대로 정리.

이 연구는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인식 외에도 불확실한 사회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사회불안과 신뢰, 더 나아가 삶의 만족 및 행복 등의 변인들로 한 사회가 사회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불안, 신뢰, 삶의 질(삶의 만족), 정서(행복감,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등 사회심리학적 안녕 척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불안은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 및 긍정적 정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정서와는 상관관계는 있으나 매우 낮았다. 이는 사회가 불안하더라도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 및 정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사회불안은 사회적 수준의 변인인 반면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은 개인적 변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뢰 변수의 경우 사회불안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신뢰는 개인 변인이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보여 줄 수 있는 사회적 변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훈구, 2004, pp. 150-152).

이훈구의 연구는 불안의 원인으로서 위험에 대한 인지에 초점을 둔 반면 사회불안 경험 자체는 척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대신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 등 심리적 안녕과 관련된 척도와의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상관관계가 매우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다. 차이는 송관재 외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반응으로서 불안 지표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과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별개의 차원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행복 수준이 높다고 해도 불안을 느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는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반응으로서 사회불안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이란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불안으로,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초한 불안이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불안이다(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p. 4). 즉 개인적 변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 아닌 사회불안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이다. 사회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적 불안을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불안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자면 기존 심리학 연구에서 대인관계에서의 평가 불안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회불안은 존재 불안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불안을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협이 존재하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존재, 유지, 발전 등이 위험하거나 위협당하고 있다는 느낌, 인식, 지각을 의미한다(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p. 28).

측정을 위해 세 차례의 조사를 거쳐 개인적 불안, 경제적 불안, 공정성 불안, 미래 불안, 불신 불안, 안전 불안, 사회 문제 불안, 정치 불안 등 8개 하위 영역, 40개 문항(영역별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불안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척도와 더불어 2개의 단일 문항으로 '우리 사회 불안에 대한 지각'과 '사회불안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에 대한 질문을 연구 주제에 따라 혼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개발한 불안 척도가 대부분 영역별 사회에 대한 평가 및 위험 지각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단일 문항은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사회불안 지각과 정서적인 불안을 측정한다.

〈표 3-3〉 사회적 불안 척도 개발 과정

분석 절차	분석 방법
1차 조사	- 서울 시내 한 대학의 사회심리학 수강 심리학과 전공 대학생 68명 대상 - 어떤 경우에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지 개방형으로 질문 - 사회적 불안의 유형과 형태를 내용 분석: 50개의 사건 및 현상 추출
2차 조사	- 선별된 사회적 불안 상황을 전문가(심리학 박사 학위 소지자와 박사 과정 수료자) 9명에게 제시하고 부가적 사회적 불안 상황들과 그에 대한 문항 수집 - 그 결과 주요 상황을 8개로 분류, 68개의 문항 구성
본조사	-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총 301명을 대상으로 68개의 예비 문항으로 조사 및 분석 - 최종 40개 문항 확정(100점 만점)
타당성 검증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와 사회적 불안을 다른 측면에서 측정한 2개 불안 척도(지각된 사회적 불안, 상태 불안) 간의 관련성 분석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와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척도(펜실베이니아 걱정 증상 질문지, 신경증 척도, 심리적 안녕감, 생활 만족) 간의 관련성 분석

자료: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pp. 27-47의 관련 내용 토대로 정리.

〈표 3-4〉 사회적 불안 측정 도구

측정 도구	구성 및 문항
사회적 불안 척도	개인적 불안 - 이 사회를 경쟁적으로 느끼고 그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불안(5개 문항)
	경제적 불안 - 우리 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5개 문항)
	공정성 불안 - 사회에서 공정함이나 규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유형의 불안(5개 문항)
	미래 불안 - 이 사회에서 앞으로 삶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5개 문항)
	불신 불안 - 우리 사회, 정부 등에 대한 불신(5개 문항)
	안전 불안 - 전쟁이나 안전사고 등 신체적인 위협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5개 문항)
	사회 문제 불안 - 지역 갈등, 집값, 교육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5개 문항)
	정치 불안 - 정치가 혼란스럽고 정부를 믿을 수 없음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5개 문항)
사회불안 지각	-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사회에 대한 불안 지각 측정
상태 불안	- “우리 사회를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로 정서적 측면 측정

자료: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pp. 27-47의 관련 내용 토대로 정리.

그리고 개발한 척도를 불안의 특성에 따라 4개 하위 유형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유형은 이미 일어난 혹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불안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이 있는 불안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이는 사회불안을 불안의 영역과 내용 측면에서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 자체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3-5〉 사회적 불안 척도의 하위 차원

기준	유형	
예견적인지, 반응적인지	- 예견 불안: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염려하여 느끼는 불안	- 반응 불안: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불안
유관성	- 유관 불안: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 느끼는 불안	- 불유관 불안: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스스로 느끼는 불안

자료: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p. 34 내용 정리.

위의 송관재 외의 연구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불안 이해의 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상기 연구는 사회의 불안을 초점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주요 영역에서의 불안에 대한 척도화된 질문으로 불안을 측정한다는 한계를 공유한다. 한편 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과의 안정성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연구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고 유형화하였으며 공정성이나 신뢰를 고려하여 불안의 기전을 밝히고자 하였다.

최인철, 김범준(2005)의 연구도 계량적, 객관적 지표만으로 위험 사건들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주관적 위험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불안이라는 심리적 실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일반인들에게 위험이란 객관적인 수치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최인철, 김범준, 2005, p. 12). 이 연구는 사회불안 자체에 대해 개념적 정의

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개념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사회불안이라는 심리적 경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문항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을 합한 총 61개 문항에 대해 조사한 후, 요인 분석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제감 상실’, ‘사회 공정성 불신’, ‘사건·사고 등에 대한 취약성’ 등 3개 요인(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송관재 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사회불안의 지각과 사회불안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표 3-6〉 사회불안 수준 측정 도구

측정 도구	구성 및 문항	
사회불안 척도	지각된 통제감 상실	- 사회의 급변성,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불신 등 사회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9개 문항으로 구성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 불신	- 법 집행의 불공정성, 편법과 연고주의의 만연 등 사회의 운행 원칙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
	사건·사고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 개인이 각종 안전사고, 범죄, 정보 격차 등에 얼마나 취약하고 그로 인한 불안을 표현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
지각된 사회불안	-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10점 '매우 불안하다'의 10점 척도)	
지각된 개인불안	-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자신의 불안 수준은 100점을 가장 높게 보았을 때 몇 점 정도 됩니까?	

자료: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pp. 22-35의 관련 내용 정리.

최인철과 김범준의 연구는 사회불안 수준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불안 유발 사건들의 심층적 심리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사건들과 최근 사회적 관심 사건들을 포함하여 11개 영역의 총 70개 사건을 구성하고, 조사 대상자들에게 각 사건을 〈표 3-7〉의 8가지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8개 차원이 ‘발생 가능성

(발생 가능성, 발생 빈도, 발생 시기)’과 ‘심각성(심각성, 통제 가능성, 피해 범위)’의 2개 차원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표상은 각 사건이 얼마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두 차원의 높고 낮은 정도를 기준으로 각 사건 및 사건 영역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도 사회불안이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두 관계를 분석하였다. 위험(risk)은 그 정의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 이를 예측 또는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사회의 기능이 실패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의 불신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표 3-7〉 사회불안 유발 사건에 대한 심리적 표상 구조 측정 도구

차원	측정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	전혀 없음 1~매우 많음 7
발생 빈도	전혀 없음 1~매우 자주 발생 7
개인의 통제 가능성	전혀 없음 1~매우 높음 7
우리 사회의 통제 가능성	전혀 없음 1~매우 높음 7
발생 시 피해 범위	매우 적음 1~매우 광범위 7
사건의 결과가 개인에게 심각한 정도	전혀 심각하지 않음 1~매우 심각 7
사건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정도	전혀 심각하지 않음 1~매우 심각 7
사건의 발생 시기	당장 1~먼 미래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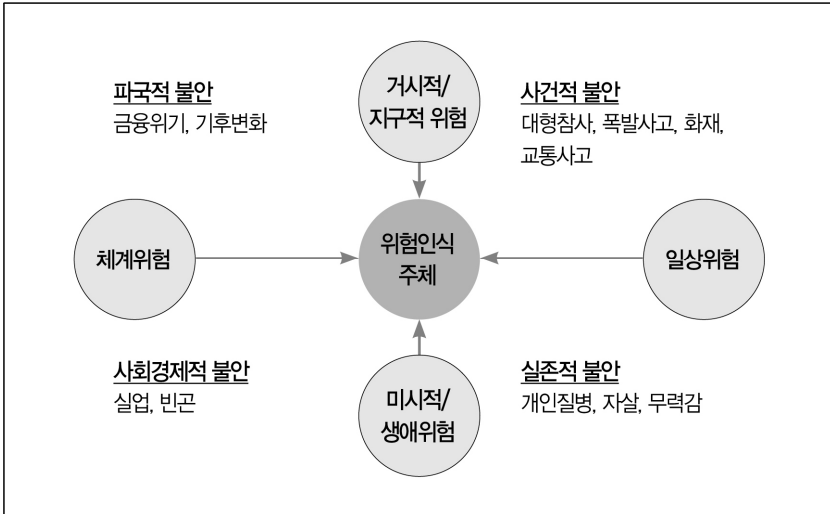
자료: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p.23 관련 내용 정리.

조권중(2014)은 위험과 불안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위험이 어떻게 불안으로 전환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확산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즉 위험의 사회적 전이 과정과 기제에 주목하여 측정 지표에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개인의 불안 수준과 대응 방식까지 포괄하고 이에 더해 위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대처 방식에 대한 평가 등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확인한 다른 연구들에 비해 위협에 대한 인식이나 불안 경험 자체를 넘어 불안에 대처하는 개인의 태도 및 행동과 사회적 수준의 대응에까지도 관심을 둔 것이다.

위험은 객관적인 영역인 데 반해 불안은 직접적인 위협의 반영이 아니라 주관적인 차원이다. [그림 3-1]은 위험과 불안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보여 주는데, 가로축은 체계와 일상 수준의 위험을 구분한 것이고, 세로축은 거시적인 위험과 미시적인 위험을 나눈 것이다. 위험의 네 차원 안에서 ‘실존적 불안’이란 생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과 소통하기 어려운 내적 불안감을 의미하며, ‘사건적 불안’은 일상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위험(사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재난 등을 포괄)으로 인한 불안을, ‘파국적 불안’은 개인이나 특정 국가를 넘어 글로벌한 정치·경제·생태 시스템 수준에서의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을, ‘사회경제적 불안(구조적 불안)’은 일상의 삶을 구조화하는 제도와 시스템에서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불안의 현상은 이미 개인의 실존적 불안을 넘어 사회적 불안, 도시적 불안, 구조적인 불안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위협들이 개인의 운이나 실수로 돌리기 어려운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조권중, 2014,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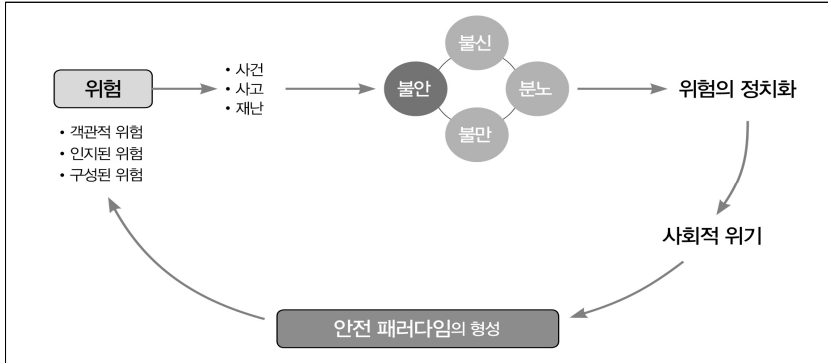
[그림 3-1] 불안의 구조와 위협의 사회적 구성



자료: 이재열, 정진성. (2010).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조권중. (2014).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p. 10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하였듯이 객관적인 위험이라 하더라도 경험하는 불안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인식의 주관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동일한 위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자원이 많은 경우 느끼는 불안감은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유발한 불안, 불신, 불만, 분노는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해 정치적·사회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그림 3-2] 위협의 사회적 전이 전개



자료: 조권중. (2014).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p.12.

위협과 사회불안에 대한 진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위협은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형별로 위협 증가도, 발생 가능성, 통제 가능성을 조사하여 최인철, 김범준(2005)의 연구처럼 불안을 유발하는 위협 요인의 심리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표 3-8~9〉 참조). 불안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는데, 전반적인 불안감, 일상생활에서의 불안 경험, 영역별 불안 경험 정도, 대중 매체를 통해 위협 유형별로 정보 접촉 시 느끼는 두려움 정도, 개인적 불안 대처 방법, 사회적 자본 등 개인의 불안감에서부터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불안사회에 대한 인식과 안전 의식 영역에서는 주로 정부(서울시)의 위협 인식과 책임 그리고 대처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영역에도 주목하여 신사회 위협 요소별 중요도, 피해 가능성,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역시 사회불안과 신뢰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도 및 행위 주체별 신뢰도를 조사에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표 3-8〉 위험의 유형별 분류

위험 유형	내용
자연재해 관련 위험	홍수, 태풍, 황사, 가뭄, 지진, 쓰나미, 급격한 기후 변동 등
건강 관련 위험	신종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 요소, 성인병 등
생애 주기 관련 위험	노후 불안, 가족 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생활 관련 위험	사생활 침해, 폭력 범죄, 인적 재난, 산업 재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위험 등
경제생활 관련 위험	실업·빈곤, 주택·전세 가격 불안, 금융 불안, 경기 침체와 저성장 등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	북한의 위험,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등
환경 관련 위험	원전 사고, 환경 오염, 자원 부족·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관리 등

자료: 조권중. (2014).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p. 21.

〈표 3-9〉 '서울 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 조사'의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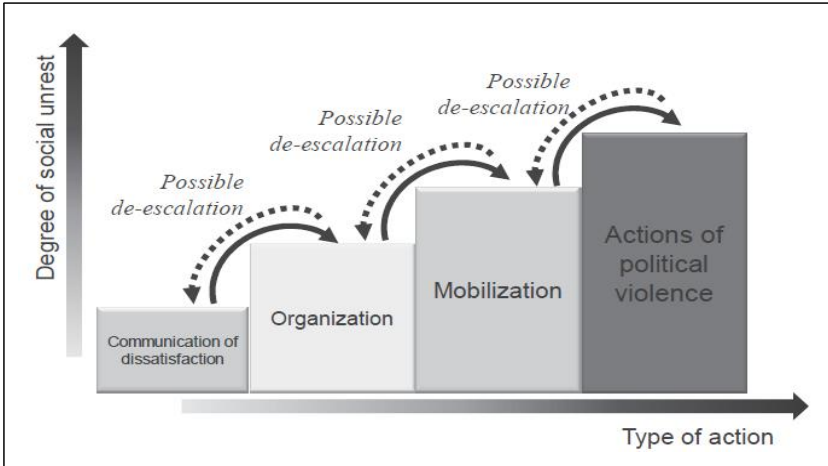
영역	설문 내용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와 서울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인식 - 위험 요소별 향후 전망, 발생 가능성, 통제 가능성 - 위험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불안 인식과 태도	- 전반적인 불안감 - 일상적 불안감 경험 정도 - 불안 요소별 경험 정도 - 위험 요소별 정보 접촉 시 두려움 인식 정도 - 불안에 대응하는 태도 -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주변 사람이나 기관
불안사회에 대한 인식과 안전 의식	- 사회적 이슈 관련 활동 참여 - 서울시의 사회 위험 인식 수준 - 위험 요소별 서울시 책임 정도 인식 - 서울시 대처 방식에 대한 평가 - 안전 문제 관련 정보 신뢰도 - 안전 문제에 가장 필요한 대처 방안 - 안전 의식 수준 평가
신사회 위험	- 서울 도시 특성 인식 - 신사회 위험 요소별 중요도/피해 가능성/서울시 책임 정도 인식 등
사회적 신뢰 수준	-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도 - 주변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신뢰도
인구통계학적 접근	- 성별, 권역, 직업, 학력, 혼인 상태, 가구소득, 주택 형태 등

자료: 조권중. (2014).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pp. 22, 117-131 토대로 정리.

OECD와 IL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사회불안은 ‘social unrest’로 표현되며, 사회불안을 정의하거나 측정하는 데 있어 불안의 표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가 2009~2011년 수행한 미래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미래 글로벌 쇼크(Future Global Shocks) 보고서는 미래의 주요 위기 중 하나로 사회불안(social unrest)을 지목하였다(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OECD가 2012년 발간한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정형의 상태가 아닌 점증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불안의 현상 측면에서 행동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3-3]에서와 같이 불안의 수준과 행동 유형을 기준으로 사회적 불안의 기본 틀/framework of social unrest)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불안을 표출하는 행동 유형은 4가지로 나타나며 상위 단계일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각하다. 1단계는 사회적 수요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침해되어 불만이 확산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항의가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단계이다. 조직화란 가지고 있는 불만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 줄 수 있는 기존 단체나 조직들을 찾거나, 아니면 그들만의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는 조직화된 집단이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조직화된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그림 3-3]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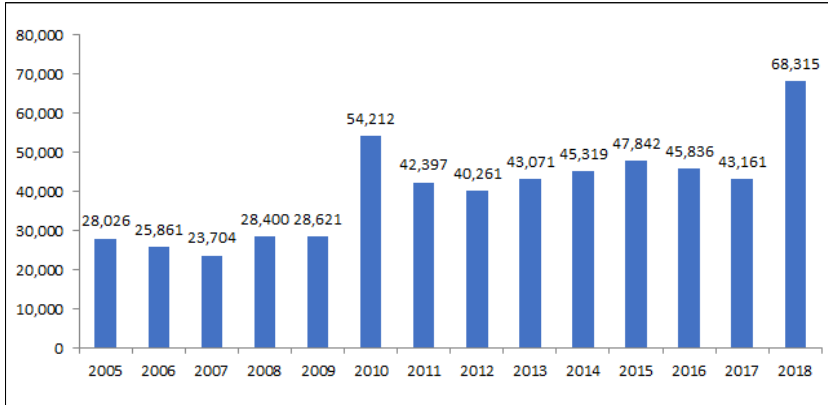
자료: Jovanović, A. S., Renn, O., & Schröter, R. (2012).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Social Unrest. OECD.p. 44.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을 보면 최근 빈도가 높아졌다. 2010년 야간 집회가 처음 허용된 이래 2010년 이전 연도 대비 크게 늘었고 2011년 다소 감소하였다. 이후 2015년까지 증가하였고 201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시위는 2018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010년 이후 시위 빈도가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2018년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이 그리 낮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시위 빈도 자체를 사회적 불안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위의 비교 시기는 이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점 이후여서 시위 빈도가 우리 사회의 불안과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시위 빈도가 사회적 불안을 암시하는 완벽한 지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위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불안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림 3-4] 연도별 집회 개최 현황

(단위: 건)



주: 2010년에 야간 집회가 처음 허용됨.

자료: 경찰청. www.police.go.kr에서 2019. 10. 24. 인출.

OECD는 사회불안을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 사회적 불안은 기술적,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위험의 맥락 속에서 위험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상호 복잡하게 연관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 pp. 11-12). 다시 말해 사회적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 요소 파악, 위험 평가, 위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전체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반적인 원인-결과 분석을 넘어 다른 위험군(risk clusters)과의 상호 의존성과 그 파급 효과에도 중점을 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 p. 13).

ILO에서는 2011년부터 『일의 세계 보고서(World of Work Report)』에서 사회불안을 지수화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불안 지수(social unrest index)는 정부 신뢰, 생활 수준, 노동시장, 삶의 자유, 인

터넷 접근성 등 5개 영역의 변수로 구성되며, 각각의 변수에 대해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였다(ILO, 2013, p. 15). 사회불안 점수는 0~1 (0~100)의 범위를 가지며, 0은 가장 낮은 불안 위험을, 1은 가장 높은 불안 위험을 의미한다(ILO, 2013, p. 15).

〈표 3-10〉 사회불안 지수(social unrest index) 구성(2013년)

변수	내용	가중치
정부 신뢰	-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 중앙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부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 - 부의 분배가 공평한 사회일수록 정부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음	0.35
생활 수준	- 현재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 - 가구의 생활 수준이 나아졌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며, 실업이나 불완전고용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0.2
노동시장	- 현재 거주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 -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0.2
삶의 자유	-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관련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 어떻게 살고 싶은지(또는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지표로, 집단적 불만을 정부에 표출할 수 있는 민주적 통로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파악	0.2
인터넷 접근성	-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근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현대적 방식의 의사소통 통로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0.05

주: 2011년과 2012년 보고서에는 2013년 지표 중 '지역 노동시장' 변수 대신 '국가 경제 여건(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변수별 부여된 가중치도 약간의 차이를 보임.

자료: ILO. (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Repairing the economic and social fabric. pp.15, 23 토대로 정리.

ILO는 사회불안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정부 신뢰를 포함하였다. 국내 사회불안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사회불안을 이해하는 데 신뢰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였으며, ILO 지표와 같이 사회불안의 한 차원 혹은 세부 주제로 신뢰 문제를 포함하거나 사회불안 지표와는 별개의 관련 개념으로서 신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와 비교해 특이할 만한 점은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성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조직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경우를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5년 『일의 세계 보고서(World of Work Report)』가 「세계 고용·사회 전망(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으로 대체된 이후 ILO(2019)의 사회불안 지수는 기존에 사회불안의 원인 혹은 매개가 되는 변수에 초점을 두었던 데 반해 시위와 같은 불안 표출 행위 발생으로 측정 지표가 변경되었다. 즉 전체 사건 중 시위 관련 사건의 비율을 기초로 계산되며, 점수는 0~100의 범위를 가진다(ILO, 2019, p. 82). 여기서 시위(protests)라 함은 꼭 폭력적인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거리 시위, 폭동, 집회, 불매 운동, 도로 봉쇄, 파업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항상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다(ILO, 2019, p. 82). 다시 말해 ILO의 사회불안 지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반감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 주는 사회 전망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ILO, 2019, p. 82).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모호한 만큼 측정 지표들은 원인과 증상, 현상의 구별이 부족한 상태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방안을 제시·권고한 OECD 보고서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불안은 전체 시스템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즉 불안은 위협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그 원인이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잡하며, 그로 인한 다양한 현상이나 다른 분야로의 파급력 등 불안이 작동하는 체계 또한 역동적이다. 관련 연구들에서도 연구의 분야 및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지표를 구성하고 측정하였다. 개인에 대한 심리적 접근에서부터 사회 구조적 문제 등과 같은 불안의 원인에 초점을 둔 연구,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및 지각, 불안 경험 자체, 또는 불안의 결과로서 표출된 현상, 정책 대응 논의 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상기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었다. 불확실성, 급변과 적응, 신뢰의 부족, 삶의 자유와 사회적 불안의 긴밀한 관계는 본 연구에서도 중요한 이해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해당 연구들 중 일부 연구는 삶의 만족이나 행복이 불안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다만 삶의 만족이나 행복과 같은 정서적 경험을 개인불안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불안과 별개라는 이유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당연히 삶의 만족이나 행복이 불안과 다른 차원이라 간주하지 않는다. 이들의 관계 유무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 후 본 연구의 의의는 실제 사회 구성원의 경험을 분석하여 각 요소 - 현상과 원인, 대응과 현상, 그리고 개인 차원의 경험과 사회적 요인 - 의 연관성을 한국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상기 연구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연구는 사회적 불안의 제 측면이 작동하는 복잡한 맥락에 대하여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특이성을 고려하는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의와 해석의 단초

연구마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상이하기는 하나 공통적인 전제는 사회불안이란 사회적 환경의 맥락 속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인지되거나 경험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불안은 그 용어에서도 내포 하듯이 사회적 성격을 가진 개념이다. 여기서 사회적이라 함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불안의 원인이 단순히 개인의 기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의 정의는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의 연구(2004)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사회적 불안이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일 위험이 있다는 점도 내포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가정하는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 불안이란 사회 체계적 요인으로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기분이나 경험을 말하며, 따라서 사회적 대응으로 현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불안은 현상의 원인 이자 결과로 작용하는 등 그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당사자가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불안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에의 적응 또는 발전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대응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이러한 복합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내용과 수준, 그리고 원인과 현상 등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자면 우리 사회의 불안에 대한 단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야만 하였다. 원인과 현상이 뒤섞인 사회적 불안은 다양한 관련 연구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불안에 대한 귀납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EBS 감정 시대 제작팀(201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불확실성, 무한 경쟁과 고립, 개인 책임의 강조, 계급적 사고의 고착, 불안의 대물림 즉 세대 간 이동의 축소를 사회적 불안의 주요 연관어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인데 “압축 성장이라는 말로 요약될 만큼 대한민국은 초고속 성장을 했다(EBS 감정 시대 제작팀, 2017, p. 19). 서구권 국가들이 몇 백 년에 걸쳐 이룬 성장을 불과 5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뤄냈다(EBS 감정 시대 제작팀, 2017, p. 19). 그리고 경제위기로 더욱 가속화된 후기 자본주의는 우리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EBS 감정 시대 제작팀, 2017, p. 21)”라고 우리 사회의 불안이 높은 배경을 설명하였다. 우리 사회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팍팍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고립을 선택하였다. 즉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해야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고립을 선택하는 것으로 고립은 불안과 이렇게 연관된다.

공감이 어렵고 “모든 가치가 돈으로 수렴되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 타자와의 관계를 힘의 우열로 가늠하는 습관, 타인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혼자 평균적인 삶을 살기도 벅찬 상황에서 개인들은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회 전체로 계급적 인식이 강화되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자존감을 지키려 한다(EBS 감정 시대 제작팀, 2017, p. 128)고 이 연구는 설명한다.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불안의 현상과 원인을 매우 정교하게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유형을 평가 불안과 존재 불안으로 구분하였다. 평가 불안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으로 바람직한 인상을 만들려는 동기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주관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야기된다(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pp. 4-15). 반면 존재 불안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 및 평가하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불안, 예컨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현재의 행복과 안녕을 침해하는 것, 기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 등과 관련된 것이다(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pp. 15-16). 이 연구는 존재 불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이성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들이 주로 평가 불안에 주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 사회의 불안은 한국의 역사로 더욱 공고해지기도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는 취업 불안, 비정규직 공포, 공동체 붕괴, 살벌한 각자도생이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되도록 하는 험한 계기가 되었다(EBS 감정 시대 제작팀, 2017). EBS 감정 시대 제작팀(2017)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 세대의 실직과 실패를 지켜보며 자란 이들 세대는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현실은 온화하지 않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라고 결심한다. “불안하니까 죽기 직전까지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이후 위험을 주제로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분석한 연구(이재열, 2015)에서는 한국을 이중으로 위험한 불안사회로 간주하였다. 이재열(2015)은 불안의 근원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며, 한국 사회의 경우 과거형 위험과 미래형 위험의 이중 위험에 노출된 불안사회라고 보았다. 과거형 위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위험 요소들이 축적되는데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결국 축적된 것이 폭발하는 양상을 띠는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개선 방향도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에 대한 관용, 학습의 부재, 희생양 찾기 등의 내재화 전략을 통해 위험이 반복되어 왔다. 1990년대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2014년 세월호 사건 등이 그러한 예로 지목되었다. 재난을 ‘숙성된 사고(incubated accident)’라고 정의한 Turner & Pidgeon(1997)은 ‘재난이란 사전의 경고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문화 속에서 축적된 위험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집중하여 나타나 한 사회나 사회의 하위 체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한다(Turner & Pidgeon, 1997; 이재열, 2015, p. 219에서 재인용).

한국의 사회적 불안은 서구의 사회적 불안과 비교하여 다른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특이성을 지적하였다. 국외 연구들은 주로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는 맥락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OECD의 보고서(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에서 사회불안을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제안하는 것과 “사회적 불안은 기술적,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위험의 맥락 속에서 위험의 원인이자 결과(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 p. 11)”일 수 있다는 설명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본 연구의 접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사회적 불안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놓치고 있었던 영역, 한국적 문화의 특수성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징 중 ‘삶의 자유’는 ILO의 관련 보고서(ILO, 2013)에서도 중요한 사회불안 영역으로 다루고 있어 사회적 불안의 특이성과 일반성의 교점이라 추정된다. 연구에서 이 영역의 이러한 특징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문제와 질적 분석 설계

1. 연구 문제의 구조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하나, 한국의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불안은 무엇인가?

둘, 불안을 경험하는 원인, 관련 요인은 무엇인가?

셋, 사회적 불안이 사회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폭넓게 이해, 분석하자면 어떠한 지표로 조사하여야 하는가?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나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따라 연구의 틀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앞서 지적하였다. 즉 사회적 불안은 시스템적 현상으로 다양한 정서,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의 연구 문제는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종합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불안 경험과 불안 요인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 점을 면담 내용을 구성하고 분석 방향을 정하는 데 고려하였다.

질적 면담의 가이드 개발이나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연관어 설정 등에서 관련 연구의 주요 연관 개념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초점을 둔 것은 불안 경험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불안 경험뿐 아니라 과거의 불안에 대한 포착과 그 시점의 불안과 관련된 경험을 회고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나 불안을 초래하는 예견된 불안도 파악할 수 있도록 면담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불안에 대한 대응은 불안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응 경험도 면담 중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인지와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주 언급되는 삶의 만족, 그리고 기타 관련 요소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담 내용을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면담 가이드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고 일부 질문에 대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다.

2. 질적 분석을 위한 면담 조사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적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개인에 의해 중층적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므로 서로 다른 집단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산다고 본다. 질적 연구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경험을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이다. 연구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이 살면서 행동하고 느끼고 겪었던 것 등 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살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현재 주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다고 느끼는지, 불안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누가 도와주는지,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은 어떠한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며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등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불안이라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삶은 어떠한지,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의 논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개별적 보편자에 가깝다. 참여자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사회와 환경의 특성에 의해 보편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질적 연구의 대상은 개인 A가 아니라 ‘가정 해체로 조 건부 수급 취업 준비생인 20대 후반 고시원 거주 1인 가구 남성(사례 10)’이다. 질적 연구는 특정한 사회적 위치, 범주, 집단에 소

속되어 있는 참여자의 상황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질적 연구의 면접 조사 자료는 특성상 개인의 인생 내력에 기반한 자료여서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개인의 일상생활과 행동 속에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지식이 들어 있다.

질적 분석을 위한 면담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적 면담 → 질적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 참여자 집단 선정 → 초기 인터뷰 가이드 마련 → 초기 면담 → 연구진 회의와 인터뷰 가이드 수정 → 면담 → 녹취와 분석

질적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해당 이슈와 관계가 깊은 집단인지였다. 불안은 과거를 기초로 미래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유관한 감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의 소득 상실이나 건강으로 인한 불안도 노인이 되기 이전에 작용할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참조하면 취업과 경쟁, 고립과 질환, 양육과 부담 등 각종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요인들이 청년과 청년(또는 아동) 가족들의 일상에 농축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이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장년의 부모 또는 부나 모가 있는 가구를 선택하여 노인기를 앞둔 사례, 그리고 아동을 양육하는 구성원의 불안이 농축된 경험을 파악할 사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과 청년(또는 아동)과 부와 모의 가구로 사례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려는 개략적인 것으로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사례를 구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우선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참여자군을 구성하였다. 대략 4가지 요인인데, 취업 여부(취업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괄), 결혼 여부가 고려되었다.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에 대한 불안도 존재하므로 경제적 계층도 고려하여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포괄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성별로 여성과 남성이 참여자에 공히 포함되도록 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한 면담은 총 40여 명 참여

자를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다만 이 중 3개 사례는 본조사 전 실험적 면담으로 위 구분에 해당하지 않은 노인 1인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예비조사 참여자는 33세 청년, 41세 장년, 81세 노인이었으며 이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고려되었으나 면담이 본조사의 인터뷰 가이드를 완벽하게 준용할 수 있는 시점 전에 실시되어 내용이 상이하다. 실험적 면담 이후에도 초기 인터뷰 가이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1차 면담은 인터뷰 가이드가 완성된 2차 면담과 구분된다.

〈표 3-11〉 질적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과 규모: 청년(19~40세)

		기혼	미혼	계
	취업	5	13	18
	미취업	1	7	8
	계	6	20	26
취업 여부	계층 구분	결혼 여부		
		기혼	미혼	계
취업	빈곤	-	6	6
	비빈곤	5	7	12
	소계	5	13	18
미취업	빈곤	-	3	3
	비빈곤	1	4	5
	소계	1	7	8
	계	6	20	26

〈표 3-12〉 질적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과 규모: 장년(41~60세)

	기혼	미혼	계
취업	6	1	7
미취업	4	3	7
계	10	4	14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는 40명이며 1차 면담 참여자가 12명, 2차 면담 참여자가 28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동의하며 연구 주제와 관련한 경험이 많고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특성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연구 참여자 특성

사례	연령	성별	주관적 소득계층	수급 여부	취업 형태	결혼 여부/가족 형태
1	35	남			대학원생	미혼/1인 가구
2	36	여			취업(정규직)	미혼
3	40	여			취업(정규직)	미혼/3인 가구
4	24	여	중간층		학생(아르바이트)	미혼/4인 가구
5	34	남	중하층		취업(정규직)	기혼/부부 가족
6	38	여	중하층		취업(정규직)	미혼/1인 가구
7	40	여	중하층		주부(알바)	기혼/3인 가구
8	49	남	중하층		개인 사업자	기혼/3인 가구
9	34	여			취업(정규직)	미혼/4인 가구
10	29	남	중하층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미혼/1인 가구
11	22	남	중하층		학생(알바)	미혼/한부모가족
12	28	여	중상층		대학원생	미혼/4인 가구
13	37	남	중간층		취업(정규직)	기혼/3인 가구
14	55	여	빈곤층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기혼/한부모가족
15	59	여	빈곤층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기혼/한부모가족
16	53	여	하층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기혼/4인 가구
17	23	여	중하층/하층	가족 수급	취업(정규직)	미혼/4인 가구
18	20	여	빈곤층		무업	미혼/한부모가족
19	27	여	하층		알바	미혼/한부모가족
20	48	여	중하층	수급		기혼/한부모가족
21	57	남	빈곤층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미혼/한부모가족
22	43	여			프리랜서	미혼/4인 가구
23	50	여	중간층		미취업	기혼/4인 가구
24	43	여	중하층		취업(정규직)	기혼/4인 가구
25	25	여	중간층		취업(정규직)	기혼/4인 가구
26	45	여	중하층	차상위	자활근로	기혼/한부모가족
27	30	여	중간층		취업(계약직)	미혼/7인 가구
28	30	여	중간층		취업(계약직)	미혼/3인 가구
29	27	남	중간층		휴학(취업 준비)	미혼/4인 가구
30	31	남	중간층		취업(계약직)	미혼/4인 가구
31	34	여	중간층		대학원생	미혼/3인 가구
32	59	남	하층	수급	미취업	미혼/3인 가구
33	33	여	중간층		취업(정규직)	기혼/3인 가구
34	37	여	중하층		미취업	기혼/4인 가구
35	57	남	하층	수급		기혼/한부모가족
36	30	남	하층		알바	미혼/1인 가구
37	27	남	중하층/하층		취업(정규직)	미혼/4인 가구
38	41	여			알바	기혼/4인 가구
39	33	남		조건부 수급	취업 준비	미혼/1인 가구
40	81	여		수급		미혼/1인 가구

주: 1) 사례 17, 37은 자신과 가족의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말함.

2) 사례 38~40은 1차 예비 조사 대상자이고 사례 1~9는 2차 예비 조사 대상자임.

면접 조사는 예비 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예비 조사용 면접 가이드를 작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12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한 후 연구진 회의를 거쳐 면접 조사 가이드를 수정 보완하고 본조사, 즉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 조사를 위한 면담 가이드는 불안, 우울, 분노, 신뢰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가되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는 것을 인터뷰 후반으로 배치하였다. 이로써 불안의 경험과 불안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점은 과거와 현재 경험과 미래 전망을 포괄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비 조사용 가이드 구성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3-14〉 예비 조사 인터뷰 가이드

인터뷰 상황 점검	관계 형성
전반적 심리적 경험	감정 카드 내용 활용
심리적 상황 정의	불안 경험 연관이 활용
불안 경험	불안의 내용과 원인, 불안의 영향과 대처, 개인차
사회생활 여건	주거 상황, 취업 경험, 경제 상황, 노후 준비
사회적 인식	불신의 내용, 사회적 지위, 세대 갈등, 안전사고
사회적 지지와 고립	가족 경험과 정서, 사회관계의 특징
사회불안 수준	최인철, 김범준(2005) 연구의 단축형 검사, 단일 문항 검사
사회불안에 대한 의견	사회불안의 원인, 완화 방법

본 조사용 면접 조사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표 3-15〉와 같다. 면접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감정 형용사 워크시트와 불안과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생 그래프 워크시트를 작성하면서 생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어떠한지 주요한 불안 경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파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불안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 사항을 파악하였다.

〈표 3-15〉 면접 조사 가이드

항목	내용
자기소개	가족관계와 취업 경험 중심으로
현재 심리적 상황	*25개 감정 형용사 활용
불안 경험	*불안 인생 그래프, 불안에 대한 해석, 지위 불안
불안 대응과 사회관계망	불안 대응, 가족관계, 사회관계, 공적 지원, 사회활동
한국 사회불안 설문조사	*최인철, 김범준(2005) 연구의 단축형 검사 7점 척도 12문항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	한국이 싫다고 느껴질 때
생활 만족도	*생활 만족 인생 그래프, 행복 경험
5년 뒤 미래 전망	5년 뒤 미래 계획과 그에 대한 기대
마무리	연구 주제 관련 하고 싶은 이야기

주: 감정 형용사, 불안과 생활 만족도 인생 그래프, 설문조사 항목에서 자기 기입식 워크시트 사용

연구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내외 반구조화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명의 연구자가 면접 조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알리고 녹음과 녹취 자료 사용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 사례비 지출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았다. 면접 조사는 참여자를 소개한 공공기관의 상담실이나 참여자가 원하는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녹취 자료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초 분석을 통해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연구의 윤리성과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본 연구의 참여가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서면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예상 시간, 절차,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Creswell, 2013). 여기서 참여자의 권리로는 인터뷰 도중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인터뷰 도중 인터뷰를 중지할 수도 있음 등을 안내하였다(Creswell, 2013). 다음으로, 익명성의 원칙에 따라 참여자의 개인적 정보인 나이, 지역, 이름, 직장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Giordano, O'Reilly, Taylor, & Dogra, 2007). 예를 들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자 이름 대신 사례 1, 2 등으로 표현하였고, 기타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조정(modification)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당시 본 인터뷰 내용이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다(Spradley, 1980).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이란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을 뜻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와 실제 세계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질적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고정된 진실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Maxwell, 2009, pp. 129-132). 이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를 하였다. 첫째, 풍부하고 상세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비 조사 단계에서 면접 조사 가이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위하여 2차 예비 조사에서는 연구 주제에 관심이 있으며 연구 협력이 가능한 참여자를 포함하였다. 둘째, 삼각검증은 다양한 원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표리부동과 연구자의 편견을 걸러 내는 장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천 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본조사용 면접 조사 가이드에 면담, 설문지, 워크시트 작성 등의 요소를 고루 배치하여 한 가지 유형의 자기 보고로 인해 발생하는 참여자의 편중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다. 셋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접 조사가 참여자의 경험적 맥락 안에서 그들의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연구자는 자신의 선

입견이나 가정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5명의 연구자가 면접 조사에 참여하고 녹취 자료를 공유하며 분석 결과에 대한 동료 검증을 실시하여 그러한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다.

제 4 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 사회적 불안의 변화와 시사점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사회적 불안 연관어 분석 결과

제3절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4

사회적 불안에 대한 <<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 사회적 불안의 변화와 시사점

제1절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 개요와 검색어 설정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적 분석의 보완적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질적 분석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현재 불안 경험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그러나 회고에 의한 자료 수집이 불안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빅데이터로 사회적 불안의 변화와 현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질적 분석에서 불안의 경험과 연관된 사건이나 요인들을 분석하지만 온라인 빅데이터를 통하여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연관어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빅데이터는 질적 분석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면서 질적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은 온라인의 주요 정보원을 대상으로 불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연관어의 개념도를 구성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분석을 하였다. 대부분 기술 분석과 관계 분석으로 결과를 얻었다.

연관어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연관어 분석은 사회적 불안과 연관하여 자주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개념들을 파악,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불안과 관련된 단어의 빈도(Term-Frequency)를 파악한 후 주요 연관어를 중심으로 연관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하자면 사회적 불안이라는 개념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관어를 추출하기 위한 검색어를 설정하여야 한다.

언급한 많은 연구들에서 불안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된 바 있다. 선행연구(조권중, 2014; EBS 감정 시대 제작팀, 2017; 김태형, 2010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적 불안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유사 개념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개념들은 불안을 대체하거나 불안이 언급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로 불안을 검색하는 데 주요한 매개어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아래의 개념 중 관련 감정은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 의견에서 불안이나 사회적 불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첨예화되면 통상 개인의 내면 또는 외부에 공격적이 되는 등 부정적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이 언급된 것을 고려하여 중요한 관련 감정을 선별하였다.

〈표 4-1〉 사회적 불안을 대체하였던 관련 감정과 연관 개념

관련 감정	분노	분개하여 크게 화를 냄
	불신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함
	좌절감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감을 잃은 마음
	무력감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고립감	남과 사귀지 않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홀로 된 느낌
	우울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
	부담감	짐스러워서 편하지 않은 느낌
	모멸감	업신여김과 깔봄을 당하여 느끼는 수치스러운 느낌
	혐오	싫어하고 미워함
	공포	두렵고 무서움
연관 개념	경쟁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툼
	불확실성	극심한 변화로 인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
	개인주의	개인의 의의와 존재에 더 큰 가치 부여
	급변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갑자기 달라짐

자료: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에서 2019. 6. 5. 인출.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인 질적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경험을 초점으로 한다. 사람들의 정서에서 시작하여 경험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온라인상의 개념들 중 관련 정서를 매개로 연관어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상기 개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수행하여 사회적 불안을 검색하는 주요 주제어를 설정하였다. 검색어 선정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관련 주제어를 여러 번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최종 주제어를 선정하는 방식을 전제로 우선 개인적 차원의 분노와 우울, 불안을 모두 적용하여 실험적 분석을 한 후 사회와 불안을 공히 검색어로 입력하여 실험적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후 검색된 다양한 결과를 기초로 안정적인 결과라 판단된 사회와 불안,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불안과 함께 주 검색어로 선정한 것이다.

온라인 빅데이터상 사회적 불안 대체어 성격의 검색어를 찾기 위하여 워드임베딩의 결과도 확인하였다. 워드임베딩은 특정 검색어를 중심으로 단어의 밀집을 나타내는 방법의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개념들은 수집된 데이터에서 ‘불안’, ‘사회’, ‘스트레스’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 목록으로 이해하면 적절하다. 이 결과를 보면 앞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불안과 함께 언급된 주요 개념들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불안 관련 개념들의 워드임베딩 분석 결과(2007년, 2015년, 2018년)

순위	불안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불안	불안	사회	불안	스트레스
1	불안감	행동	정치	신체	불안
2	공포	감정	문화	스트레스	긴장
3	혼란	건강	구조	인하	신체
4	분노	의식	심리	치료	기능
5	긴장	반응	환경	증상	치료
6	갈등	우울	국가	우울증	뇌
7	불안정	공포	변화	정서	활동
8	불편	환경	정서	심리	인하
9	걱정	갈등	개인	기능	세포
10	우울	부족	요인	사회	해소
11	불만	인지	제도	정신	변화
12	극심	긴장	갈등	변화	신경
13	공황	스트레스	복지	긴장	자극
14	두려움	심각	전반	호르몬	근육
15	불확실성	강하	발전	뇌	안정
16	우려	적응	신체	질병	호르몬
17	불안도	자연	경제	우울	피부
18	어려움	성격	정신	행동	우울
19	심각	정신	현대	활동	정서
20	긴장감	인식	문제	초조	피로
21	여전히	조절	안정	요인	질병
22	여전	분노	정책	만성	다양
23	시달리	질병	체계	근육	초조
24	극도	욕구	체계	심장	혈관
25	위축	불안감	종교	신경	통증
26	흔들리	미치	개혁	관계	증상
27	반응	과도	차원	저하	혈액
28	심리	혼란	가치	감정	감정
29	불신	감각	대인	해소	행동
30	초조	충동	도덕	세포	작용
31	과도	적절	발달	부정	저하
32	공포감	통제	합리	원인	우울증
33	패닉	대인	조직	환경	심장
34	복잡	두려움	성장	자극	촉진
35	피로감	생활	위기	혈관	요인
36	양상	감	활성	안정	면역
37	증세	상태	노동	유체	환경
38	우울증	심하	양극	통증	소화
39	악화	자극	고령	면역	화
40	계속	회피	근본	긍정	심리
41	헐떡이	경험	사고	지속	지속
42	얼어붙	상실	부정	심장병	유체
43	정서	형성	교육	약물	상태
44	등요	혹은	질서	작용	완화
45	상태	증상	중심	피로	분비
46	현상	소외	화	정상	부정
47	접차	타인	활동	공포	만성
48	무기력감	원인	집단	생활	관계
49	팽배	의존	현상	물질	회복
50	곤란	부정	요소	두통	예방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2. 분석의 범위와 변화 비교

분석 자료 추출은 온라인 뉴스, 카페, 블로그를 정보 원천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뉴스는 언론사를 고르게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뉴스와 달리 블로그와 카페는 국민의 개인적 관리하의 온라인이어서 상대적으로 이용자 개인의 경험과 반응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뉴스 기사의 경우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의 뉴스 탭을, 블로그는 다음(www.daum.net)의 블로그 탭을, 카페는 다음(www.daum.net)의 카페 탭을 정보원으로 하였다.

분석 기준 시점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세 개 시점을 선택하였다. 불안 경험과 사회적 불안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비교 시점을 선택한 것으로 2007년, 2015년과 2018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연도별 특성과 연도 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점 선택에서 고려된 요소는 “첫째, 경제 불황 이전 시기를 포함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전환이라 판단되는 급변 시기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현 정부 출범 전후를 가능한 선에서 고려한다. 넷째, 정보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는 시점으로 한다”이다. 이러한 고려에서 세 개 시점은 첫째, 노무현 정부 이후 2008~2009년 경제 불황 전을 대표하는 2007년, 둘째, 빈곤 불평등 심화 전 시점인 2015년, 셋째,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이다.

불안과 관련하여 수집된 데이터 건수는 2007년이 약 38만 건, 2015년은 약 255만 건, 2018년은 약 496만 건으로, 총 789만 건이었다. 2007년 자료는 2018년과 대비하여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2007년 이후에는 분석이 가능한 충분한 양의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4-3〉 분석 대상 정보원과 시기별 정보 규모의 변화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다음 블로그	다음 카페
2002	21,378	2,650	1,830	698,000
2003	36,854	8,020	5,460	664,000
2004	59,496	15,100	115,000	604,000
2005	53,535	19,800	184,000	514,000
2006	68,090	28,500	211,000	519,000
2007	87,237	33,000	264,000	524,000
2008	215,716	62,600	327,000	606,000
2009	139,208	53,100	336,000	642,000
2010	118,137	67,000	340,000	576,000
2011	255,539	130,000	351,000	525,000
2012	214,023	121,000	386,000	505,000
2013	225,817	133,000	475,000	434,000
2014	224,815	162,000	556,000	387,000
2015	285,336	223,000	691,000	350,000
2016	277,648	230,000	789,000	329,000
2017	507,777	223,000	822,000	307,000
2018	377,376	232,000	970,000	290,000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3. 분석 결과의 제시와 한계

이하 연관어로 언급된 빈도를 기준으로 한 연관어 분석, 그리고 불안 요소들 간의 관계를 시사하는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연관어 분석과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은 모두 각 분석 연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변화를 함께 기술하였다. 한편 연관어와 연관어 네트워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와 블로그·카페를 구분하여 소개, 설명하고 있다.

이하 소목차의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뉴스 기사 본문 및 댓글, 블로그·카페의 출현 단어 빈도 기준 분석을 하는 연관어 분석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변화를 정리하였다.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도 2007년부터 3개 연도별로 보여 주고 변화를 정리하였다.

〈참고〉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제시의 순서

□ 연관어 분석 결과

- 2007년(뉴스, 블로그·카페) 연관어 분석 결과
- 2015년(뉴스, 블로그·카페) 연관어 분석 결과
- 2018년(뉴스, 블로그·카페) 연관어 분석 결과
- (뉴스, 블로그·카페) 연관어 변화 분석 결과

□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 2007년(뉴스, 블로그·카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 2015년(뉴스, 블로그·카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 2018년(뉴스, 블로그·카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 (뉴스, 블로그·카페) 연관어 네트워크 변화 분석 결과

온라인 빅데이터는 매우 방대한 정보를 기초로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반응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상대적 강점을 가진다. 반면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은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 방법으로 선택한 질적 분석의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계 중 첫 번째는 주요 연관어 분석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면서도 투입하는 주요 개념이 사전적으로 설정되므로 연관어 검색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색하는 범위에서 연관어를 추출하는 것도 검색 엔진의 주제어들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어 연관어가 개방적으로 검색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결과 사회적 불안의 요소를 발견하는 데 있어 새로운 탐색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연관어 변화, 연관어를 매개로 고려하는 단서 등을 발견하는 데서 중요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사회적 불안 연관어 분석 결과

뉴스와 블로그·카페의 불안,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연관어를 순위별로 검토하였다. 높은 순위의 연관어가 불안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 것으로 사회적 불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사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관어 분석에서 뉴스와 블로그·카페는 구분하였다. 이유는 뉴스의 경우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지만 한편 주도적으로 이슈를 발굴하여 기사화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뉴스는 댓글도 연관어 검색에서 포괄하고 있지만 이미 언론사의 기사로부터 댓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뉴스와 사회 구성원 개인들의 온라인 활동인 블로그·카페를 구분하여 연관어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검색 원천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1. 2007년 연관어 분석 결과

2007년 불안 연관어를 불안과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로 구분하여 보자면 뉴스의 경우 연관어가 주로 경제, 시장, 금융 그리고 정부로 구성된다. 주택, 유가도 주요 연관어로 나타났다. 불안+사회 연관어는 경제 중심의 단어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불안의 연관어와 유사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교육 등은 중간 즈음에 위치하여 불안 연관어와 비교하여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스트레스에서는 주로 건강, 교육 등이 주요 연관어로 상위에 위치한다. 영어도 중요한 연관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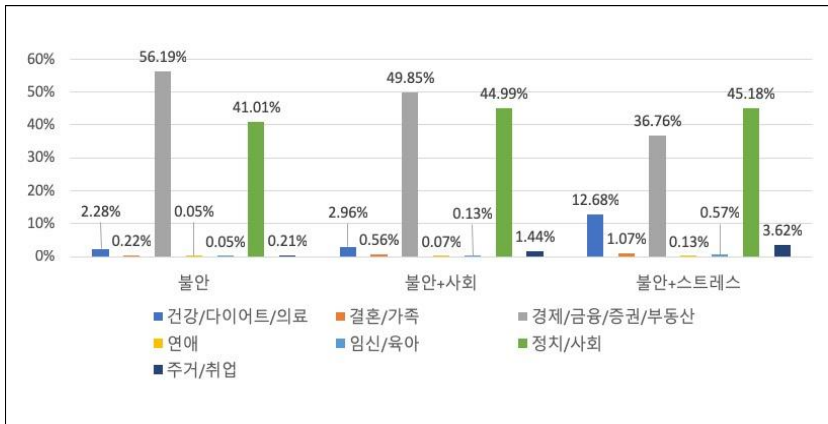
〈표 4-4〉 2007년 뉴스의 주요 연관어 분석 결과

순위	불안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시장	37,992	경제	6,210	스트레스	818
2	금리	28,530	정부	3,408	뇌	334
3	경제	20,485	대통령	3,313	직장인	287
4	증시	18,219	정책	2,848	증상	259
5	금융	15,376	기업	2,758	교육	240
6	투자	13,128	비정규직	2,229	수술	232
7	펀드	12,852	시장	2,139	여성	225
8	은행	10,549	교육	1,847	영어	218
9	주택	10,121	대선	1,814	시장	206
10	기업	9,639	한나라당	1,681	장애	201
11	대통령	9,388	정치	1,615	금융	198
12	정부	8,781	주택	1,605	공부	198
13	대선	8,473	금융	1,602	질환	192
14	한나라당	7,743	투자	1,562	성장	184
15	유가	7,665	북한	1,274	우울증	179
16	대출	7,451	부동산	1,171	건강	177
17	주식	7,436	대학	1,145	환자	175
18	물가	7,430	국가	1,135	대학	169
19	채권	7,024	위기	1,082	아이들	164
20	환율	6,877	성장	1,079	남성	163
21	정책	6,792	여성	1,004	학생	162
22	수출	5,748	노동	947	운동	154
23	자금	5,447	공약	939	비정규직	153
24	부동산	5,047	일자리	922	성형	153
25	주가	4,874	복지	901	시험	152
26	출마	4,113	외환	819	할머니	151
27	신용	4,012	지지	813	피로	144
28	지지	3,739	선거	810	취업	140
29	성장	3,576	고용	808	자살	131
30	비정규직	3,534	학생	781	가족	130
31	유동성	3,431	사건	768	수험	119
32	정치	3,368	남북	765	학원	115
33	검찰	3,218	정권	726	과외	115
34	북한	3,193	펀드	705	감정	110
35	위기	2,925	노조	675	직업	110
36	아파트	2,900	보수	672	피랍	106
37	교육	2,816	언론	656	업무	103
38	공급	2,756	변호사	643	수능	102
39	외환	2,750	규제	618	부모	99
40	수사	2,660	중소기업	574	수면	99
41	증권	2,654	핵	571	정부	98
42	자산	2,506	은행	567	정신	98
43	석유	2,456	제도	552	음악	94
44	투자자	2,451	소득	547	담배	92
45	정권	2,434	근로자	547	직장	87
46	대학	2,376	가족	527	의사	85
47	국고	2,294	노사	507	연예인	79
48	규제	2,275	학교	503	투자	78
49	소비	2,268	영어	483	구직	77
50	회사	2,247	회사	481	조급증	77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불안과 연관된 주제의 순위를 보아도 뉴스에서는 경제/금융, 정치/사회가 주요한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불안,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에서 유사하였다. 상이점은 불안+스트레스에서는 다른 검색어와 비교하여 건강 주제에서 연관 기사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림 4-1] 불안 키워드의 2007년 뉴스 기사 주제 분석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블로그와 카페를 중심으로 한 연관어 분석 결과에서는 불안 연관어로 주택, 부동산, 투자, 교육과 건강이 주요 위치를 점하였고,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연관어도 유사하였다. 카페와 블로그의 연관어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주요 연관어는 앞서 살펴본 뉴스의 연관어 순위와는 상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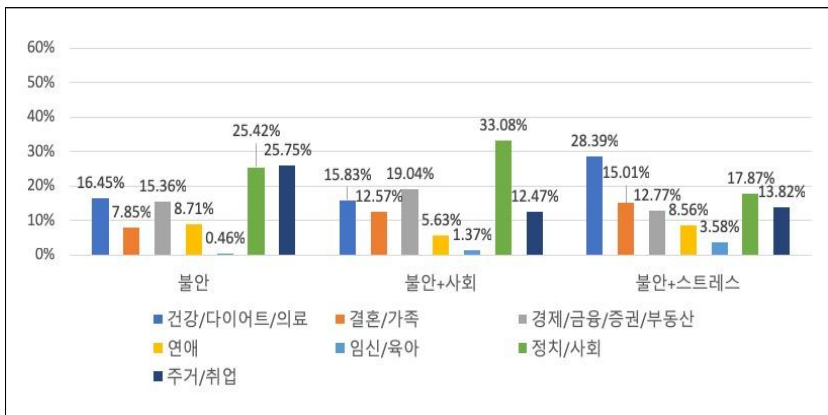
〈표 4-5〉 2007년 블로그와 카페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순위	불안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투자	26,798	부모	13,782	운동	13,597
2	운동	25,015	장애	9,657	스트레스	11,991
3	공부	24,123	교육	9,302	증상	10,666
4	시장	24,119	아동	9,036	질환	10,105
5	남자	23,619	투자	8,839	부모	9,950
6	주택	21,424	우울증	8,496	공부	9,939
7	부모	20,001	질환	7,953	음식	9,126
8	부동산	19,908	공부	7,714	예방	8,965
9	질환	19,595	돈	7,571	우울증	8,858
10	증상	18,240	가족	7,539	웃음	8,336
11	음식	17,048	여성	7,354	장애	7,908
12	아파트	15,513	환자	7,213	잠	6,962
13	환자	15,215	증상	7,185	암	6,843
14	술	14,803	남자	7,058	위험	6,408
15	돈	14,561	주택	6,543	환자	6,106
16	장애	13,274	부동산	6,413	아동	4,932
17	아이들	12,033	시장	5,848	남자	4,778
18	스트레스	11,996	위험	5,737	건강	4,669
19	여성	11,891	경제	5,578	가족	4,336
20	암	11,786	영어	5,560	영어	3,924
21	잠	11,745	운동	5,132	뇌	3,755
22	주식	11,724	위	5,078	아이들	3,488
23	교육	11,658	아이들	4,896	학원	3,473
24	웃음	11,564	복지	4,868	식욕	3,448
25	예방	11,382	예방	4,830	통증	3,441
26	건강	11,151	자녀	4,663	여성	3,422
27	우울증	10,739	정신	4,619	술	3,140
28	경제	10,664	아파트	4,591	음악	3,125
29	펀드	10,508	상당	4,569	놀이	3,119
30	영어	10,448	회사	4,520	정신	3,077
31	토지	10,289	기업	4,412	심장병	3,062
32	아동	10,163	놀이	4,373	걱정	3,052
33	아기	9,420	학생	4,313	고혈압	3,000
34	결혼	9,240	결혼	4,158	임신	2,945
35	가족	9,134	스트레스	4,155	심장	2,919
36	시험	9,007	노인	4,150	피로	2,773
37	대통령	8,872	대통령	4,064	신경	2,768
38	회사	8,818	학교	4,042	자녀	2,663
39	위	8,791	성격	3,662	아기	2,646
40	금리	8,534	정책	3,577	성인	2,595
41	수술	8,462	정부	3,556	수면	2,567
42	음악	8,109	학원	3,538	성격	2,454
43	기업	8,050	음악	3,493	상당	2,443
44	학교	8,000	학습	3,491	자외선	2,352
45	간	7,928	부자	3,307	항암	2,346
46	위험	7,483	남성	3,295	명상	2,314
47	성격	7,416	암	3,290	교육	2,298
48	학원	7,391	기술	3,129	중후군	2,279
49	은행	7,341	자아	3,098	담배	2,258
50	병	7,203	국가	3,095	유머	2,199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불안과 관련해 2007년 블로그와 카페를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주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검색어에 따라 주제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불안’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 주제가 가장 높은 비율의 분포를 보였고, ‘불안+사회’ 검색어로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 주제가 가장 높은 비율의 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불안+스트레스’ 검색어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건강/다이어트/의료 주제가 가장 높은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그림 4-2] 불안 키워드의 2007년 블로그와 카페의 주제 분석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2. 2015년 연관어 분석

2015년 연관어 분석에서는 메르스가 연관어 검색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당해 연도에 메르스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므로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메르스가 다른 연관어의 위치나 연관어 관계를 심각하게 변화시켜 메르스가 없는 일상적 상황의 불안과 연관된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메르스를 제거하고 연관어를 분석하였다.

불안 관련 연관어 중 시장, 경제 관련 단어가 중요한 연관어였으며 북한, 대통령, 주택도 주요 연관어였다. 고용과 관련된 연관어는 불안+스트레스에서는 낮은 빈도의 연관어였다. 그러나 불안, 그리고 불안+사회와는 높은 수준의 연관성을 보였다. 불안+사회 연관어는 불안 연관어와 유사하지만 청년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빈도를 갖는 주요 연관어로 포함되었다. 불안+스트레스에서는 불안, 그리고 불안+사회 연관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건강 관련 단어가 빈도가 높은 연관어였다. 메르스를 포함할 경우 병원, 환자, 격리와 같은 주제가 불안, 불안+사회와 높은 수준의 빈도로 연관되는 주제였다. 기타 연관어 구성은 메르스를 제거한 연관어 순위와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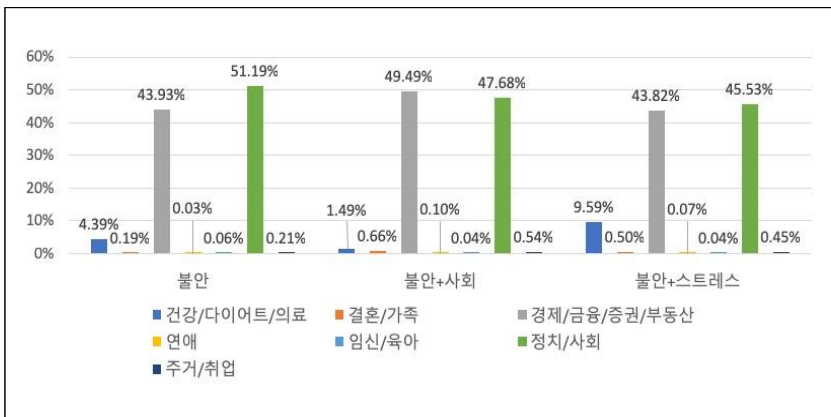
〈표 4-6〉 2015년 뉴스 기사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메르스 제외)

순위	불안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시장	96,437	경제	22,279	장애	14,608
2	금리	95,644	청년	14,090	스트레스	14,456
3	경제	95,540	노동	13,609	증상	9,882
4	금융	57,544	정부	11,379	불안	4,459
5	증시	49,164	북한	11,334	피의자	4,312
6	북한	45,170	기업	9,440	중후군	3,954
7	기업	43,433	대통령	9,110	수면	3,848
8	투자	40,294	장애	8,605	환자	3,696
9	정부	37,001	정치	8,577	임신	3,586
10	주택	35,755	주택	8,499	질환	3,210
11	대통령	35,380	연금	8,386	여성	2,957
12	안전	28,371	고용	8,028	음식	2,870
13	장애	24,243	교육	7,343	건강	2,779
14	대출	23,272	시장	7,338	화병	2,700
15	수출	23,144	안전	7,269	우울증	2,555
16	테러	22,133	금융	7,223	식사	2,254
17	노동	21,549	여성	7,073	금융	2,231
18	정책	20,838	소득	7,049	명절	2,012
19	유가	19,521	일자리	6,530	강박	2,006
20	사고	19,497	비정규직	5,721	아동	1,862
21	정치	19,443	취업	5,694	폭행	1,831
22	고용	19,268	학생	5,646	학생	1,829
23	청년	19,123	테러	5,634	뇌	1,813
24	여성	18,814	정책	5,223	분노	1,686
25	펀드	18,305	복지	5,183	공황	1,671
26	아파트	18,286	임금	4,869	야식	1,636
27	증상	18,265	부모	4,438	운동	1,604
28	환율	17,679	학교	4,330	금리	1,604
29	주식	17,587	불안	4,283	유산	1,604
30	은행	17,544	국가	4,252	통증	1,592
31	연금	16,589	환자	4,220	부모	1,558
32	소득	15,927	피의자	4,215	대출	1,552
33	환자	15,036	근로자	4,050	금연	1,545
34	위	14,531	투자	4,007	공부	1,531
35	스트레스	14,474	원전	3,851	기업	1,530
36	임대	14,434	교사	3,850	상담	1,529
37	위기	14,400	어린이집	3,842	시장	1,527
38	학생	14,062	대학	3,834	취업	1,473
39	어린이집	13,905	증상	3,810	아이들	1,406
40	원전	13,438	해고	3,772	탈모	1,400
41	전세	13,414	사회자	3,676	잠	1,389
42	학교	13,163	국회	3,651	경제	1,387
43	코스닥	12,630	범죄	3,576	학교	1,385
44	주가	12,580	난민	3,535	교사	1,382
45	교육	12,564	노인	3,528	집중력	1,381
46	국회	12,427	아동	3,522	진단	1,354
47	자금	12,032	공무원	3,392	병원	1,334
48	성장	11,947	정당	3,378	지역	1,304
49	국가	11,767	세월호	3,298	어린이집	1,302
50	새누리당	11,671	금리	3,258	중독	1,301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검색어와 관련된 주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과 ‘불안+스트레스’를 검색어로 한 경우 정치/사회가 가장 높은 연관어 주제로 나타났고, 경제/금융/증권/부동산, 건강/다이어트/의료가 그 뒤를 이었다. ‘불안+스트레스’ 검색어로 한 경우, ‘불안’, ‘불안+사회’ 검색어로 분석했을 때보다 건강/다이어트/의료 주제의 연관 비율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3] 불안 키워드의 2015년 뉴스 기사 주제 분석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불안 관련 블로그·카페의 연관어는 주로 건강과 관련된 개념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10위권 내에는 북한 외 모두 건강 관련 연관어이다. 불안+사회 연관어는 가족, 건강과 정신건강, 교육, 그리고 북한과 경제 관련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스트레스 연관어는 10위권 내가 모두 건강 연관어였다. 블로그·카페의 불안 관련 연관어가 극히 증가하였던 시기인 4월 말에는 불안장애 극복 방법에 대한 댓글이 71개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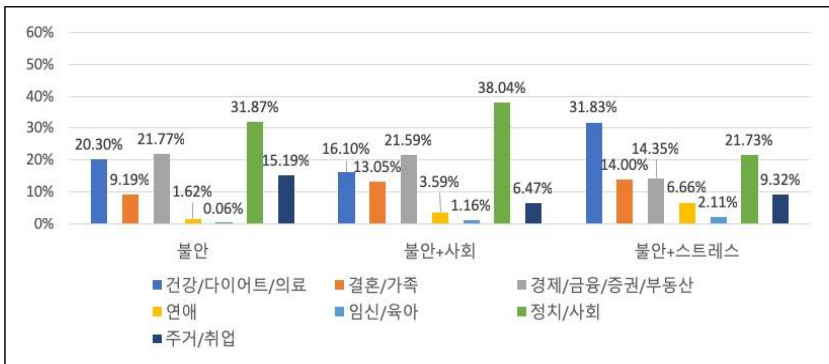
〈표 4-7〉 2015년 블로그·카페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메르스 제외)

순위	불안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압	35,954	장애	9,317	압	28,832
2	잡	26,040	교육	6,288	잡	23,791
3	증상	18,712	꿈	6,225	수면	13,521
4	환자	17,440	부모	6,048	스트레스	11,497
5	시장	16,175	복합	5,846	증상	10,099
6	수면	15,567	경계	5,826	건강	9,413
7	장애	15,521	삶	5,792	장애	9,024
8	운동	14,290	상당	5,563	환자	8,805
9	건강	14,074	증상	5,203	운동	8,289
10	복합	13,442	환자	4,775	불면증	6,655
11	주택	13,366	불안	4,466	질환	6,586
12	혈압	12,936	노인	4,099	예방	6,478
13	경제	12,691	가족	3,974	몸	6,159
14	금리	12,610	국가	3,859	통증	6,072
15	수술	12,396	토지	3,850	항암제	5,808
16	삶	12,012	매입	3,761	수술	5,282
17	상당	11,900	대통령	3,732	의사	5,175
18	투자	11,889	주택	3,717	뇌	4,814
19	몸	11,752	정부	3,691	병원	4,739
20	부모	11,689	복지	3,626	불안	4,476
21	공부	11,674	통일	3,525	음식	4,182
22	교육	11,589	여성	3,438	상당	4,073
23	스트레스	11,498	스트레스	3,387	남성	3,823
24	커피	11,375	돈	3,347	명상	3,523
25	학생	11,073	아동	3,344	요법	3,431
26	요가	11,067	자녀	3,340	심장	3,292
27	부동산	11,047	운동	3,291	우울증	3,178
28	남자	10,957	투자	3,284	공부	3,172
29	죄	10,830	남자	3,268	콜레스테롤	2,800
30	약	10,819	공부	3,267	부모	2,758
31	법	10,779	청소년	3,259	위	2,716
32	질환	10,770	아이들	3,176	심리	2,701
33	음식	10,719	감정	3,146	감정	2,675
34	꿈	10,587	기업	3,098	항암	2,624
35	통증	10,491	건강	3,084	약	2,504
36	수업	10,305	시장	3,083	갱년기	2,416
37	예방	9,689	발달	3,082	신경	2,377
38	불안	9,670	정치	2,992	당뇨	2,329
39	여성	9,079	죄	2,861	여성	2,307
40	병원	8,912	종교	2,849	숙면	2,265
41	돈	8,891	학교	2,747	고혈압	2,202
42	복용	8,883	학생	2,633	피로	2,170
43	의사	8,758	부동산	2,575	가족	2,148
44	고혈압	8,388	통증	2,491	혈압	2,087
45	아이들	8,267	우울증	2,460	손상	2,083
46	대통령	8,094	심리	2,412	공황	2,028
47	선생님	8,057	암	2,393	암세포	1,972
48	병	7,915	전쟁	2,331	노인	1,952
49	불면증	7,620	자아	2,323	장수	1,935
50	음악	7,563	명상	2,304	자녀	1,924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연관어를 출현 빈도 주제 중심으로 보자면 ‘불안’ 검색어로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불안+사회’ 검색어로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 주제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불안+스트레스’ 검색어로 분석한 결과 건강/다이어트/의료 주제가 가장 높은 비율의 연관어 분포를 보였다.

[그림 4-4] 불안 키워드의 2015년 블로그와 카페의 주제 분석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3. 2018년 연관어 분석 결과

뉴스 기사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한 불안 연관어를 보면 2018년 경제, 금리와 대통령, 정부가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연관어도 유사하다. 그러나 불안과 비교하여 이 두 검색어에서는 노후소득, 여성, 정신건강 연관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 블로그와 카페의 연관어 빈도 분석에서는 불안 연관어로 투자, 건강, 정부, 대통령이, 불안+사회 연관어에서는 건강과 더불어 가족과 북한 그리고 대통령이, 불안+스트레스 연관어로는 건강, 노인 연관어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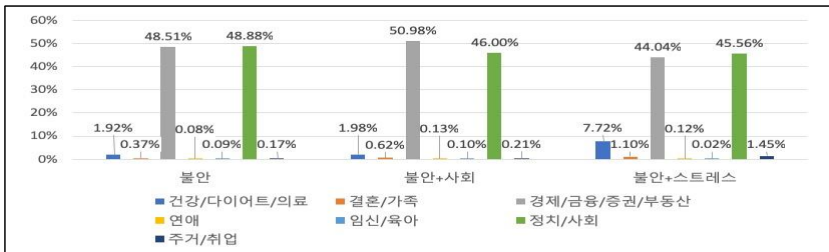
〈표 4-8〉 2018년 뉴스 기사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순위	불안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금리	87,611	정부	23,076	스트레스	4,761
2	시장	86,426	경제	21,110	환자	4,328
3	대통령	74,148	여성	19,103	장애	4,170
4	경제	68,950	대통령	16,317	증상	3,679
5	주가	65,751	정책	15,348	질환	2,945
6	정부	62,601	난민	14,467	우울증	2,225
7	북한	54,337	북한	13,119	수면	2,195
8	금융	52,315	소득	12,482	금융	2,034
9	정책	40,982	일자리	11,143	여성	2,016
10	투자	39,042	국민연금	8,941	건강	1,991
11	주택	38,246	기업	8,698	상담	1,966
12	기업	34,954	고용	8,685	자살	1,886
13	무역	34,491	교육	8,553	정신건강	1,861
14	안전	33,609	최저임금	8,479	정신	1,669
15	증시	33,256	청년	8,160	금리	1,540
16	여성	29,697	주택	8,042	부모	1,509
17	사고	25,892	연금	7,955	배우자	1,507
18	아파트	25,515	성장	7,773	시장	1,493
19	유치원	24,898	안전	7,689	아이들	1,402
20	고용	24,790	시장	7,166	학생	1,382
21	경찰	24,763	환자	6,827	청소년	1,372
22	수출	24,085	경찰	6,344	학교	1,359
23	부동산	23,493	범죄	6,086	돈	1,359
24	난민	22,948	피해자	5,993	암	1,319
25	일자리	21,817	노동	5,983	연애	1,206
26	화재	21,340	유치원	5,912	공황	1,189
27	환자	21,019	사건	5,702	중후군	1,182
28	소득	20,764	학생	5,428	병원	1,173
29	대책	19,851	학교	5,181	아동	1,165
30	최저임금	19,567	정치	5,084	업무	1,154
31	펀드	18,762	투자	5,065	교육	1,142
32	대출	18,320	시민	5,047	기혼	1,131
33	남북	18,110	부동산	5,002	청년	1,125
34	정상회담	17,090	국회	4,798	뇌	1,104
35	지진	16,701	선거	4,633	피해자	1,085
36	비핵화	16,533	국가	4,581	색상	1,074
37	선거	16,503	장애	4,540	심리	1,067
38	교육	16,475	금융	4,525	운동	1,056
39	성장	16,185	제도	4,363	미혼	1,053
40	주식	16,046	남북	4,283	자해	1,033
41	환율	15,973	규제	4,120	회사	991
42	물가	15,928	아동	4,101	잠	991
43	라돈	15,623	남성	4,088	불면증	955
44	공급	15,497	청와대	3,990	명상	951
45	국민연금	15,284	한국당	3,923	게임	933
46	학교	15,244	성폭력	3,875	가족	903
47	한국당	14,965	보험료	3,713	감정	882
48	규제	14,741	노인	3,665	남성	881
49	학생	14,563	대책	3,635	교사	869
50	연금	14,218	사고	3,630	우울	841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뉴스 기사의 연관어를 주제를 중심으로 보자면 불안과 관련된 2018년 뉴스 기사 본문을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주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과 ‘불안+스트레스’를 검색어로 한 분석에서 정치/사회가 가장 높은 수준의 연관어 분포를 보였고, 경제/금융/증권/부동산, 건강/다이어트/의료 주제가 그 뒤를 이었다. ‘불안+스트레스’ 검색어의 경우, ‘불안’, ‘불안+사회’ 검색어로 분석했을 때보다 건강/다이어트/의료 주제의 분포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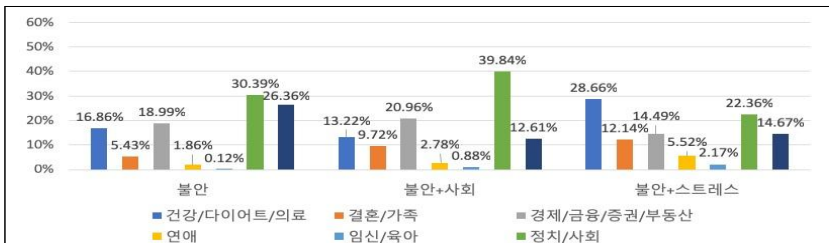
[그림 4-5] 불안 키워드의 2018년 뉴스 기사 주제 분석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블로그·카페의 출현 빈도 100위 내 연관어 주제를 분석하면, ‘불안’ 검색어에서는 정치/사회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불안+사회’를 검색어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치/사회 주제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불안+스트레스’ 검색어에서는 건강/다이어트/의료 주제가 가장 높은 연관어 비율을 보였다.

[그림 4-6] 불안 키워드의 2018년 블로그와 카페 주제 분석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표 4-9〉 2018년 블로그와 카페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순위	불안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북한	27,869	북한	14,538	잠	13,336
2	투자	16,683	노인	9,773	암	10,474
3	암	15,961	부모	7,508	건강	9,999
4	건강	15,153	장애	7,463	운동	9,558
5	잠	15,055	진로	7,317	스트레스	9,392
6	증상	14,398	대통령	6,376	수면	8,058
7	운동	12,937	정신	5,192	장애	7,988
8	대통령	12,605	돈	5,032	증상	6,858
9	장애	12,525	동성애	4,982	노인	5,673
10	공부	11,630	교육	4,922	부모	5,149
11	부모	11,352	운동	4,778	뇌	4,965
12	시장	11,288	가족	4,558	질환	4,696
13	노인	11,181	감정	4,366	환자	4,407
14	약	11,168	증상	4,308	감정	4,371
15	환자	10,645	경제	4,181	진로	4,270
16	불안	9,580	스트레스	3,961	정신	4,059
17	스트레스	9,404	환자	3,906	불면증	4,002
18	수면	9,179	여성	3,756	예방	3,883
19	부동산	8,911	정부	3,738	공부	3,877
20	돈	8,823	안	3,608	불안	3,812
21	주택	8,667	적성	3,384	가족	3,269
22	상담	8,354	상당	3,356	음식	3,062
23	경제	8,133	불안	3,268	상당	2,775
24	정부	8,122	국가	3,150	통증	2,680
25	교육	8,020	해결	3,142	우울증	2,497
26	뇌	7,987	해	3,125	약	2,409
27	위	7,621	아동	2,849	적성	2,283
28	시험	7,287	공부	2,790	치유	2,172
29	감정	7,155	노화	2,779	수술	2,157
30	질환	6,852	노년기	2,664	식사	2,111
31	죄	6,718	학교	2,541	명상	2,104
32	해	6,704	소득	2,492	면역력	2,091
33	진로	6,533	자녀	2,419	공황	1,962
34	금리	6,278	정책	2,407	음악	1,958
35	해결	6,159	주택	2,392	시험	1,845
36	통증	6,132	우울증	2,358	노화	1,822
37	수술	6,106	노력	2,353	질병	1,810
38	가족	6,083	난민	2,345	자녀	1,786
39	고혈압	6,083	자살	2,208	식품	1,742
40	죽음	6,063	노년기	2,179	자식	1,733
41	여성	6,055	부동산	2,160	고혈압	1,726
42	정신	5,923	죽음	2,152	자살	1,716
43	남자	5,826	질환	2,130	위	1,704
44	전쟁	5,810	정권	2,129	노년기	1,693
45	음식	5,519	음악	2,125	중후군	1,656
46	선생님	5,454	투자	2,079	아동	1,646
47	아파트	5,297	질병	2,066	소외	1,635
48	예방	5,289	시장	2,032	심장	1,621
49	강의	5,101	전쟁	2,011	숙면	1,554
50	기업	5,060		1,987	면역	1,514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4. 연관어 변화 분석 결과

비교하는 3개 연도의 불안 연관어는 뉴스의 경우 주로 경제, 시장 그리고 정부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언론의 경우 불안과 관련하여 주로 시장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에서는 정부, 주택도 주요 기사로 다루어 역시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연관어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뉴스에서는 불안과 관련하여 안전, 노동·고용, 북한이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구성원의 불안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뉴스에서도 불안+사회, 그리고 불안+스트레스 연관어는 상이하다. 불안+사회 연관어로 교육과 고용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청년이 상위 연관어로 등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시장보다 소득, 국민연금이 더 상위에 위치한다. 경제와 더불어 소득, 국민연금 등이 연관어 순위 높다. 불안+스트레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직장, 교육, 영어, 수면 등 건강 이슈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문제도 상위의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블로그·카페의 경우 불안과 관련하여 건강, 공부와 교육, 가족이 중요한 연관어로 순위를 유지하고 주택과 부동산은 2007년 이후에도 주요 연관어였지만 순위는 하향 조정되었다. 불안+사회, 불안+스트레스도 유사하여 건강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주요 연관어와 주제가 중요성이 커졌다.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북한, 대통령이 주요 연관어로 부상하였다. 안보와 정치가 개인이 인식하는 불안과 연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0〉 뉴스에 나타난 불안 연관어 변화

순위	2007년			2015년 (메르스 제거)			2018년		
	불안	불안+ 사회	불안+ 스트레스	불안	불안+ 사회	불안+ 스트레스	불안	불안+ 사회	불안+ 스트레스
1	시장	경제	스트레스	시장	경제	장애	금리	정부	스트레스
2	금리	정부	뇌	금리	청년	스트레스	시장	경제	환자
3	경제	대통령	직장인	경제	노동	증상	대통령	여성	장애
4	증시	정책	증상	금융	정부	불안	경제	대통령	증상
5	금융	기업	교육	증시	북한	피의자	주가	정책	질환
6	투자	비정규직	수술	북한	기업	증후군	정부	난민	우울증
7	펀드	시장	여성	기업	대통령	수면	북한	북한	수면
8	은행	교육	영어	투자	장애	환자	금융	소득	금융
9	주택	대선	시장	정부	정치	임신	정책	일자리	여성
10	기업	한나라당	장애	주택	주택	질환	투자	국민연금	건강
11	대통령	정치	금융	대통령	연금	여성	주택	기업	상당
12	정부	주택	공부	안전	고용	음식	기업	고용	자살
13	대선	금융	질환	장애	교육	건강	무역	교육	정신건강
14	한나라당	투자	성장	대출	시장	화병	안전	최저임금	정신
15	유가	북한	우울증	수출	안전	우울증	증시	청년	금리
16	대출	부동산	건강	테러	금융	식사	여성	주택	부모
17	주식	대학	환자	노동	여성	금융	사고	연금	배우자
18	물가	국가	대학	정책	소득	명절	아파트	성장	시장
19	채권	위기	아이들	유가	일자리	강박	유치원	안전	아이들
20	환율	성장	남성	사고	비정규직	아동	고용	시장	학생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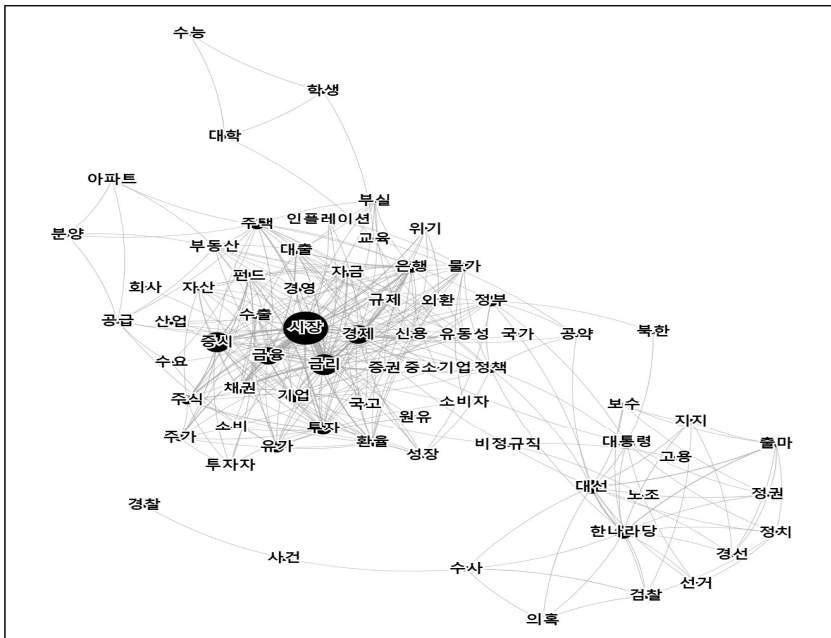
제3절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2007년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연관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도별, 그리고 그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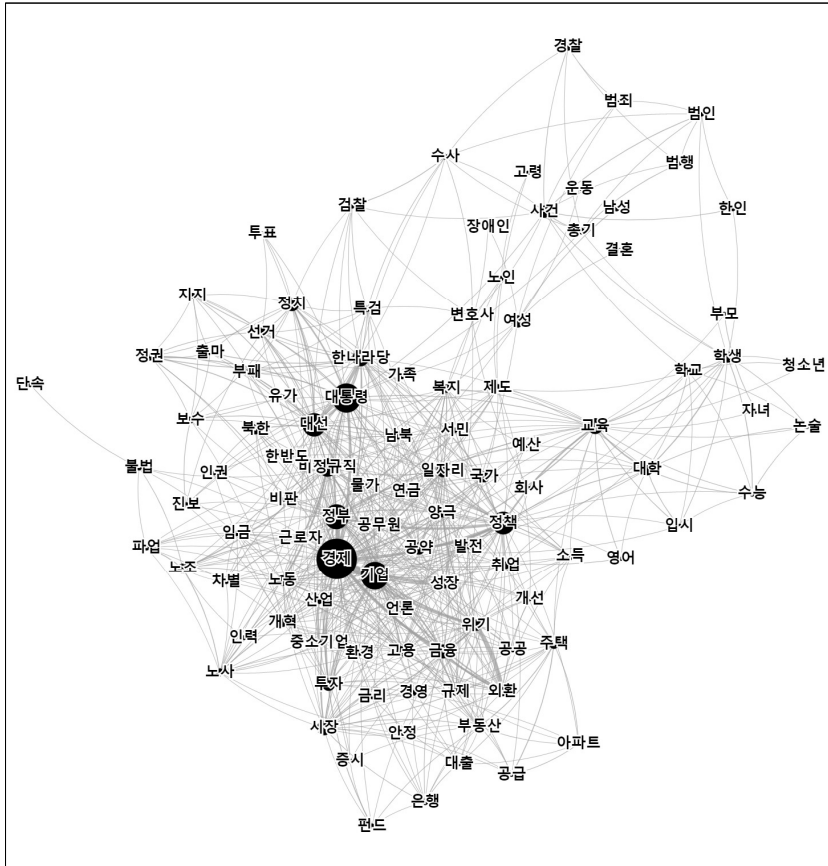
뉴스 기사와 댓글을 기초로 불안의 연관어 네트워크를 보면 시장, 경제, 금융이 중심 연관어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대통령 등 정치가 주요한 연관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과 주택은 주변부의 연관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정치와 경제는 고용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7] 2007년 뉴스 기사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그림 4-8] 2007년 뉴스 기사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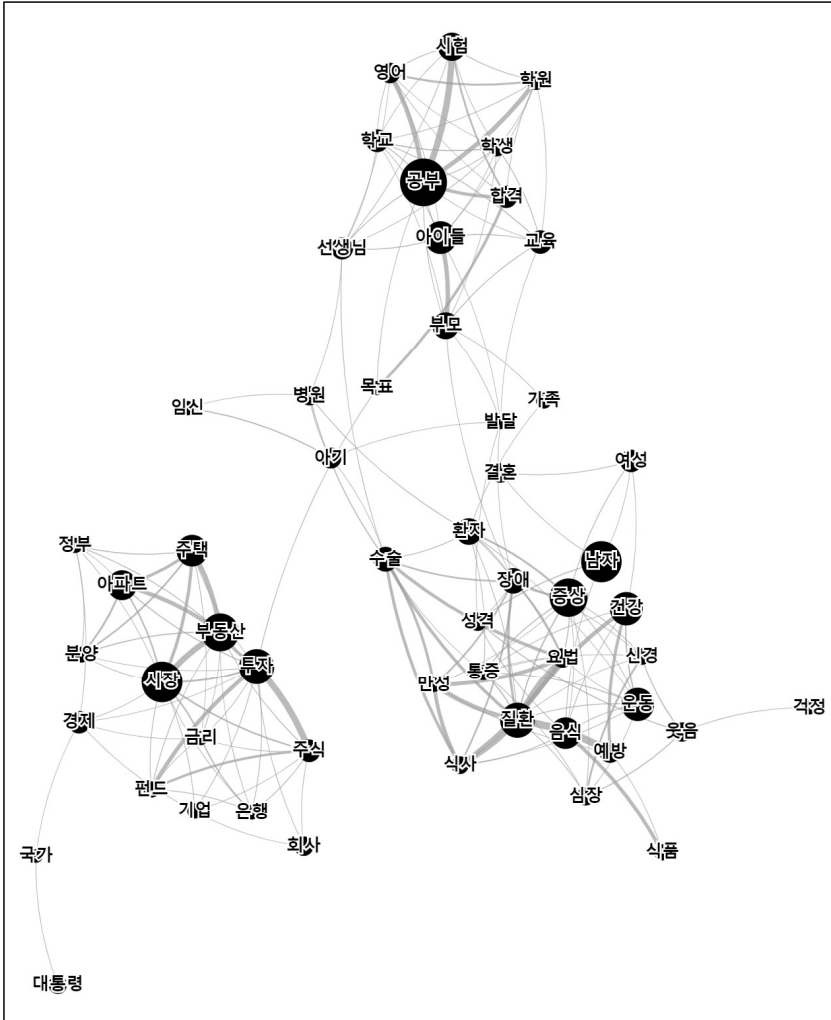
[그림 4-9] 2007년 뉴스 기사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스트레스)

대통령 주변으로 위치하는데 시장경제와 정부의 근접성이 시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네트워크의 결과를 보면 가족(부부, 부모, 자녀 등)이 불안+사회와 불안+스트레스 연관어 네트워크를 매개할 것으로 해석된다.

블로그+카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불안 연관어 네트워크에서는 교육, 건강, 그리고 시장투자를 중심으로 세 개의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시장·투자는 사회적 연관어와 ‘아기’를 매개로 연결되었다. 한편 시장,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관어 네트워크는 국가,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었다. 불안+사회 연관어 네트워크의 모습도 유사하다. 다만 비정규직이 교육과 시장경제 사이에 위치하면서 주요 연관어의 모습을 보였고 복지도 이와 유사한 연관어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 연관어 네트워크를 보면 정부가 시장경제 밖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각종 요인이 시장 중심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스트레스에서는 거의 모든 연관어가 건강 관련으로 구성되어 건강 연관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 관련 연관어와 출산 관련 연관어가 주변부에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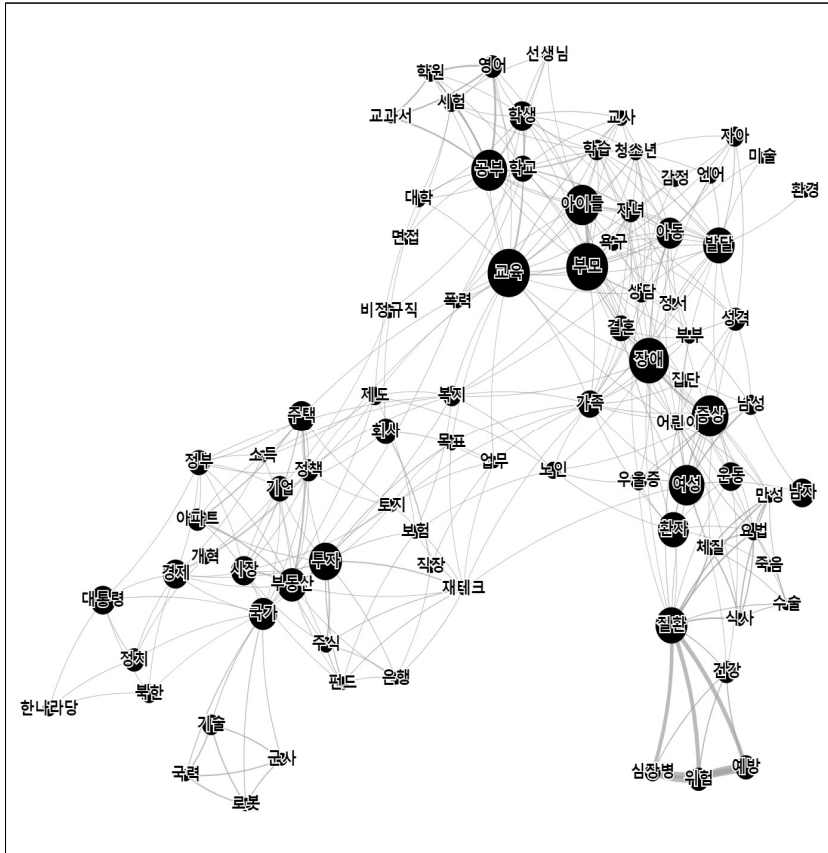
개인 수준에서 2007년에는 건강 문제와 교육 문제가 중요한 불안의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제와 부동산 등 자산이 중요한 불안 요인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용, 출산도 개인불안의 중요한 요소로 추정된다. 이러한 불안은 정부, 대통령과 연결되는데 그 연결 지점은 시장, 부동산 연관어 네트워크의 주변이었다.

[그림 4-10] 2007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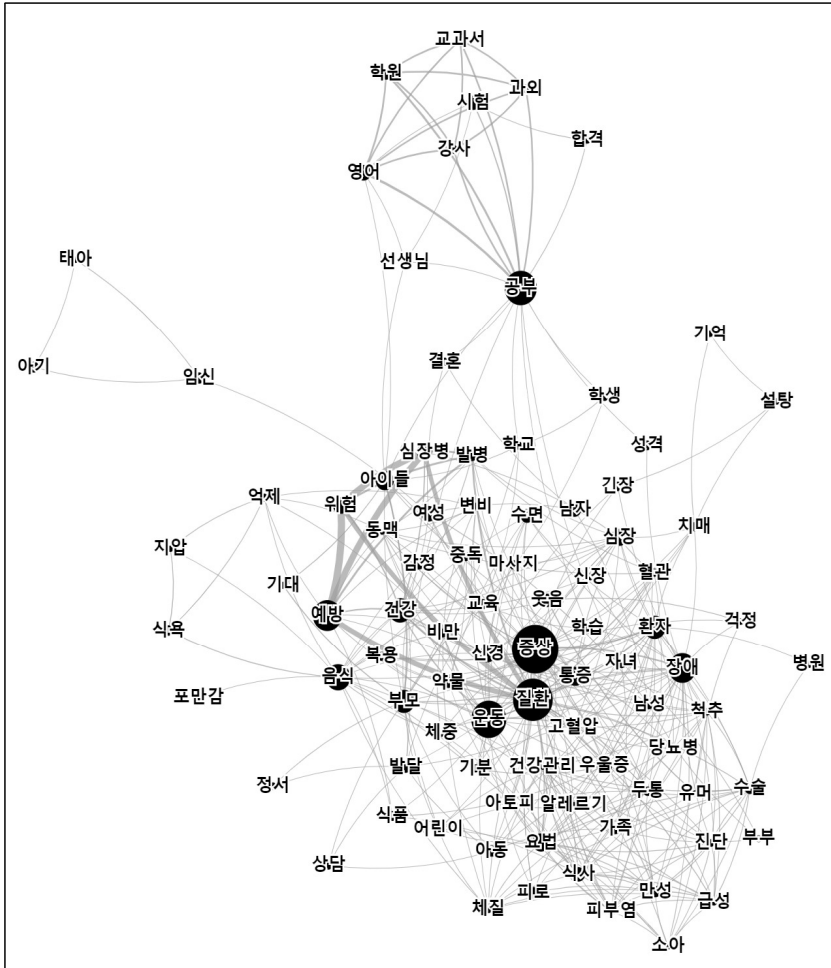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그림 4-11] 2007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그림 4-12] 2007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스트레스)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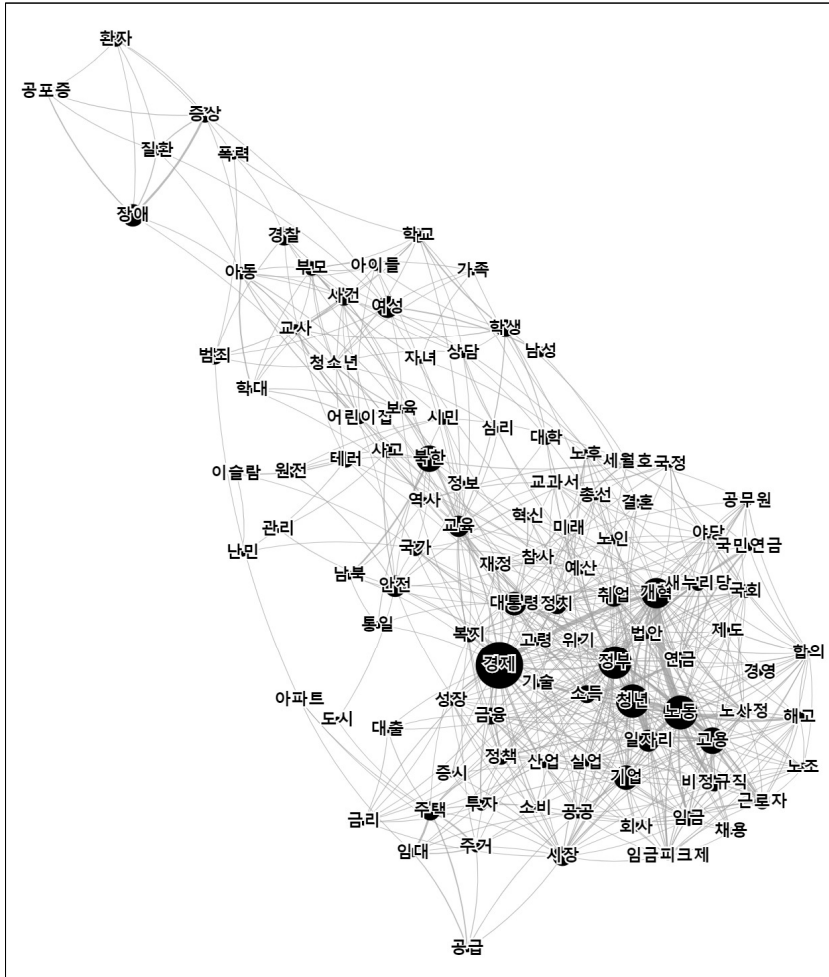
2. 2015년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뉴스 기사의 불안 관련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시장, 경제, 금융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지위의 연관어였다. 정부, 대통령, 개혁도 중요한 연관어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안전, 관리, 사고 등도 중심부 근처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경찰을 중심으로 여성, 범죄, 사건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도 주변에서 연관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불안+사회 연관어 네트워크에서는 청년, 노동, 고용 등이 중심 부분의 연관어로 위치하고 정부가 매우 중심 연관어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리고 사고 연관어(세월호, 안전, 사고, 이슬람, 테러, 원전 등), 노후 연관어(노인, 고령, 노후, 국민연금)가 중심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불안+스트레스 연관어 네트워크에서는 건강 연관어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이 건강보다는 다소 작지만 규모가 큰 별도의 연관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주택 연관어 그리고 세월호 연관어가 주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4-13] 메르스가 제외된 2015년 뉴스 기사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그림 4-14] 메르스가 제외된 2015년 뉴스 기사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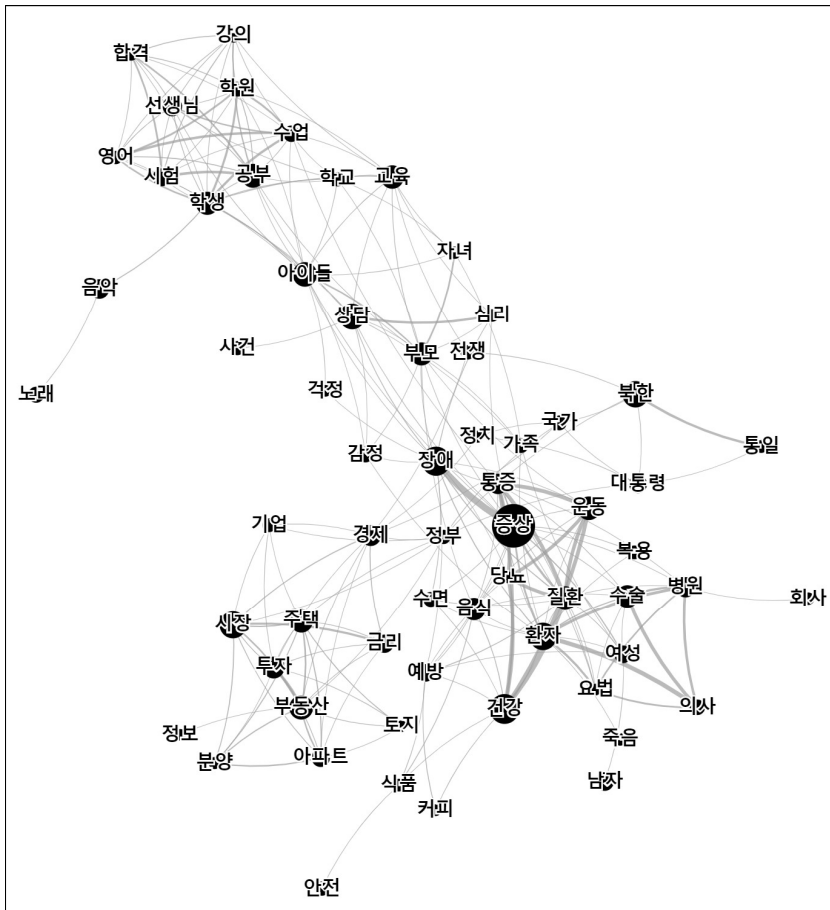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은 아이들 교육과 건강 등 개인의 생활에 결혼과 취업, 그리고 복지를 통하여 영향을 주거나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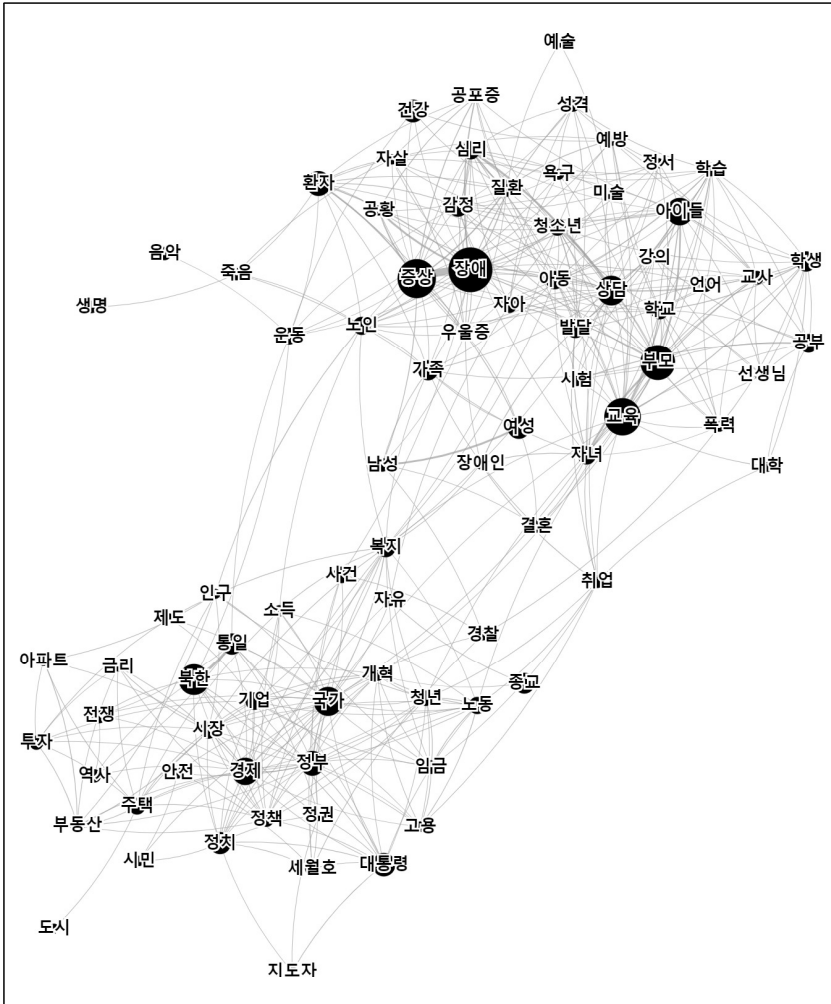
불안+스트레스 연관어는 여전히 건강 관련 연관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한편 교육이 주변에 별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정신건강 관련 연관어가 높은 수로 등장한다.

[그림 4-16] 메르스가 제외된 2015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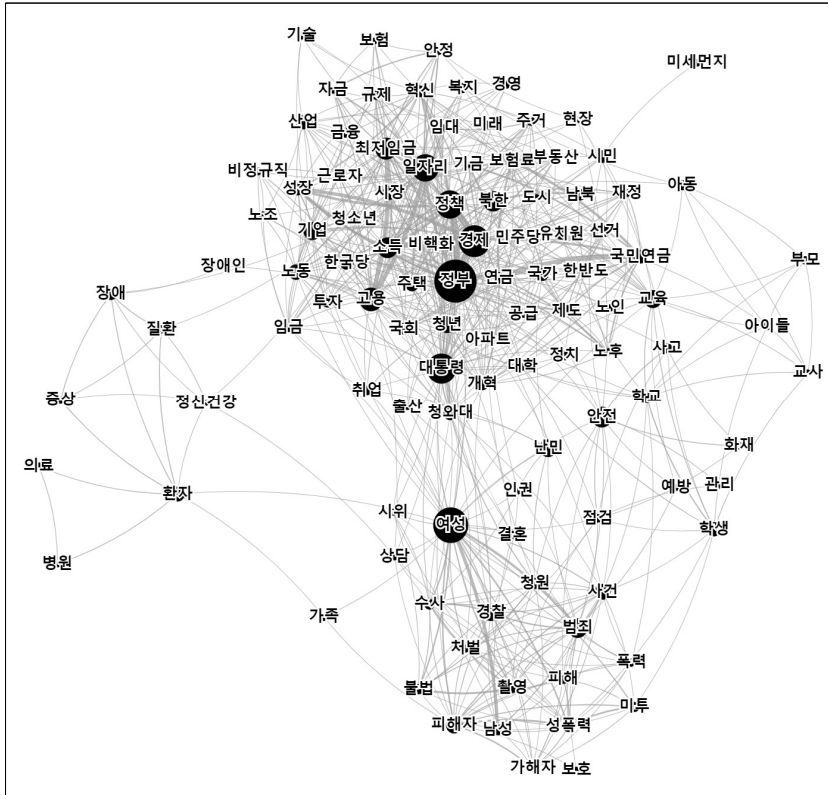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그림 4-17] 메르스가 제외된 2015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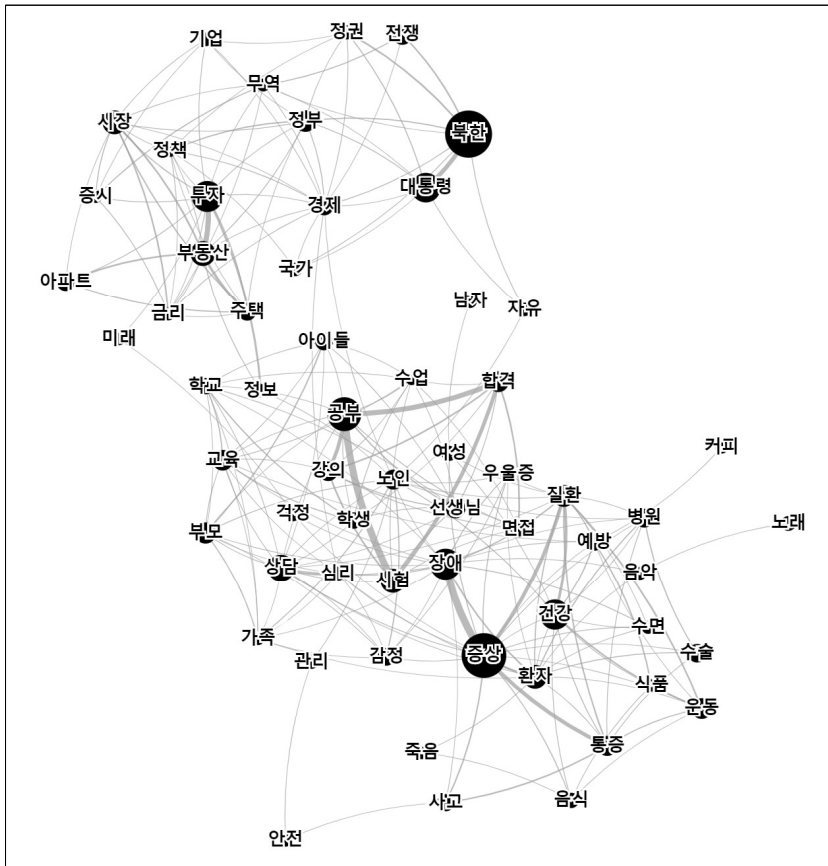
[그림 4-20] 2018년 뉴스 기사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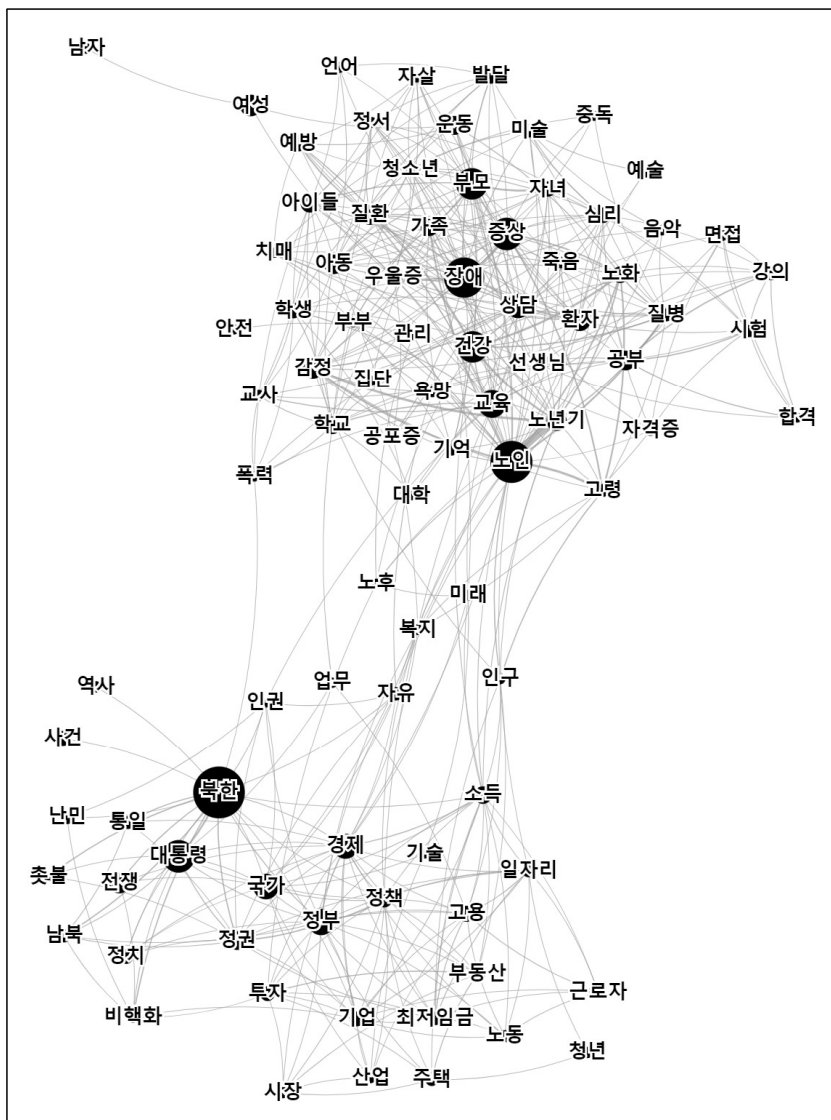
죽과 관련 연관이가 주변으로 연결되고 있다. 불안+사회 연관어 네트워크도 유사한 모양새를 보인다. 건강, 자녀 연관어 네트워크 주변에서 노후 관련 연관어의 수가 늘었다. 그리고 정신건강 연관어가 늘고 중심부로 위치가 다소 변경되었다. 불안+스트레스 연관어를 보면 건강과 정신건강 연관어가 대부분의 연관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공부와 시험, 학습은 주변에 약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위치한다.

[그림 4-22] 2018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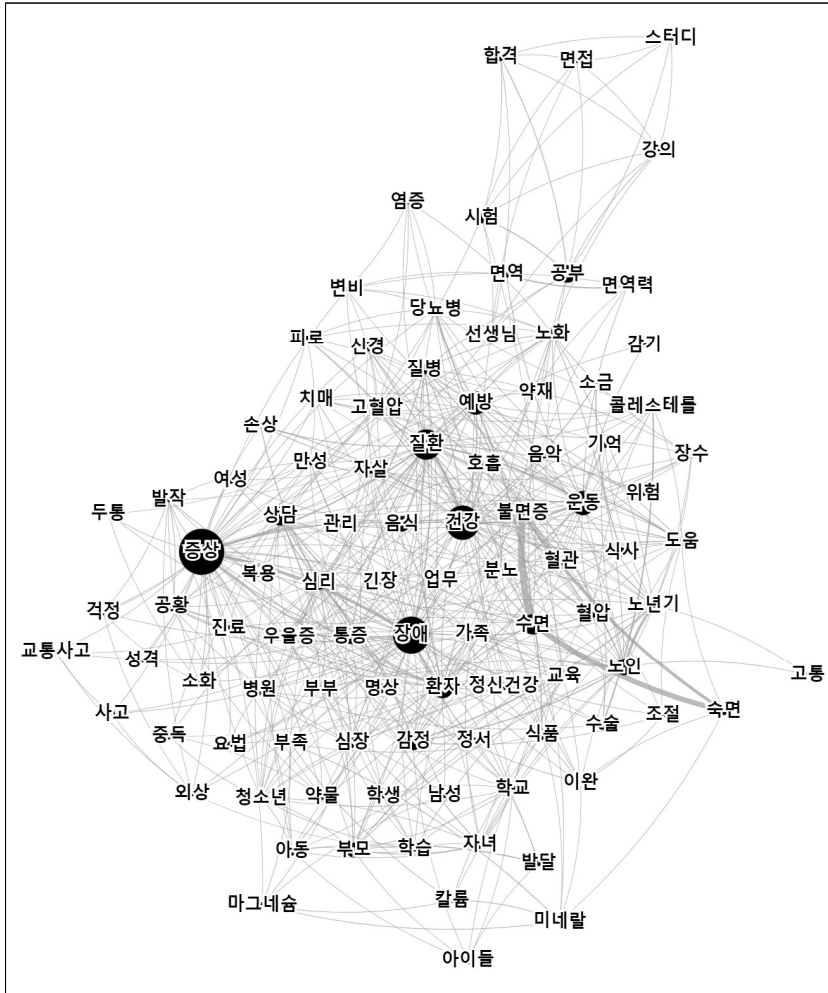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그림 4-23] 2018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사회)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그림 4-24] 2018년 블로그·카페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불안+스트레스)



자료: 네이버. <https://www.naver.com/>; 다음. <https://www.daum.net/>.

4. 연관어 네트워크의 변화

뉴스 기사 중 불안 관련 연관어 사이의 네트워크 변화를 보면([그림 4-7], [그림 4-13], [그림 4-19] 참조) 2007년과 비교하여 2015년과 2018년에는 중심에 있는 시장·경제·금융 주변으로 정부·대통령·정치가 이동하고 있다. 고용은 정부 연관어와 더불어 중심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부동산·아파트·자산도 정부 연관어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시장경제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은 2015년 이후 주요 연관어로 위치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사고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최근 역사 중 외환위기와 세월호 사건이 국민의 불안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이 자주 등장하였다.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경찰은 연관어 네트워크에서 중심으로 다소 이동하였고 교육은 여전히 주변부에 별도의 연관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뉴스의 연관어 네트워크의 전체적 변화 경향을 정리하자면 첫째, 정부, 대통령 연관어의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써 정부, 대통령이 불안과의 관련성도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노후, 건강, 정신건강, 정부, 대통령 연관어가 불안과 관련하여 증가, 강화 중이었다. 특히 건강은 주요 불안 연관어였는데, 최근 정신건강 연관어의 비중이 커졌고 이와 더불어 수면, 우울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불안+스트레스에서는 단연 건강 연관어의 중요성이 컸는데 추정컨대 개인 수준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 사회적 이슈로 관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경찰, 안전 연관어가 중요한 연관어로 등장하고 있으며 연관어 네트워크에서도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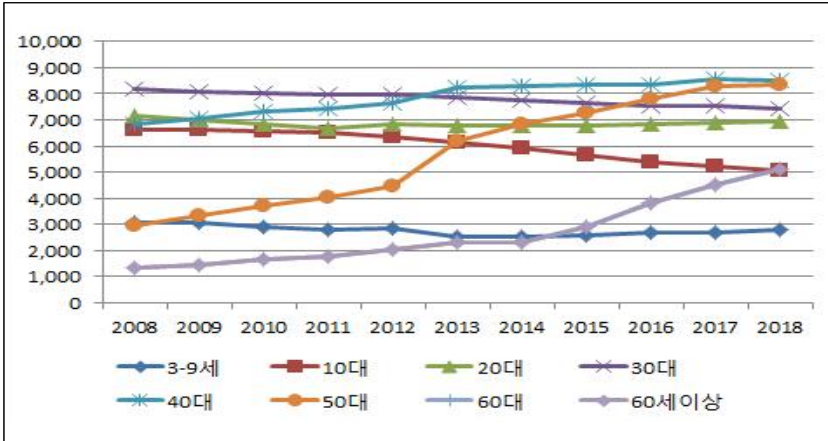
부로 이동하였거나, 또는 별도의 규모가 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넷째, 가족이 연관어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경향도 엿보였다. 그런데 가족은 부담과 의존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보여 가족과 불안의 관계가 가족을 통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뿐 아니라 가족으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적 수준의 주제 선정이 상대적으로 강한 블로그·카페에서는 건강, 교육, 주택, 시장 등이 주요 연관어로 네트워크의 중심에 등장하는 반면 뉴스에서는 경제, 금융, 시장 연관어가 상대적으로 중심적 연관어로 나타났다. 사회 구성원의 경험에서는 경제·시장이 주로 부동산, 취업, 교육을 매개로 불안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의 불안은 교육과 취업, 부동산과 연결되지만 이러한 불안은 경제, 시장, 금융 등 보다 사회적인 이슈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 중간에 가족과 같은 연관어가 위치하고 있다.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불안이 무엇으로 심화되는지, 그리고 그 불안이 어떤 요인으로부터 강화되는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변화 중 하나는 건강과 관련된 연관어가 더 중요한 연관어로 부상한다는 점, 노인 소득보장 등 노인 관련 주제와 가족 문제가 자주 연관어로 등장하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 대상 범죄와 안전보장,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이용자의 규모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25] 인터넷 이용자의 변화

(단위: 천 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MH002_MI003&conn_path=I3에서 2019. 10. 30. 인출.

2008년 60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는 133만 명이지만 2018년에는 704만 2000명에 이른다. 전체 이용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온라인에서 중요한 의견을 개진하는 집단으로 고령층의 의미가 커질 것이다. 앞서 불안과 연관된 주 이슈들이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의 구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될 가능성이 크고 여론의 형성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과 교육이라는 주제보다는 건강과 노후소득보장이 더 자주 논의되는 불안 연관어가 될 수 있으며 청년 문제도 청년의 전체적인 규모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불안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정책적 대응을 고민할 때는 여론의 구성과 여론에서 후위로 밀린 주요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제 5 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 1: 불안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제1절 분석 목적과 분석 방법

제2절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에 따른 불안 경험

제3절 불안 경험 유형

제4절 소결

5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 1 << : 불안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제1절 분석 목적과 분석 방법

1. 분석 목적

수저계급론, 헬조선, N포 세대, 이생망 등 신조 유행어들에는 한국 사회에서 살기가 힘들고 희망이 없다는 부정적이고 자조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신조 유행어들은 청장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주요 동력인 청장년층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불안(anxiety)은 위협과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여겨 발생하는 두려움과 긴장감 등의 불쾌하고 주관적인 감정이다(박수애, 송관재, 2005, p. 2). 한편 사회적 불안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위협이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심리이다(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p. 131).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과 대응(이상영 외, 2015)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이라는 심리적 경험은 통제감 상실, 공정성 불신, 사건·사고에 대한 취약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불안의 양상은 연령, 성별, 주관적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불안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과 별도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불안 현상에 관한 개념화와 이론 작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량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연역적 추론을 하였기에 새로운 이해와 발견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불안을 통해 우리가 읽어 내야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현실과 요구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좀 더 탐색적이고 귀납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험은 객관성의 영역이지만 불안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의 반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구성된다(조권중, 2014, p. 9). 위험 인식 역시 주관성에 근거한 개념이다. 위험 인식은 위험의 실제 크기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험 인식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면 사회 구성원의 경험과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주영기, 유명순, 2016). 사회적 불안 연구 역시 다양한 맥락에 처한 사회 구성원의 경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회 구조적 불안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라는 관점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관심이 있는 이 연구와 맥이 닿아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귀납적 연구를 통해 현장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측정 가능한 주요 변수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면 사회적 불안에 관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의 불안 경험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을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정의한다. 한국 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보다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심리적 경험으로서의 불안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불안은 어떤 사회에서 집단으로 발현되는 마음, 즉 사회의 마음(이재열, 2019, p. 25)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에 관한 기존 연구가 사회 문제와 불안을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사회 문제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본 장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불안 경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으로 현상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의 핵심은 참여자의 경험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견고한 자료 분석을 요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참여자들 개인이 연구에서 초점으로 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미가 있는 진술을 찾고 이러한 진술을 논리적으로 목록화하였다. 참여자 개인의 진술에 동등한 가치를 두어 다루고, 반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진술을 목록화하는 방식을 따랐다.

녹취 자료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초기 코딩에서는 원자료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쓸모 있거나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단위를 구분해 내고 문맥을 요약하면서 의미가 살아나도록 코드를 부여하였다. 초기 코딩을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 코딩을 통해 A4 용지 198쪽 분량의 자료가 산출되었고 2차 코딩을 통해 A4 용지 89쪽 분량의 자료가 산출되었다. 코딩 과정을 통해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자료의 내용이나 의미를 개념화하여 원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바꾸었다. 심층 코딩에서는 비슷한 코드를 합치고 불필요한 코드는 삭제하면서 코드를 줄여 범주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범주화를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한편 맥락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사례 간 분석과 사례 내 분석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제2절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에 따른 불안 경험

면접 조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불안과 생활 만족에 관한 인생 그래프 워크시트를 연구자와 함께 작성하였다. 불

안에 관한 인생 그래프 워크시트의 가로축은 연령을, 세로축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 수준’을 나타내고 불안 수준은 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10점 ‘매우 불안하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불안 점수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여겨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정도를 나타낸다. 생활 만족에 관한 인생 그래프 워크시트의 가로축은 연령을, 세로축은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며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 ‘매우 만족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생활 만족 점수는 ‘현재 상황의 생활에 대해 흡족하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현재의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5-1〉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에 따른 불안 경험

		생활 만족		
		하 (6명)	중 (16명)	상 (11명)
불안	상 (11명)	사례 16(53,여) 사례 14(55,여) 사례 15(59,여) 사례 21(57,남) 사례 35(57,남) 사례 18(20,여)	사례 11(22,남) 사례 29(27,남)	사례 4(23,여) 사례 12(28,여) 사례 5(33,남)
	중 (17명)		사례 19(27,여) 사례 37(27,남) 사례 10(29,남) 사례 27(30,여) 사례 28(30,여) 사례 36(30,남) 사례 30(31,남) 사례 31(34,여) 사례 9(34,여) 사례 13(37,남) 사례 24(43,여) 사례 25(39,여) 사례 34(37,여) 사례 7(40,여)	사례 17(23,여) 사례 6(37,여) 사례 32(59,남)
	하 (5명)			사례 26(45,여) 사례 20(48,여) 사례 33(33,여) 사례 22(43,여) 사례 23(50,여)

연구 참여자 40명 중 예비 조사에 참여한 일부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7명(사례 1~3, 사례 8, 사례 38~40)을 제외하고 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33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남성 9명, 여성 24명이고,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 15명, 미혼 18명이며, 연령에 따라 20대 11명, 30대 11명, 40대 4명, 50대 7명이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중상층 1명, 중간층 10명, 중하층 11명, 하층 5명, 빈곤층 4명이며, 2명은 관련 정보가 누락되어 알 수 없다.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간층으로 평가한 10명 중 미혼이며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가 여섯 사례이고 기혼이 네 사례였다. 부모와 거주하는 참여자들(대학생 1명, 계약직 3명, 파트타임직 대학원생 1명, 취업 준비생 1명)은 자신의 소득계층을 부모의 소득계층과 구분하지 않았다. 사례 17과 37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자신은 중하층으로, 가족은 하층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 안에는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 완화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들어 있다.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을 10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상중하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33명 중 11명이 자신의 현재 불안 수준을 높게 표시하였고, 5명은 낮게 표시하였으며, 나머지 17명은 중간 정도로 표시하였다. 불안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생활 만족 수준에 따라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낮은 집단,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 불안과 생활 만족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불안 수준이 중간인 참여자들은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불안 수준이 낮은 참여자들은 모두 생활 만족이 높았다. 각 집단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의 불안 경험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의 불안 경험

가. 생활 만족이 낮은 집단

〈표 5-2〉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낮은 집단의 특징

구분	수급자 유배우 여성	수급자 한부모 여성	수급자 한부모 남성	복지 사각지대 한부모가족 자녀
사례	사례 16	사례 14, 사례 15	사례 21, 사례 35	사례 18
연령	50대 초반	50대 중후반	50대 후반	20세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빈곤층	빈곤층	빈곤층
불안 내용	빈곤 정신질환 자녀 괴롭힘과 언어폭력	빈곤 건강 악화	빈곤 실패감 사회적 고립	빈곤 모녀 갈등

전체 연구 참여자 33명 중 6명이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낮은 집단에 해당한다. 불안이 높은 참여자 11명 중 6명이 생활 만족이 낮은 집단에 해당한다. 이들은 자신의 주관적 소득계층¹⁾을 빈곤층 혹은 하층으로 표시하였으며, 20세 사례 18을 제외하고 모두 50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사례 14, 15, 16, 21은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례 35는 1종 수급자이다. 이들이 기입한 생계급여 범위는 55만~140만 원이다. 사례 18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며, 실제 여건으로는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서류 조건이 미비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현재 소득이 없다.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미 경험한 상황에 대한 반응 불안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반응과는 상관이 없는 불유관 불안이다.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1) 면접 조사에서 주관적 소득계층을 상층-중상층-중간층-중하층-하층-빈곤층 6구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연구 참여자가 기입하도록 하였다.

1) 50대 수급자 가구 유배우 여성

사례 16의 불안은 빈곤, 돌봄 필요 가족원, 일상적 괴롭힘, 언어폭력 등과 관련이 있다. 사례 16은 50대 초반 여성으로 알코올 의존 남편, 정신질환 아들과 살면서 130만 원 자활근로 급여로 생활한다. 사례 16의 빈곤은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30년이 되어 간다. “남편은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돈도 별로 안 갖다줬어요. 첫애 가졌을 때 거의 굶다시피 했고 연년생으로 작은애를 임신했는데 돈을 안 갖다주니까 며칠을 500ml 우유 하나 갖고 버텼어요. 아래층 사는 아줌마 들한테 밥 얻어먹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최근에 취업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아들이 있어서 4인 가족 3인 수급자 가구이다. 수급 탈락의 두려움은 이 집단에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불안이다.

“애들이 취직되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거든요. 수급자 떨어지면 살 집이 없잖아요.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아야 될까. 불안한 거는 종합 적으로 다 불안한데, 큰애가 갑자기 큰 사고 칠까 봐 제일 불안해. 저는 큰애가 못 보게 칼을 싱크대 밑에다가 숨겨 놔어요. 어제도 밥 먹 다가 뭐 얘기하다가 접시 다 깨졌다니까요. 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꾸준히 약물 치료 해서 좋아졌는데 병원에서는 자극하지 말고 잘해 주라는데 어디까지 잘해 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사례 16, 53세 여성)

사례 16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남편과 아들의 괴롭힘과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보건센터에 찾아갔고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다.

“내 치부를 너무 드러낸 것 같아서 창피하고, 상담했다고 남편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참아야지 싶어서 안 갔어요.”

2) 50대 수급자 가구 한부모 여성

사례 14와 15의 불안은 빈곤, 건강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50대 중후반 한부모 여성으로 대학생 자녀와 동거하는 2인 수급자 가구이며, 60만원 내외의 자활근로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한시름 걱정을 놓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다. “자녀가 취직하면 수급에서 탈락되고 LH 방 빼라고 할까 봐” 걱정이 크지만 가족 기능이 취약한 상황은 아니다.

사례 14는 이혼 후 친정 부모와 살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연고지를 떠나 서울로 와서 수급자가 되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말도 통하고 알바도 하니깐 안심이 된다.”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몸이 좋지 않고 병원에 가도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 사례 15는 남편 사별 후 몰랐던 사업 빛이 발견되면서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먹을 쌀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함께 죽자는 아들을 다독여 수급자로 살아왔는데 아들이 잘 자라 자부심을 느낀다. 당뇨가 심해지면서 자신이 없어지고 외롭다.

3) 50대 수급자 가구 한부모 남성

사례 21의 불안은 빈곤, 실패감, 사회적 고립과 관련이 있고, 사례 35의 불안은 빈곤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례 21과 35는 50대 후반 한부모 남성이며 30대 중후반에 결혼하고 부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들은 20대까지 비교적 만족스러운 생활

을 하다가 30대 중후반에 가족의 압박으로 결혼하였고, 이혼을 전후하여 경제적, 심리적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취업이나 대학 입시 등을 돕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33개 사례 중 현재 불안 수준을 10점 ‘매우 불안하다’로 평가한 경우는 이들 두 사례뿐인데, 이들의 높은 불안감은 젠더 요인 이외에 이들 사례의 공통점과 관련이 있다.

사례 21은 중산층으로 살다가 부인의 사채 현금으로 집을 잃고 이혼하였다. 이혼 후 가게 근처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파산하는 악재가 겹쳐 수급자가 되었다. 본가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입혀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는 연고가 전혀 없는 타향에서 수급자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부끄러워요. 남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힘들어요. 예전에는 부끄럽고 염치없어서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어요. 동사무소에서 LH 전세자금을 알려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방 하나에서 애들이랑 생활하고 있었겠죠.” 사례 21의 불안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반응과 관련이 있는 유관 불안이고, 타인에게 받는 승인과 인정을 중시하는 인정 욕구와 관련이 있어, 생활 만족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심화한다. 이 집단의 나머지 사례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반응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사례 21은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을 추구할 수 없고 생존에 급급해야 하는 수급자 생활에 우울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유지할 수가 없고 먹고사는 데 매여서 성장하지 못하고 나이 들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괴로움과 불안을 언급한 참여자는 33명 중 이 사례가 유일했다. 사례 21은 자살 충동을 자주 느낀다고 하였으며 면접 조사 중 눈물을 흘려 대화가 두세 번 중단되었

다. 3인 수급자 가구 자활근로 급여 14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례 35는 조건부 수급자였다가 건강 악화로 1종 수급자가 되어 생계 급여 13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월세, 외상, 공과금 체납 등 생활비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100만 원 맞추라고 하니까 더 벌었어도 50만 원으로 서명하면서 불법으로 버텨 왔는데” 수술 후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비 부족이 심각하다.

“이혼할 때 판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아빠가 애들을 올바르게 키운 거를 못 봤대요. 남자들은 어렵다고, 술 먹고 애들 내팽개치고 뚜드려 팬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다짐을 받더라고요. 아빠가 애들을 안 먹인다는가, 안 가르친다는가, 애들을 열악한 공간에서 키우면 벌금 내고 애들을 엄마가 데려간대요. 제가 잘 키우겠다고 확답했고 지금까지는 잘 지내요. 보증금 20만 원 월세 5만 원 곰팡이 득실득실한 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들이 잘 컸지만, 저는 너무 힘들고 현재 생활이 겁나게 두려워요. 몸 관리를 안 해서 약 없이는 못 견디겠고. 어저께부터 잠을 못 자요. 돈 나갈 곳이 많은데 돈은 없고.”(사례 35, 57세 남성)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기관장 상도 받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울 줄 알고 아버지 마음도 헤아릴 만큼 잘 자랐다. 하지만 사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이고, 복지관 복지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반절 죽은 목숨으로 산다’. 단전·단수가 되면서 자살을 시도하다 자녀에게 발각된 적이 있으며,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자살 충동을 자주 느낀다고 하였다. 긍정적으로 살아 보려 애를 쓰는데도 죽을 만큼 힘드니 “우리 생전에 수급제도가 시정이 안 되면, 우리 후세대에게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4) 20대 복지 사각지대 한부모가족 자녀

사례 18의 불안은 빈곤, 모녀 갈등과 관련이 있다. 사례 18은 어머니의 남자 친구에게 아동학대 및 폭력을 경험하였다. 고등학교 입학비가 없어 입학을 1년 미루는 동안 자살을 시도했으며 입학 후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쉬거나 방학을 이용해 인력사무소에 나가 공장 일을 했다. “엄마 호적 정리가 안 돼서, 한부모가족 지원이 제한적이었어요. 저랑 형편이 같은 친구는 병원비도 싸게 하고 학교에서도 지원받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서 안타깝고 억울한 부분도 있고. 호적 정리만 되면 지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있으면 금방 끝내는데 돈이 없으면 이것저것 서류 내고 7~8개월 걸린대요. 근데 엄마가 기진맥진한 상태여서… 기관 도움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나아지면 불안도 좀 나아지고.” 형편이 비슷한 고등학교 친구 엄마를 통해 뒤늦게 복지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공과금 밀리고 생활비가 없어서 불안해요.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물리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인력사무소도 나간다고 해도 많이 못 해요. 제가 엄마 대신에 일 나가는 게 맞는데, 학생 때부터 공장 일 해서 그런지 일 나가기 정말 싫어요. 저는 인력사무소 일 자체가 엄청 고돼요. 제가 혼자 생활비 벌려니까 벅차고. 돈 벌어도 저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하기 싫고. 생활비 내고 밀린 공과금 내고 그러면 일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일 나가자 해 놓고 전날 밤만 되면 의욕이 상실되고 정말 나가기 싫어요.”(사례 18, 20세 여성)

“제가 엄마랑 말은 하는데, 엄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엄마랑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엄마랑 얘기하는 건 도움이 절대 안 돼요. 물질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크게 안 알려 줘도 그냥 편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내 얘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녀간에 갈등과 불신이 있으며 가족 기능이 취약하여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다. 모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

나.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

전체 연구 참여자 33명 중 2명이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에 해당한다. 불안이 높은 참여자 11명 중 2명이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에 해당한다. 사례 11은 자신의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하층으로 보고하였으며, 사례 29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들의 불안은 불유관 불안으로 사회적 시선이나 반응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의 특징

	사례 11	사례 29
연령	20대 초반	20대 후반
가족 형태	한부모 아버지 3인 가구	부모와 거주
소득활동	파트타임직 대학생	없음
주관적 소득계층	중하층	중간층
불안 내용	생계유지, 취업	공무원 시험 준비

사례 11의 불안은 생계유지, 취업과 관련이 있다. 사례 11은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 남동생과 셋이 살고 있는데,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각자 따로 지내면서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며 살아왔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취업 시험을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면 자신이 장남이자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어 취업 준비에 임하는 태도는 비장하기까지 하다. 사례 11의 인생 그래프에서 현시점은, 고등학교 이후 불안 수준은 올라가고 생활 만족은 떨어지는 상황 속에 있다.

“제일 불안하고 힘들었던 건 고3 때 대학 진학 문제였어요. 학원 선생님들이랑 상의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시고 너무 고돼서 주말에는 주무시니까 같이할 시간도 없었어요. 어느 대학 갈 거예요 말씀만 드리고, 너 알아서 해라, 잘할 거라 믿는다 그런 식이셨어요. 아버지가 너는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못 벌게 되면 동생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셨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으니까 많이 부담이 됐어요. 취업 시험 준비는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서 입시보다 훨씬 중요해서 걱정이 커요. 여기에 모든 걸 걸고 될 때까지 할 거고, 해보고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면 다시 생각해야 되겠죠.”(사례 11, 22세 남성)

사례 29의 불안은 공무원 시험과 관련이 있다. 사례 29는 부모와 살고 있으며 부모는 입시나 취업에 대해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2년째 공무원 취업 준비를 해 왔다. 매일 운동을 하고 2주마다 친구를 만나거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독서실에 출퇴근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 원서 제

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면접 조사를 하였다. 사례 29의 높은 불안과 중간 수준의 생활 만족은 면접 조사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 떨어지면 또 1년 준비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취업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불안하죠. 저는 원래 딱 2년만 준비하자 했었어요. 더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년 준비하고 안 되면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연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28, 9에 취업하고 서른 안에 결혼하고 싶었어요. 지금 27살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결혼 늦게 한다고 제가 뭐 더 할 것도 없고.”(사례 29, 27세 남성)

사례 29가 미래를 예측한 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불안은 상황적인 것이어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는 사례 11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 11은 사례 29와는 달리 생활비와 취업 준비 경비를 마련하면서 공부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부담과 압박이 커질 것이다.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청년수당이 확대 지속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불안은 줄어들 것이다.

다.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

전체 연구 참여자 33명 중 3명이 불안과 생활 만족 모두 높은 집단에 해당한다. 불안이 높은 참여자 11명 중 3명이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에 해당한다. 사례 4는 자신을 중간층으로 평가하고 월 소득이 110만 원인 대학교 휴학생 20대 초반 여성이다. 사례 12는 자신을 중상층으로 평가

하고 소득활동이 없으며 유학을 앞두고 있는 20대 후반 미혼 여성이다. 사례 5는 자신을 중하층으로 평가하고 본인 월 소득이 300만 원 초반인 30대 초반 정규직 기혼 남성이다.

사례 4는 자유를, 사례 12는 성취를, 사례 5는 의미를 추구한다. 이들의 가치 추구 불안은 경제적 안정과 관련이 크지 않다. 이들의 불안은 높은 수준이고 일상생활의 감정에 반영되지만 전반적인 생활 만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들의 불안은 예기적 성격이 강하다. 사례 4의 불안은 타인의 시선이나 반응과는 관련이 없었고, 사례 12와 5의 불안은 사회적 시선과 관련된 유관 불안에 해당되며 인정 욕구와 관련이 있었다.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5-4>와 같다.

<표 5-4>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도 높은 집단의 특징

	자유 추구+높은 불안	성취 추구+높은 불안	의미 추구+높은 불안
연령	사례 4, 20대 초반	사례 12, 20대 후반	사례 5, 30대 초반
가족 형태	부모와 거주	부모와 거주	부부 가구
소득활동	파트타임직 대학생	없음	정규직
주관적 소득계층	중간층	중상층	중하층
불안 내용	생활비, 취업 준비 자유 침해, 여성 안전	성취 불안	가치 불안 사회적 지위 불안

1) 자유 추구+높은 불안

사례 4의 불안은 생활비 조달, 취업 준비, 여성 안전, 자유 침해 등과 관련이 있다. 사례 4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뚜렷하며 자율성을 추구한다. 사례 4는 ‘칼퇴하는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 200만 원 정도 받고 비상금이 500만 원 정도 있고 적금 부어서 혼자 해외 배낭여행 다니는 삶을 원한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혼자 해외 배낭여행으로 가 보고 싶은 곳이 남아 있어서 휴학을 했다.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여행 가서 남의 눈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지내는 게 좋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시야를 넓게 해 주는 거 같아요.” 여행을 가려면 돈을 벌어야 해서 주 5일 5시간씩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고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간층으로 보고하였으나, 대학 입학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소득활동을 해 왔으며 부모에게 용돈을 받은 적이 없다. 취업하면 저축해서 30세경에는 부모 집에서 독립할 계획이다.

“옛날에는 금수저 이런 게 조금 부러웠거든요. SNS 보면 자랑하는 게 시글이 많이 올라와요. 지금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포기한 거 같아요. 옛날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경제활동 하고 돈을 써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긴 글렀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 그래서 뒤통자질까 봐 초조하고 그런 건 오히려 없어요.”(사례 4, 23세 여성,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

20대 초반 학생이어서 생활비 조달과 취업 준비로 인한 불안이 크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문화, 외모 품평을 일삼는 외모지상주의 문화,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상하게 보는 획일적인 문화에 대한 불만이 크다. 여성으로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안전 불안도 크다.

“옛날에는 몰래카메라 무서워서 공중화장실에 아예 못 갔어요. 묻지마 범죄도 있잖아요. 강남역 사건. 그래서 술 먹고 화장실 갈 때도 꼭 친구랑 가요. 요즘에 여성 범죄가 되게 많아서 아예 사람을 불신, 못 믿게 되니까. 사건이 있으면 좀 더 예민해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

는 거 같으면 뛰어가고. 저희 집은 길가에 있거든요. 근데도 밤 되면 차가 잘 안 다니고, 그 빌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무섭더라고요. 비밀 번호를 누를 때까지도 무서워요. 여자가 알아서 조심하라는 문화가 답답해요.”(사례 4, 23세 여성)

2) 성취 추구+높은 불안

사례 12의 불안감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긴장감이다. 사례 12는 연구 참여자 33명 중 유일하게 자신의 소득계층을 중상층으로 보고하였다.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 방향하지 않았는데 유학 준비 과정에서 실패를 맛보고 불안을 크게 경험했다. 두 번째 도전에 성공하여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기쁘고 설레지만 잘해 낼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다. 경제적 걱정이 없고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감과 생활 만족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유학 가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학위를 따서 교수가 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목표이다.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장애인부 봉사활동 하고 저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고. 부모님, 가정의 영향이 커요. 어머니가 방관형 긍정적 마인드여서 오히려 스스로 알아서 했던 거 같아요.” “자유가 조금씩 더 많아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니까 재밌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급식 주면 앉아서 공부만 하고 수동적으로 사니까 솔직히 편했어요. 근데 20대부터는 다양한 인간관계들도 생기고 직업도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불안감이 커졌지만 행복감도 동시에 커졌어요.” 사례 12는 자기 성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생활 만족은 별개의 문제이며, 불안이 높다고 해서 생활 만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3) 의미 추구+높은 불안

사례 5의 불안감은 사회적 지위 불안과 관련하여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사례 5는 오랜 연애 끝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한 신혼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험하고 있다. “자신에 비해서 회사 생활을 잘 버텨 내고 현재를 당차게 살아가는 아내가 자랑스럽고 일상이 편안하고 감사하다.” 맞벌이를 하면서 지금은 먹고 살 만하지만 신혼집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사회 변화에 민감한 현재 직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제 친구들은 자기 직업에서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돈을 모을까 그러면서 주식을 하든가 비트코인을 해 보든가 그래요. 그러지 않고서는 필요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나이여서. 저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좀 더 찾아보고 싶은데, 주위 환경이 이러니 나도 그렇게 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어떤 차를 탄다 이런 것들이 신경 쓰여요. 이런 영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미혼 시절에는 현실 감각 없이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적어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나?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고 결혼했어도 그래요.”(사례 5, 33세 남성)

“친구들은 결혼을 사회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계기로 생각하고 철이 든다, 현실감이 있다, 어른스러워진다, 가장이 된다 그런 말들로 표현하는데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가 유일한 화제인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그들에게 합

류하는 것도 내키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싶고 불안하다. 대안을 모색할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직장 생활에 갑갑함을 느낀다.

2. 불안 수준이 중간인 집단의 불안 경험

가.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

전체 연구 참여자 33명 중 14명이 불안과 생활 만족이 모두 중간인 집단에 해당한다. 불안이 중간 수준인 참여자 17명 중 14명이 생활 만족 역시 중간인 집단에 해당한다. 이 집단에 속하는 참여자는 사례 19와 36을 제외하고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간층 혹은 중하층으로 보고하였다. 사례 19와 36은 경제적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상담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불안이 감소하고 생활 만족이 향상되는 중이며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불안과 생활 만족 평가에 반영되었다. 이 집단은 고용 형태와 생활 여건이 다양하며, 사례 13을 제외하고 월 소득이 120만~250만 원에 해당한다. 사례 13은 33개 사례 중 본인 월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IMF 외환 위기로 집안이 어려워져 고생한 경험을 각인하고 외벌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부담으로 불안이 있고 생활 만족이 높지 않다. 이 집단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반응과 관련된 불안을 느끼는 유관 불안의 경우는 14명 중 사례 13, 19, 30, 34, 37 등 5명이다. 사례 19와 37의 불안은 가족의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례 13과 34의 불안은 사회적 지위 불안과 관련이 있다. 사례 30의 불안은 부모와 사회적 시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집단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의 불안은 미래 불확실성(사례 10), 안정적 직장 찾기(사례 19, 30, 37), 인생 방향 혼란(사례 27), 사회적 지위 불안(사례 9), 중간층 소득 유지하기(사례 13), 업무 과다 역할 과중(사례 24), 업무 불안(사례 25), 자녀 교육 갈등과 재취업(사례 7, 34) 등과 관련이 있다. 이 집단은 생활 여건과 불안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14명 중 8명이 넓은 의미의 취업 준비 그룹(30세 전후)에, 4명이 직장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든 정규직 그룹(30대 중반~40대 초반)에, 2명이 미취업 기혼 여성 그룹(40세 전후)에 속한다. 사례 37(27세 남성)은 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정규직인데 이직을 고려하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 취업 준비 그룹에 포함했다. 이러한 그룹별 특징을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표 5-5> 불안과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의 특성

구분	취업 준비 그룹	정착한 정규직 그룹	미취업 기혼 여성 그룹
사례	사례 10, 사례 19, 사례 27, 사례 28, 사례 30, 사례 31, 사례 36, 사례 37(8명)	사례 9, 사례 13, 사례 24, 사례 25(4명)	사례 7, 사례 34(2명)
연령	30세 전후	30대 중반~40대 초반	40세 전후
가족 형태	1인 가구 (사례 10, 사례 36) 한부모가족(사례 19) 나머지는 부모와 거주	사례 9는 부모와 거주 나머지는 기혼 독립 가구	기혼 독립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중간층~하층	중간층~중하층	중하층
불안 내용	미래 불확실성 안정적 직장 찾기 인생 방향 혼란	사회적 지위 불안 중간층 소득 유지하기 업무 과다 역할 과중 업무 불안	자녀 교육 갈등 재취업

1) 취업 준비 그룹

이 그룹에 해당되는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 취업 준비생(사례 10), 파트타임직 미혼 여성(사례 19), 공기업 인턴(사례 28), 계약직 공무원(사례 27, 30), 파트타임직으로 일하는 대학원생(사례 31), 파트타임직 미혼 남성(사례 36), 정규직 미혼 남성(사례 37) 등이다. 사례 10과 28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같은 안정적인 정규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사례 19와 30은 시도하였다가 포기하고 안정적인 다른 직장을 찾고 있으며, 사례 27, 31, 36은 인생의 방향을 열어 두고 선택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사례 37은 첫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지만 이직을 대비하고 있다.

가정 해체로 인한 1인 가구인 사례 10은 값싼 고시원에 등록해 혼자 살면서 한 달 별면 한 달 사는 생활을 한다. 대학 졸업 후 생활비 대출을 했는데 갚을 돈이 300만 원 남아 있다. 취업 준비를 해 보니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해 봤자 안 되는 것도 많겠구나’ 그런 것을 느낀다. 자신은 중3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냈는데, 취업할 나이가 됐는데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박탈감을 느낀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내 이야기를 공유할 대상 없이 살아와 공허감을 느낄 때가 많다.

“제가 계획을 세워도 저처럼 돈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쉽게 변하니까 불안해요. 제가 구청에 가서 조건부 수급자로 등록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겠다고 증명하면 생계비 50만 원, 주거급여 2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초에 예고 시행 없이 조건이 바뀌어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주 5일 8시간씩 주민센터 복지도우미 계

약직으로 일해야 돼요. 힘든 업무는 아닌데 업무 시간이 기니까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이런 경우를 겪으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언제고 법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요.”(사례 10, 29세 남성, 미래 불확실성)

한부모가족 자녀인 사례 19는 어릴 때부터 돈돈 하며 살았고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너무 와닿았다.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상담을 하면서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도 잘사는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정도면 자신을 챙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 예전에는 모든 생활이 의무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것을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

“공무원 취준을 그만두고 2년 동안 직장을 4번 바꿨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해 봤고 아르바이트도 다양하게 많이 해 봐서 내가 무슨 일든 하겠구나, 어떻게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이 덜해요. 5년 지나면 정착하지 않을까.”(사례 19, 27세 여성, 어떻게든 살겠구나)

사례 27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족이 푹푹 뭉쳐 살았지만 생활 만족이 낮았다. 20대에 취업하고 커피 사 먹을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생활 만족도 높아졌다.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 선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형편에 맞게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 혼자 여행, 혼밥, 혼술에 도전하면서 스스로 벽을 깨 나가고 있다.

“계약직이라서 불안감이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요. 사회적으로 정해진 틀, 타인이 나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만한 자립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가족이랑 같이 살아도 요즘 되게 외로운 거 같아요. 고용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더 외로운 건지. 타인과 비교를 안 하려고 그래도 보이는 게 있고 사람이니까 비교가 되고.”(사례 27, 30세 여성, 인생 방향 혼란)

부모와 살고 있는 사례 30은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했는데, 서른 살도 넘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빨리 가져야 된다는 불안감이 제일 크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지만 친구들은 직장 생활 하는데 자기만 뒤쳐진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가 언제 취직하고 결혼하냐고 걱정하니 불안하다. 사례 37은 첫 직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간 지 6개월이 됐다. 버텨 내지 못하고 퇴사할까 봐 걱정이고, 잘릴까 봐 걱정이고, 근무 시간과 통근 시간이 길어 이직 준비를 할 수 없는 게 걱정이다. 자신이 취업했다고 일용직 일과 마트 일을 줄이신 부모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할 수 없어 걱정이다. 집이 좁아 둘 곳도 없는 물건들을 사는 재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걱정이다.

“정규직이지만 이 직장에서 안 잘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술직 특성상 40대 중반 분이랑 일하는데 제가 술을 못 마셔서 일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직 대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회사 사람들이 옛날 문화가 있어서 직장에서 거의 12시간 있어요. 제가 집이 멀어서 준비를 못 해요. 게다가 정규직도 사유를 갖다 붙이면 해임이

가능하다, 조심해라 엄포를 놓으니까 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요.”(사례 37, 27세 남성, 직장에서 살아남거나 이직하기)

사례 37은 화장실이 없는 옥탑방 컨테이너에 4인 가족이 살던 시절부터 ‘불안이 습관이 된 것 같고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면접 조사에서 최근에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매 순간이 계속 걱정이었어서 뭐가 좋았다 행복했다 그런 기억은 없어요. 경제적인 거에 얽매어 있다고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다.

2) 정착한 정규직 그룹

이 그룹에 해당되는 연구 참여자는 정규직 연구원 미혼 여성(사례 9), 대기업 정규직 기혼 남성(사례 13), 공무원 기혼 여성(사례 24, 25) 등이다. 이들은 5~10년 한 분야에서 일했으며 직장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정규직에 안착하였다. 결혼 여부, 맞벌이 여부, 성별, 직장 업무 특성에 따라 불안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미혼 여성인 사례 9는 결혼 압력과 사회적 지위 불안을 느낀다.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다가 삶의 태도, 사는 방식을 바꾸면서 남하고 비교하게 됐어요. 서울 올라와서 정규직 틀에 들어오면서, 나도 남들처럼 살아 보자 생각했어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한 직장에 오래 다니고 경력 쌓고 살아 보자 하니까 남하고 비교하게 돼요. 이때에는 이런 걸 성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고 거기서 불안이 시작돼요. 그러면

서 내가 잘 살고 있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사례 9, 34세 여성, 사회적 지위 불안)

외벌이 중산층 가장인 사례 13의 불안은 ‘금전적인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였던 아버지의 IMF 외환위기 파산으로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냈으며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다. 부동산 투자로 중산층 소득을 유지하고자 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일하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불안한 상태여서 앞으로 현 상황이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는 평생직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족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금전적 고민이 많아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긴장 상태예요.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는데 회사 후배들은 스펙도 좋고 집도 여유가 있어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무리해서라도 아이 교육을 위해서 목동으로 가려고 하고. 제가 개선할 힘이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워요.”(사례 13, 37세 남성, 금전적 고민이 많아요)

사회복지 공무원이자 기혼 여성인 사례 24의 현재 불안은 업무 과다와 역할 과중으로 인한 부담과 피곤함 때문이다. ‘업무량이 많아서 한 달에 40시간 정도 야근을 하고 거기다가 엄마, 아내, 며느리 역할이 중첩되니까 부담스럽고 피곤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들고 막막한 비정규직 시절을 겪었기에 버틸 수 있다.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인정해 주고 애들도 엄마가 공무원인 것을 자랑스러워해 보상받는 느낌이 든다. 공무원 기혼 여성인 사례 25 역시 업무 관련 불안이 있었다.

“제가 30대 후반에 공무원이 됐어요. 제 첫 직장이 공무원이었으면 정말 뛰어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학원 강사, 계약직 교사, 생활 시설 복지사 직장을 6~7군데를 다녀 봐서, 여기가 힘들지만 바깥세상은 더 힘들다는 걸 아니까 만족하죠. 이렇게 힘들지만 안정적이고 정규직이고 월급 밀리는 거 없고 신분 보장되는 사회적 위치가 만족스럽죠.”(사례 24, 43세 여성, 여기가 힘들지만 바깥세상은 더 힘들다)

3) 미취업 기혼 여성 그룹

미취업 기혼 여성인 사례 7과 34는 자녀 교육 현실 때문에 불안을 느끼며, 자녀가 성장하여 손이 덜 가고 학원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의 직장 불안정으로 인한 불안은 고정 변수이다. 사례 34는 결혼 전 9년간 취업하였지만 직장 생활 할 때보다 두 아이를 키우는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더 잘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였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아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더 잘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불안하지만 동기 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 시스템을 보니 내가 자란 환경에서 잘해 봤자 지금보다 잘됐을까 싶고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잘 모를 때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은데 알고 나니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애를 잘 키우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목동에 가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환경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공부 잘하고 대학 타이틀이 좋아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근데 아이를 키워 보니까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아이를 잡아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살아 보니까 ‘어디 나왔어’ 이런 타이틀이 중요하고 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거기서 오는 갈등을 겪고 있어요.”(사례 34, 37세 여성, 자녀 교육 갈등)

‘내 아이 개성에 맞는 자유로운 교육을 원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어렵고, 내가 변화해도 이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아이만 뒤처지고 낙오자가 되니까 결국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안타깝다’는 것이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례 7(40세 여성), 사례 13(37세 남성), 사례 34(37세 여성)의 논리이고 불안의 핵심이다. 사례 13과 34는 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하였고, 사례 7은 경제적 여건이 되면 아이 교육은 외국에서 하고 싶다고 하였다. 사례 7은 한국의 교육 현실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 차별이 노골적인 한국 문화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안하다. 사사건건 남과 비교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브랜드에 예민하고 내용보다 외관을 중시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며 그에 따라 친구들을 차별하는 아이로 자라난다.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사례 34는 재취업이 하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그 엄마는 직업이 뭐야? 너희 엄마는 무슨 일 해?”라는 질문을 받을까 봐, 자신이 일하는 게 아이에게 피해가 될까 봐 재취업이 겁난다. 모른 척하고 소신껏 살 자신도 없다.

나.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

전체 연구 참여자 33명 중 3명이 불안이 중간이고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에 해당한다. 불안이 중간 수준인 참여자 17명 중 3명이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에 해당되었다. 이들은 생활 만족 수준은 높지만 특정하고 구체적인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미 경험한 상황에 대한 반응 불안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반응과는 상관이 없는 불유관 불안이다.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표 5-6> 불안이 중간이고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의 특징

구분	돌봄 필요 가족원이 있는 경우	직장 업무 불안이 있는 경우
사례	사례 17, 사례 32	사례 6
연령	사례 17(23세 여성), 사례 32(59세 남성)	37세 여성
가족 형태	사례 17(한부모 3인 가구), 사례 32(미혼 형제 3인 가구)	1인 가구
소득활동	사례 17(정규직), 사례 32(없음)	정규직
주관적 소득계층	사례 17(중하층), 사례 32(하층)	중하층
불안 내용	간병, 가족 돌봄	직장 업무 트라우마

1) 돌봄 필요 가족원이 있는 경우

사례 17의 불안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 사례 17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고 20대 초반 정규직 미혼 여성이며 자신의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하층으로 보고하였다. 어머니와 동생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고 어머니와 탈출하여 쉼터 생활을 했다. 친구들이 마마걸이냐고 할 정도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녀 관계를

이어 왔다. 쉼터에서 만난 선생님과 꾸준히 연락하며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4년 전 어머니에게 희귀 난치성 질환이 발병하면서, “내가 서른 살 돼서도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불안하고 막막하다. 하지만 수급자로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개선할 복지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한순간에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학습하면서 내공을 키웠다. 힘든 상황일수록 자신의 행복을 챙기고 상황에서 한걸음 물러나야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지지해 주는 동료와 선생님들이 큰 힘이 되었다. 대학 졸업 직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였다. 취업은 커다란 성취감을 주었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였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갔지만 취업을 해서 돈을 버니까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엄마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키웠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최근에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몇 달 만에 동생이랑 엄마 휠체어 태워서 미장원에 커트하러 나가서 엄마한테 바깥세상을 보여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첫 월급 받아서 새로 산 침대형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처음 나갔는데, 힘들게 할부 60만 원을 갚고 있지만 보람이 있었다고 했다.

사례 32의 불안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조현병, 지적장애 동생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사례 32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조현병, 지적장애인 남동생 두 명과 살고 있으며 세 형제 모두 미혼이다. 자신의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으로 보고하였다. 전형적인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며 지금은 지적장애 남동생의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 간경화로 사망하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8년 동안 집에서 간병하면서 힘들고 불안했다. 생활비가 부족해 요양보호사를 끊고 혼자 간병하면서 동생들 돌보고 살림하느라 불면증에 걸리고 불안이 극도에 달했다.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해 치매 어머니를 요양 병원에 입원시

쳤고 어머니는 8개월 후 사망했다. “나는 굶어 죽어도, 없이 살아도 도움의 손길 안 받는다 그랬는데 어머니 치매가 생기고 너무 힘들어서 필요한 도움은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변했어요.” 도움 청하기는 사회적 연결을 위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접속되면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렸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와줘서 집 안을 치웠어요. 집 안이 쓰레기 더미 같아 보였나 봐요. 전에는 치매 어머니 간호하느라고 치울 생각을 못 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생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해 줘서 병원에서 정신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침 10시에 갔다가 4시에 끝나요. 동생이 병원 프로그램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대화하고 약도 먹고 좋아져서 제 말을 잘 들어요. 설거지하라고 그러면 하고, 쓰레기통 내놔라 그러면 도와주고. 예전엔 말이 안 통했어요.”(사례 32, 59세 남성, 요새는 담당자가 애로 사항 있으면 애기하래요)

최근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고, 남동생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생계급여를 받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있다. 공적 개입으로 경제적 상황과 생활 여건이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낮은 상황에서 불안이 중간이고 생활 만족이 높은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예전에는 사회에 불만이 많고 부정적이었는데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했다. 혼자 애써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사회가 그런 상황을 알아채고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제 도움은 받을 만큼 받았고 내가 노력할 문제만 남았다”고 한다.

2) 특정한 직장 업무 불안이 있는 경우

사례 6의 불안은 간호사의 직장 괴롭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 사례 6은 30대 후반 정규직 간호사이며 1인 가구 미혼 여성이다. 주관적 소득 계층을 중하층으로 보고하였다. 신규 간호사 시절 간호사 조직의 태움 문화로 인해 불안감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다. 고용 불안은 없지만 간호사의 직장 괴롭힘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그때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며 산다.

“간호사 집단이 인격 모독 언어폭력이 심각해요.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는 게 업무 과중으로 다가오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신규 때문에 더 힘들다 이렇게 돼요. 결국은 간호사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데서 오는 문제예요. 3년 동안 병원을 쉬다 재취업을 하려니까 3년 전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기억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그때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저는 직장을 여러 번 옮기다 보니까, 이번 병원에서는 살아남고 싶다, 여기서 버텨 보자 하지만 죽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 받으면 사퇴해야지 생각하고 있어요.”(사례 6, 37세 여성, 그때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직장 업무 영역을 제외하면 현재 생활과 사는 방식에 만족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나이가 많고 잘하려니까 일에 관한 스트레스가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별로 불안을 안 느껴요. 자기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생각 차이 때문에 불안이 크고 작고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결혼해야지, 더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인데, 저는 사회의 눈으로 이 정도 나이에 이거는 해야 되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3. 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의 불안 경험

전체 연구 참여자 33명 중 5명이 불안이 낮고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에 해당한다. 불안이 낮은 참여자 5명 모두 생활 만족이 높았다. 불안이 낮고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은 다시 둘로 구분되었다. 사례 22, 23, 33의 현재 상황은 삶의 태도와 생활 여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사례 23은 50대 초반 미취업 기혼 여성이며 사례 33은 30대 초반 취업한 기혼 여성이고, 이들의 가구소득은 33개 사례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이들은 자신의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간층으로 표시하였다. 사례 22는 부모, 미혼의 동생과 동거하는 40대 초반 프리랜서 미혼 여성이다. 학령기 자녀들과 살고 있는 40대 중후반의 한부모가족 여성인 사례 20과 26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위축되지 않고 자녀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혼 이후 불안이 낮아지고 생활 만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례 20은 수급자이며 사례 26은 차상위계층이다. 이들 모두 예전에는 중간층에 속하였다. 이들은 현재 자신의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하층이라고 표시하였다.

가. 전반적 안정 그룹

사례 33은 30대 초반 기혼 여성이며 유아기 자녀가 있는 정규직 간호사이다. 인생에서 20대 초반이 가장 불안하고 생활 만족이 낮았다. 지방 대학을 자퇴하고 취업하였다가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고 간호사가 되기까지 불안이 점차 낮아지고 생활 만족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30대 초반 현재 상황은 20대의 그러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내 생활에 그냥 만족하고,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뒤처졌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남하고 비교하면 불안하고 화가 나니까 생각 안 해요. 야망이 크면 더 요구하게 되고 더 비교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인서울 하고 저는 지방대에 갔어요. 자괴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생활했어요.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대학을 자퇴하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친구들은 대학 생활 하고 미팅도 하는데 나는 맨날 의사한테 치이고 환자한테 치이고. 친구들이랑 비교가 되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일이 적성에 잘 맞고 인정도 받았어요. 의사가 돈을 모았으면 재수 학원 다니라고 추천해 줘서 간호대학에 들어갔어요.”(사례 33, 33세 여성)

아이를 돌봐 줄 여력이 되는 친정엄마가 있고, 유연 근무로 일찍 퇴근하는 직장을 찾았고, 개인 사업 하는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어서 취업 중단 없이 일하고 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집에서 쉬면서 뒹굴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을 안 하면 사회랑 단절되고 존재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져요. 남편은 그걸 이해해 줘요. 제가 집에 있으면 남편한테 짜증이 많아지니까, 얼마를 벌든 생각 말고 원하는 일을 해라, 오전에는 애를 케어해주겠다 합의했어요.” 사례 33은 가장 행복한 경험으로 출산과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들었다.

사례 23은 50세 미취업 기혼 여성이다. 서울의 유명한 달동네에서 살았다는 사례 23은 인생에서 10대가 가장 불안하고 생활 만족이 낮았다. 이후로는 불안이 꾸준히 낮아지고, 생활 만족은 초기 양육기와 자녀 사춘기에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인생에서 현재가 가장 만족스

러운 상태라고 했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고 물었다. “제가 어릴 때 달동네 살 때 얘기거든요. 여덟 살쯤, 햇빛이 반짝반짝한 일요일 아침, 엄마가 맛있는 돼지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볶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4~5년 돈을 벌어서 집안을 지금으로 해 놓으셨어요. 엄마도 장사하면서 고생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다투는 일이 잦아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어릴 때는 가족이 삶의 큰 부분이니까 집에서 큰소리 나면 불안하거든요. 저는 정서적인 면에서 불안했던 거고, 부모님은 경제적인 게 불안하셨던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니까 쇼킹했어요. 중학교에서 봤던 아이들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나하고 같은 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능력 면에서 내가 너무 뒤처진다고 느껴서 되게 불안했어요.”(사례 23, 50세 여성)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지만 학습지 교사, 학교 교사 도우미 등 하루 서너 시간 정도의 일을 꾸준히 했다. 남편이 술을 줄이고 아이들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갔으면 하는 걱정 이외에 별다른 불만이나 불안이 없고 만족스럽다. 책을 읽으며 다음 해외여행지를 고르고 친구들과 영어 공부를 한다. 지인의 권유로 동네 통반장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적 안정, 지속적 소득활동, 폭넓은 사회적 지지망, 자녀 교육에 대해 유연한 태도, 사회적 시선이나 타인의 눈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태도 등이다.

나. 전략적 안정 그룹

사례 26은 40대 중반 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으로 결혼 후 불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혼을 계기로 불안이 현저히 낮아지고 생활 만족이 높아졌다. 이혼으로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한부모가족 등록으로 적절한 시기에 긴급 지원 혜택을 받고 자활근로를 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사례 20은 남편의 주식 투자 파산으로 오갈 곳이 없어져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혼 후 수급자가 되었다. 손이 많이 가는 시기는 지났고 입시 부담은 아직 없어서 자녀들과 소통이 원활하며 종교 생활을 통해 현실을 버텨 나갈 힘과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다. 대학에 입학해 꾸준히 배우는 삶을 자녀들과 공유하면서 가족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 현실은 개선된 점이 없지만 대학 입학은 가족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고 생활 만족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관을 두드리지만,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한참 망설이다가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안 그랬다면 인생을 막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와서 과제물 하는 걸 애들이 보잖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반대하더니 이제는 끝까지 하라고 응원해요. 처음에는 엄마 왜 우리한테 신경 안 쓰고 공부해요? 왜 나이 먹어서 대학교 가요? 다른 엄마는 안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너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싶기도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엄마, 공부해요. 엄마 공부하니까 좋다고. 시험 기간엔 같이 도서관 가고. 애들이 ‘엄마, 이 영어는 뭐라고 읽어요’ 하고 물어보면 뿌듯해요.”(사례 20,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사례 26과 20의 공통점은 종교 생활, 사회적 지지망 확보, 자녀 교육에 대한 의연한 태도, 사회적 시선이나 타인의 눈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태도 등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현실을 헤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가족 원끼리 서로 결속되고 사회와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터득하고 실천하였다.

제3절 불안 경험 유형

1. 불안 경험의 영향 요인

2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현재의 불안과 생활 만족을 중심으로 불안 경험을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발견된 불안의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불안 경험 유형을 분석하고, 불안 경험 유형에 따른 요구와 사회적 과제를 정리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불안 경험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생활 만족이 높고 불안이 낮은 집단은 제외하였다. 불안 수준이 높고 생활 만족이 중간인 사례 11과 29 역시 유형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례 29의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은 면접 조사 시점과 관련한 상황적인 것이어서 사례 29는 불안과 생활 만족이 모두 중간인 집단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어 제외하였다. 사례 11은 한 사례만으로 유형 분석을 하기에 정보량이 부족하고 전형성이 떨어져 제외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도출된 불안 경험 유형은 <표 5-7>의 A유형(고불안 저만족), B유형(고만족 중불안), C유형(중불안 중만족), D유형(고만족 고불안)의 네 가지이다.

〈표 5-7〉 불안 경험 유형

		생활 만족		
		하	중	상
불안	상	A유형		D유형
	중		C유형	B유형
	하			

참여자들의 불안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불안 특성, 사회적 지지, 불안 대처 등 세 가지가 발견되었다. 불안 특성은 참여자가 평가하는 불안의 특성을 말한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지원을 뜻한다. 불안 대처는 참여자가 자신의 불안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뜻한다.

가. 불안 특성

불안 특성은 연구 참여자가 느끼는 불안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파악된 불안 특성은 그들이 느끼는 불안이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 불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불안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아닌지 등이다.

첫째, 참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특성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불안의 구체성과 막연함에 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였고, 이러한 불안의 특성이 생활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2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은 과거의 좋지 않은 경험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미래의 좋은 일에 관련된 막연한 불안이라 했고, 사례 18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은 경험해 보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는 막연한 불안은 아니라고 했다. 구체성이 높은 불안은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반응 불안이고, 구체성이 낮은 불안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염려해서 느끼는 예견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2의 예견 불안은 생활 만족과 공존할 수 있지만, 사례 18의 반응 불안은 아동학대, 고등학교 시절의 공장 노동, 생활비 부족, 공과금 체납 등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불안이어서 생활 만족과 공존하기 어려운 종류의 불안이다.

“불안이랑 만족은 별개 같아요. 불안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거잖아요. 실제로 안 좋은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불안하다면 만족감은 떨어질 수 있는데, 불안은 그냥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뭔가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진 않는 거 같아요. 부모님도 서포트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도 없고, 제 성향도 긍정적이거든요.”(사례 12, 28세 여성)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랑 둘이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위험이나 그런 걸 모르겠어요. 술 취한 사람들 없진 않지만, 저 사람들이 해를 할 거라는 상상은 해도, 그렇다고 불안하지는 않아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위험을 별로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불안은 그런 막연한 불안은 아니에요.”(사례 18, 20세 여성)

구체적 불안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의 개별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사례 32)는 말이 해당되는 그런 종류의 불안이다. “어머니가 치매로 집에 계시는 8~9년 동안 제가 잠 한번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한번은 제가 소주 먹고 자는 사이에 어머니가 가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걱정돼서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겼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어머니가 욕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욕실 들어가서 30~40분 물 끼얹고 그거를 하루 종일 반복했어요. 어머니가 넘어져서 건지 못해서

내가 부축해서 화장실 가고 대충 닦아 드리고 밥해서 어머니랑 동생들도 먹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경험 안 한 사람은 내 심정을 몰라요.”

둘째, 면접 조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느끼는 불안의 효과를 질문하였다. 사례 27은 어느 정도의 불안은 발전의 동력이 되고 다른 관점을 고려해 보는 기회가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불안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황이 주어지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근데 경쟁자가 있어서 불안하면 더 열심히 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 같아서 어느 정도 불안감은 느끼고 살아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사람이 불안을 느껴야 다른 시각을 고려해 보게 되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쳐다보게 되고 이러니까 불안이 부정적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불안이 없으면 행복하긴 하겠지만, 불안 없으면 삶의 재미가 없을 거 같기도 해요.”

연구 참여자 33명 중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효과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참여자는 10명이었다. 이 중 8명(사례 16, 18, 19, 20, 21, 35, 36, 37)이 자살 충동, 자살 미수, 자살 시도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사례 36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은 자기에게 해가 됐던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이 없고 쪼들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 친구들한테 돈 빌리는 부탁을 하는 게 미안하고 자존감을 깎아 먹어서 못난 사람이 된 거 같았다”고 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불가피성과 전면성에 대해 표현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통제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불안의 특성은 생활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함(사례 21),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숨 막힘(사례 16), 인생이 막막한 총체적 난국(사례 17)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을 피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불안이 자신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복지관에서 시설 청소 관리 주 5일 8시간 근무해서 120만 원 안 돼요. 수당 30만 원 나오고. 이걸로 딸 둘하고 생활이 힘들지만 소득이 잡히면 탈락되니까. 더 잘살고 싶은데 일을 하면 더 잘살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최고의 불합리예요. 제가 주말에 일용직이라도 하면 좋은데 소득 잡히면 번 만큼 지원금에서 빼 버려요. 이 생활에서 더 이상 나아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죠. 여기서 더 나빠지면 뭐가 나빠지겠어요.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은 안 해요. 이미 바닥이니까.”
(사례 21, 57세 남성)

“친정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네가 최고다 이랬고 결혼하기 전에는 활발하고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살다가 완전 180도 다른 생활을 하니까 저는 숨이 막혀요. 이 상황에서 제가 벗어날 수도 없으니까 미치겠어요. 누구 안 챙겨 줘도 되고 누구한테 야단, 잔소리 안 듣고 아무 제재도 안 받고 한 달만 그렇게 살면 소원이 없겠어요. 굶어도 좋으니까 집에서 벗어나서 노숙자처럼 살아 보고 싶어요.”
(사례 16, 53세 여성)

“직장 부분은 걱정이 없어요. 가족들 생각하면 막막하죠. 총체적 난국인데, 엄마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것도 힘들고, 엄마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는 것도 힘들고, 남동생이랑 활동보조 선생님이랑 싸우고 그만 두셔서 새로 구하는데 그것도 안 구해져서 너무 힘들고. 구해지더라

도 활동보조인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다 막막해요.”(사례 17, 23세 여성)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례 29는 살면서 현재 상황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지만, “딱 2년 준비하고 안 되면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연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사례 29의 불안은 통제할 수 있고 일시적인 불안이다. 한편 위의 사례 16, 17, 21의 불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에 걸친 불안이며 그래서 더욱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참여자들이 현재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 선택에서 ‘답답하다, 화가 난다,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같은 분노 감정과 ‘괴롭다, 막막하다’ 같은 슬픔 감정을 표현한 것은 불안 요인을 통제할 수 없으며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정보적 도움, 역량 강화의 도움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지원을 뜻한다. 사회적 지지는 불안 완화와 해소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사회적 접촉과 연결의 기회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취약하다는 것은 불안 완화 및 해소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면접 조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기관에 대해 물었고, 여가활동,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 정도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제외하고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은 자활근로(사례 14, 15, 16, 21, 26), LH 전세금 지원

(사례 14, 15, 16, 21), 복지관(사례 17, 18, 20, 21), 대학 및 대학원 교수(사례 13, 17, 31, 36), 교회/성당(사례 20, 26, 35), 서울시 청년수당과 상담 프로그램(사례 19, 37), 은행(사례 5, 7, 10, 36), 동네 학원(사례 11, 31), 동사무소(사례 21), 읍사무소(사례 26), 행정복지센터(사례 32), 긴급 생활 지원(사례 26), 정신보건센터(사례 16), 다산콜센터(사례 16), 지역아동센터(사례 17), 가정폭력쉼터(사례 17), 상담센터(사례 36) 등이다. 사례 14, 15, 16, 17, 20, 21, 32, 35가 수급제도에 대해 언급했고 사례 17은 활동보조인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힘든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줄어들고(사례 16), 돈이 없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가 어렵고(사례 18), 수급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어 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사례 21). 그러나 경제적 형편은 그대로인데도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시기에는 불안이 감소하고 지낼 만하기도 했다(사례 18, 37).

“요즘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친정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힘들단 얘기 들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다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해요. 동생들이 잘 들어 주는데 좀 창피했어요. 언니 왜 그러고 살아? 그러는데 내가 바보같이 살았나 싶고. 이야기해 봐야 누워서 침 뱉기더라고요. 돌아서면 저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삭이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울다가 그래요.”(사례 16, 53세 여성)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당하고 집이 어려워서 학교 한 달 쉬고 인력사무소 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3학년 되면서 친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집안은 똑같이 힘든 상태인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지내니까 괜찮아졌어요. 근데 졸업하고는 못 봤어요. 엄청 만나자고 하는

데, 사실 지금 못 만나는 게 무기력한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힘이 빠져요.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돈이 없어서 개네가 많이 사 줬어요.”
(사례 18, 20세 여성)

“제가 아버지한테 집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되면서 내가 아버지 집도 없애 버렸고 엄마 집도 팔았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한테는 손을 내밀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도와 달라고 하면 오히려 욕 얻어먹죠. 내가 집구석 다 맡아먹었는데. 면목이 없어서 형님을 10년 동안 못 만났어요. 지금 사는 곳은 연고가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사례 21, 57세 남성)

사례 10은 한부모 아버지와 살았는데 “남자 셋이 사회활동을 다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있다든가 그런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접촉이 활발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살기가 수월하고 성공 기회도 많아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성실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나오는 거 같아요. 사회활동이 있고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잘나가고,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성이 적어서 사회랑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사례 31은 고3 수능을 앞두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다니던 학원을 그만뒀야 했다. 학원에 사정을 얘기했더니 돈을 내지 말고 다니라고 했다. “그 기억이 큰 의미로 남아있어서 나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했다.” 사회에서 관심과 보살핌을 받은 경험은 한 개인을 사회와 연결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든다.

다. 불안 대처

같은 수준의 불안이라도 청소년기처럼 상황에 대처할 자원과 능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언급이 자주 나왔다(사례 13, 23, 31, 37). 사례 31은 가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10대가 인생에서 가장 불안했다고 하면서, 불안 요인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청소년기의 불안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대에는 집안 사정이 갑자기 나빠져서 힘들었지만 가족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만 힘들면 말하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기 사건들이 제일 컸다기보다는 대처할 힘이 부족한 나이여서 타격을 많이 받아서 불안해졌던 거 같아요. 20대에도 경제적 기복이 있었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마음이 힘들면 친구를 불러내거나 가족에게 내 상황을 얘기하거나 그러면서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청소년기에는 그런 어려움을 누군가와 공유하면서 푸는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성인이 되면서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사례 31, 34세 여성)

사례 17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어머니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20대 구성원이지만 생활 만족이 높다. 기본적으로는 모녀 관계 소통이 원활하고 가족 기능이 양호하였다. 거기에 더해 다양한 사람들과 불안 경험을 공유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불안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불안감 완화를 위해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라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 태도 변화

가 일어났다. 이 사례는 사회적 관계망과 불안 대처의 관련, 불안 대처의 중요성을 보여 주며 대처 능력 학습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저는 정서적으로 힘들 때는 항상 처음 만난 사람이어도 다 얘기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친해지면 다 얘기했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다 얘기했고, 대학교 가서는 대학교 친구한테 다 얘기했고, 정서적으로는 남자 친구가 도움이 많이 돼요. 사소한 것까지 무조건 다 얘기하고. 그리고 혼자 소리 내서 평평 울고 나면 응어리들이 풀리는 느낌이라 후련하더라고요. 남동생은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한테만 무조건 올인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원래는 저도 동생 같았는데 변했어요. 사회복지 하는 주위 사람들하고 집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네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마인드가 바뀌어서 내가 콧바람을 좀 쐬고 와야 엄마한테 짜증도 안 내게 된다 그래요. 가정폭력센터를 통해 알게 된 교수님과 계속 통화하고 외할머니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셔서 저희 고생하니까 맛있는 것도 해 주세요요.”(사례 17, 23세 여성)

불안 대처는 참여자가 불안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참여자가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 참여자가 느끼는 불안이 대처 능력 부족과 관련이 있는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불안 대처는 불안 극복을 목표로 하는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 불안을 완화하려는 폭넓은 관리의 시도를 뜻한다. 불안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개인적인 불안 완화 방법 모색하기, 사적이거나 공적인 통로의 도움 청하기 등 능동적인 대처에서부터 불안의 회피, 인내, 수용 같은 수동적 대처까지 포함된다. 면접 조사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 때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2. 불안 경험 유형 분석

연구 참여자가 평가하는 불안 특성을 ‘구체적/추상적, 긍정적/부정적, 통제 불가능/통제 불확실/통제 가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와 불안 대처 수준을 양호/미흡/취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불안 경험 유형 분석 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불안 경험의 유형 분석

	불안 특성	사회적 지지	불안 대처
A유형	구체적/부정적/통제 불가능	취약	미흡
B유형	구체적/부정적/통제 불확실	양호	양호
C유형	추상적/부정+긍정/통제 가능	양호	미흡
D유형	추상적/긍정적/통제 불확실	양호	양호

가. A유형의 불안 경험

첫째,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낮은 A유형의 불안은 구체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불안 요인은 빈곤이다. 빈곤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살아오면서 경험한 좋은 것의 상실이나 나쁜 일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고통이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빈곤이 생활에 가하는 제약으로 인해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신질환 자녀, 가족의 괴롭힘과 언어폭력, 건강 악화, 실패감, 사회적 고립, 모녀 갈등 등의 요인은 경제적 위기에 정

서적 위기를 더하여 불안을 증폭한다. 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 통제되기 어렵다고 여긴다. 이들의 불안은 구체적이고 부정적이며 전면적이고 장기적이어서 피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 사례 35의 표현대로 수급자 생활은 ‘반 죽은 목숨으로’ 사는 생활이어서 통제감에 필요한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이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취약하였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느끼며 원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빈곤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수급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보적 도움이 절실한데,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와 복지관의 역량과 관심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도움 못지않게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충족되지 못하였다. 사적인 관계를 통한 정서적 지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 사례 18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어른인 엄마와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고 자신을 사회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대화 가능한 어른을 원했다. 사례 16은 수급 탈락에 대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수동적 대처를 주로 하였으며 불안 대처는 미흡하였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6명 중 사례 18의 대처 행동이 취약했고 사례 35는 능동적 대처를 주로 하였다. 나머지 사례는 주로 수동적 대처를 하였다. A유형 불안의 특성상 능동적 대처보다 수동적 대처가 더 많다.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는 반응 불안이어서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려는 능동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도 50대 수급자들의 불안 대처 능력은 취약한 수준은 아니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례 16은 치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보건센터에 찾아갔고 사례 21 역시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

나. B유형의 불안 경험

첫째, 불안이 중간이고 생활 만족이 높은 B유형의 불안은 구체적이며 부정적이다. 이들의 불안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희귀 난치성 질환 가족원(사례 17), 간호사 직장 괴롭힘 트라우마(사례 6), 조현병·지적장애가 있는 두 동생의 돌봄(사례 32) 등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불안 요인이 통제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지만, 이러한 불안 요인은 빈곤만큼 이들 생활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례 17은 정규직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사례 6은 퇴사 후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퇴사와 재취업을 오가며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고 있으며, 사례 32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돌봄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안 요인의 통제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다.

둘째, 이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양호하다. 사례 6은 도움을 청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사례 17과 32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느끼지 않는다. 사례 17은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복지관, 대학 학과 교수 등의 도움을 비롯하여 수급제도와 활동보조인제도의 도움을 받았다. 가족과 친구의 정서적 도움, 직장의 정보적 도움, 동료의 역량 강화 도움도 있었다. 사례 32는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며 지적장애 수급자 동생, 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과 살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물질적 도움, 정서적 도움, 정보적 도움, 역량 강화 도움 등 모든 도움을 받았다. 사례 32는 지적장애 동생이 병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눈에 띄게 사회성이 향상되고 자신과도 소통이 가능해지는 등 가족생활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도움은 동생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지만, 사회적 연결을 통한 시도가 변화와 개선을 가져온다고 깨닫게 되면서 본인의 역량도 강화되었다.

셋째, 이들의 불안 대처는 양호하다.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불안 요인이 상존함에도 생활 만족이 높은 것은 이들의 불안 대처가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사례 6과 17은 불안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개인적 불안 완화 방법 모색하기, 도움 청하기, 회피, 인내, 수용 등 다양한 불안 대처 행동을 실행하고 있었다. 두 사례 모두 어린 시절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 기능이 양호하여 이러한 경험이 자기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통점이 있다. 59세 남성인 사례 32는 불안 표현 공유를 제외한 불안 대처 행동을 실행하였다. 수동적 대처를 주로 하였던 사례 32는 치매 노모 간병을 계기로 행정 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하고 이후로는 능동적 대처를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활 만족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다. C유형의 불안 경험

C유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불안과 생활 수준이 모두 중간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고유한 특성이 적다. C유형의 참여자들은 취업 준비 그룹, 정착한 정규직 그룹, 미취업 기혼 여성으로 구분되는데, 취업 준비 그룹과 나머지 두 그룹은 전반적 생활 여건과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다음의 유형 분석에는 취업 준비 그룹과 나머지 그룹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첫째, 이들의 현재 불안은 막연한 불안이거나 일반화된 불안의 특성이 있으며, 과거의 경험보다는 미래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불안은 미래 불확실성, 안정적 직장 찾기, 인생 방향 혼란, 사회적 지위, 직장 업무, 자녀 교육, 재취업 등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불안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실과 어려움을 예측하여 생기는 예기적인 성격의 불안이다. 불안을 느끼는 상황의 개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안의 성격이 추상적이

고 보편적이다. 불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섞여 있었다. 자신의 불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참여자는 취업 준비 그룹의 사례 19, 36, 37이며 자살 충동 및 자살 미수 경험이 있었다. 미취업 기혼 여성 사례 34는 자녀 교육, 부동산 투자, 재취업과 관련된 불안이 있는데 자신의 불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례 13은 직장과 관련된 경제적 불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본가 지원과 관련된 부부 갈등 불안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의 불안은 미래 지향적 선택 가능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불안 요인의 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취업 준비 그룹 사례 19, 36, 37은 상담이라는 방식의 제3자 개입을 통해서만 불안 요인의 통제가 가능했다.

둘째, 이들의 현재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양호하다. 취업 준비 그룹 사례 19와 37의 경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나머지 경우보다 미흡하였다. 사례 19는 모든 상황을 지배하려는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약화되었고 사례 37은 취업 준비 시기에는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취업 후에는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서적 상호작용이 위축되어 있었다.

셋째, 이들의 불안 대처는 미흡하다. 세 그룹 중 취업 준비 그룹의 불안 대처가 가장 미흡하였다. 취업 준비 그룹에는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사례 10, 19, 27, 36, 37) 이들은 자신의 불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사례 10은 일상적 상호작용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면서 혼자 자랐다. 사례 19는 가족이 자신의 삶에 장애물이었다고 표현했다. 사례 36은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고 말했다. 사례 37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보다 부모의 고통을 먼저 배려하면서 살았다. 이러한 가족 경험은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불안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행동이 발달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착한 정규직 그룹 역시 불안 대처가 양호하지 않았다. 사례 9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전후 기혼자라는 조건과 관련이 있었다. 맞벌이 기혼 여성인 사례 24와 25는 현재 상황의 주요 감정을 ‘부담스럽다/피곤하다’고 하였고 이들의 불안은 직장 업무 및 가정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미취업 기혼 여성들 역시 불안 대처가 미흡하였는데, 이는 부부 관계 역학과 학부모 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라. D유형의 불안 경험

생활 만족과 불안이 모두 높은 D유형의 불안은 추상적이며 긍정적이다. 이들의 불안은 과거의 구체적 어려움이나 현재 당면한 구체적 과제와의 관련이 상대적으로 적다. 자유 추구로 인한 불안, 성취 추구로 인한 불안, 의미 추구로 인한 불안은 경제적 안정과 관련이 비교적 낮으며 네 유형 중 추상성이 가장 높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을 이해받지 못하거나 공유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느끼지만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의 불안은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가치 추구, 삶의 방향과 관련이 있으므로 통제가 불확실하고 장기적이다. 이들의 불안 대처와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양호하다.

3. 불안 경험 유형에 따른 요구와 과제

여기서는 불안 경험 유형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불안 경험 유형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각 유형의 현실을 요약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유형의 불안 경험은 ‘사는 게 불안하고 막막하다’, B유형은 ‘그 문제 말고는 대체로 만족스럽다’, C유형은 ‘걱정스럽고 피곤하다’, D유형은 ‘편안하고 감사한데 불안하다’ 등이다.

가. A유형: ‘사는 게 불안하고 막막하다’

첫째, 수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녀가 취업하여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바란다. 자녀들은 부모의 수급 유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이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사례 14, 15).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수급 탈피가 가능하도록 유예 조건과 기간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사례 21, 35).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복지행정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주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류 미비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사례 18).

둘째,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정신질환이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다. 하층과 빈곤층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율이 중간층 이상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반영된 결과이다. 정신질환이 사회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가족원의 고통과 인내에 기대어 있다면 언제든지 사회 문제화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관리 체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적절한 개입으로 불안이 낮아지고 생활 만족이 향상된 사례 32의 상황이 이런 필요성을 확인해 준다.

셋째, 수급자 한부모 남성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수급자 한부모 남성은 부양자 역할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돌봄과 양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 전도는 당사자에게 실패감과 부담감을 주며 이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위기가 심각하다(사례 21, 35). 이들의 위기는 가

족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빈곤 가족의 가족 기능 약화는 자녀들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사례 10, 11)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을 수급자가 아니라 학부모로 호명하여 부모 역할 지원 차원으로 접근하면 낙인감을 줄여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경제적 지원 이외에 사회적 연결을 회복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수급자인 사례 20이나 차상위계층인 사례 26의 경우를 보면, 경제적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사회적 지지 수준과 불안 대처가 양호하면 불안이 낮아지고 생활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장기간 고통받으면 불안 대처 능력이 약화된다. 사적인 관계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 회복이 필요하고 성인 학습과 평생 교육적 접근이 적합하다.

나. B유형: ‘그 문제 말고는 대체로 만족스럽다’

이들의 불안 요인은 가족 환경 및 사회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첫째, 사례 6의 경우 간호사 직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3교대 초과근무가 일상적이고 휴식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 교육은 업무 과중으로 다가오며 신규 간호사는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습 교육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호사 교육과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례 17의 경우 활동보조인제도의 현실화를 요구하였다. 활동보조인 휴게 시간과 활동보조 시간 제공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활동보조인 인력이 늘어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쉬면서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4시간 일하고 1시간 쉬면 1시간

동안은 환자가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돈으로 보상 하든가 1시간 일찍 퇴근시켜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동보조인 복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4시간 일했으니까 중간에 1시간 쉬어라 그러는데, 저희 엄마는 가래도 끼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이 우리 같은 케이스를 기피하고 저희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활동보조 시간 제공 기준이 까다로운데, 집에 20살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간병할 수 있다고 시간을 많이 안 줘요. 제가 독립해서 미성년자 남동생이랑 엄마가 둘이 산다고 하면 취약계층이 되어서 활동보조 시간을 500시간까지 주니까 제가 위장 전입을 했어요. 지금의 활동보조 시간 기준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20대 성인 자녀는 취직도 하지 말고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간병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엄마가 혼자 거주하거나 동생이 미성년자이면 시간을 늘려 준대요.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혼자 있다면 누가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시간을 주니까. 제가 봤을 때 심사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인 걸 알겠죠. 그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속여야 되니까 그게 참 난감해요.”

셋째, 사례 17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요구하였다. “동생이 탈수급을 못한 상황이고, 공적 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언제 완화가 될지 모르고. 제가 엄마와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둘을 책임지면서 내 인생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부양의무자여서 대학교 졸업하고 4년 동안은 자녀들 자립을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주니까 지금은 제 소득을 100%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엄마 수급비에도 영향을 미쳐요. 제가 더 좋은 자리로 가서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문제가 돼요. 제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엄마의 생계급여가 깎이니까 제가 엄마를 다 책임져야 되는데, 가족을 다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사는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 어중간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뭔가를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막막해요.”

다. C유형: ‘걱정스럽고 피곤하다’

첫째, 저소득층 취업 준비 그룹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청년수당과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청년수당 지원을 받은 사례 19와 37은 ‘몇 달만이라도 알바를 안 하고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층 가족 자녀의 경우(사례 19, 36, 37)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가 취업 준비 시기처럼 불안과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정서적 위기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례 37은 ‘청년수당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집안 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아픈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고 자기를 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런 태도가 취업 준비 실패로 인한 공황발작 상태를 몰고 온 것이었다. 자살 충동을 느끼다가 스스로 상담센터를 찾아간 사례 36에 따르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했는데 집단 상담을 하면서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유대감이 생겼다. 힘든 점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집단 내에서 지지도 받을 수 있어 편안하고 힘이 됐다’. 사례 36은 ‘상담 자체가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자기 얘기를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목소리를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와 자기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수도권에 거주하고 유치원 이상의 자녀가 있는 중하층 이상 가족

에서는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된 불안이 크게 나타났다(사례 7, 13, 34). 중간층 사례 13과 중하층 사례 34의 자녀 교육 문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경제적 안정 확보와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사회불안을 크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중하층 사례 7은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 현실, 과도한 사교육 속에 숨통으로 자리 잡은 게임 문화, 노골적인 사회적 지위 차별 문화 등으로 아이 키우는 것이 불안하다. 이들에게 자녀 교육 문제는 사회적 불안의 뇌관이다. 교육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며, 초기 학령기부터 고착되기 시작하는 사회적 지위 차별 문화를 완화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라. D유형: ‘편안하고 감사한데 불안하다’

첫째, 사례 4는 여성 안전과 여성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요구를 드러냈다. 사례 18은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단층형 사회불안 척도에서 사고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문항 ‘내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걱정된다’에서 7점 척도 중 대체로 그렇다(6점)와 매우 그렇다(7점)에 체크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20~30대였다(사례 4, 6, 19, 27, 28). 이는 20~30대 여성이 느끼는 안전 불안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둘째, 사회 구성원이 사회 정착 과정에서 느끼는 혼란과 불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자기 방식으로 살고 싶지만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한다든가, 자신의 성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든가, 직장의 처우와 문화가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만스럽다든가, 사회 구성원들은 자기가 정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

는다. 하지만 당장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은 사회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사례 31은 ‘대학원 생활에서 얻은 사회적 지지가 자기 인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큰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긍정적 경험이었다고 했다.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혼란과 불안에 대처하려면,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점점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지지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례 31은 ‘친구 관계보다 친밀도는 낮지만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모임이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서 감정적 위안과 만족감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4절 소결

1. 주요 분석 결과

가. 연구 참여자 특성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보다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불안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불안에 관한 기존 연구는 사회 문제와 불안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불안 경험을 중심에 둔다. 이 연구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불안 경험에 대한 탐색적이고 귀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불안을 통해 읽어 내야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현실과 요구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귀납적 연구를 통해 현장 이론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측정 가능한 주요 변수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면 사회적

불안에 관한 사회적 대응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 장의 분석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살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다고 느끼는지, 불안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누가 도와주는지, 사회관계와 사회 활동은 어떠한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며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등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참여자는 40명이며 예비 조사 대상자가 12명, 본조사 대상자가 28명이다.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연령, 성별, 주관적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취업 상황, 결혼 여부, 가족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면접 조사는 예비 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면접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감정 형용사 워크시트와 불안과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생 그래프 워크시트를 작성하면서 생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이루어졌고, 주요한 불안 경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불안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 사항을 파악하였다. 40명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내외 반구조화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명의 연구자가 면접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5-9>와 같다.

〈표 5-9〉 연구 참여자 특성

사례	연령	성별	주관적 소득계층	수급 여부	취업 형태	결혼 여부/가족 형태
1	35	남			대학원생	미혼/1인 가구
2	36	여			취업(정규직)	미혼
3	40	여			취업(정규직)	미혼/3인 가구
4	24	여	중간층		학생(아르바이트)	미혼/4인 가구
5	34	남	중하층		취업(정규직)	기혼/부부 가족
6	38	여	중하층		취업(정규직)	미혼/1인 가구
7	40	여	중하층		주부(아르바이트)	기혼/3인 가구
8	49	남	중하층		개인 사업자	기혼/3인 가구
9	34	여			취업(정규직)	미혼/4인 가구
10	29	남	중하층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미혼/1인 가구
11	22	남	중하층		학생(아르바이트)	미혼/한부모가족
12	28	여	중상층		대학원생	미혼/4인 가구
13	37	남	중간층		취업(정규직)	기혼/3인 가구
14	55	여	빈곤층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기혼/한부모가족
15	59	여	빈곤층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기혼/한부모가족
16	53	여	하층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기혼/4인 가구
17	23	여	중하층/하층	가족 수급	취업(정규직)	미혼/4인 가구
18	20	여	빈곤층		무업	미혼/한부모가족
19	27	여	하층		아르바이트	미혼/한부모가족
20	48	여	중하층	수급		기혼/한부모가족
21	57	남	빈곤층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미혼/한부모가족
22	43	여			프리랜서	미혼/4인 가구
23	50	여	중간층		미취업	기혼/4인 가구
24	43	여	중하층		취업(정규직)	기혼/4인 가구
25	25	여	중간층		취업(정규직)	기혼/4인 가구
26	45	여	중하층	차상위	자활근로	기혼/한부모가족
27	30	여	중간층		취업(계약직)	미혼/7인 가구
28	30	여	중간층		취업(계약직)	미혼/3인 가구
29	27	남	중간층		휴학(취업 준비)	미혼/4인 가구
30	31	남	중간층		취업(계약직)	미혼/4인 가구
31	34	여	중간층		대학원생	미혼/3인 가구
32	59	남	하층	수급	미취업	미혼/3인 가구
33	33	여	중간층		취업(정규직)	기혼/3인 가구
34	37	여	중하층		미취업	기혼/4인 가구
35	57	남	하층	수급		기혼/한부모가족
36	30	남	하층		아르바이트	미혼/1인 가구
37	27	남	중하층/하층		취업(정규직)	미혼/4인 가구
38	41	여			아르바이트	기혼/4인 가구
39	33	남		조건부 수급	취업 준비	미혼/1인 가구
40	81	여		수급		미혼/1인 가구

녹취 자료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초기 코딩에서는 원자료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쓸모 있거나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단위를 구분해 내고 문맥을 요약하면서 의미가 살아나도록 코드를 부여하였다. 코딩 과정을 통해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자료의 내용이나 의미를 개념화하여 원자료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었다. 심층 코딩에서는 비슷한 코드를 합치고 불필요한 코드는 삭제하면서 코드를 줄여 범주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범주화를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한편 맥락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사례 간 분석과 사례 내 분석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40명 중 관련 내용이 미비한 7명(사례 1~3, 사례 8, 사례 38~40)을 제외하고 3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에 따른 불안 경험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에 따른 불안 경험은 <표 5-10>과 같다.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을 10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상중하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33명 중 11명이 자신의 현재 불안 수준을 높게 표시하였고, 5명은 낮게 표시하였으며, 나머지 17명은 중간 정도로 표시하였다. 불안 수준이 높은 연구 참여자들은 생활 만족 수준에 따라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낮은 집단,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 불안과 생활 만족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불안 수준이 중간인 참여자들은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불안 수준이 낮은 참여자들은 모두 생활 만족이 높았다. 각 집단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의 특성(연령, 가족 형태, 소득활동, 주관적 소득계층 등)과 불안 경험을 살펴보면 <표 5-11>~<표 5-16>과 같다.

〈표 5-10〉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에 따른 불안 경험

		생활 만족		
		하 (6명)	중 (16명)	상 (11명)
불안	상 (11명)	사례 16(53,여) 사례 14(55,여) 사례 15(59,여) 사례 21(57,남) 사례 35(57,남) 사례 18(20,여)	사례 11(22,남) 사례 29(27,남)	사례 4(23,여) 사례 12(28,여) 사례 5(33,남)
	중 (17명)		사례 19(27,여) 사례 37(27,남) 사례 10(29,남) 사례 27(30,여) 사례 28(30,여) 사례 36(30,남) 사례 30(31,남) 사례 31(34,여) 사례 9(34,여) 사례 13(37,남) 사례 24(43,여) 사례 25(39,여) 사례 34(37,여) 사례 7(40,여)	사례 17(23,여) 사례 6(37,여) 사례 32(59,남)
	하 (5명)			사례 26(45,여) 사례 20(48,여) 사례 33(33,여) 사례 22(43,여) 사례 23(50,여)

〈표 5-11〉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낮은 집단의 특징

구분	수급자 유배우 여성	수급자 한부모 여성	수급자 한부모 남성	복지 사각지대 한부모가족 자녀
사례	사례 16	사례 14, 사례 15	사례 21, 사례 35	사례 18
연령	50대 초반	50대 중후반	50대 후반	20세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빈곤층	빈곤층	빈곤층
불안 내용	빈곤 정신질환 자녀 괴롭힘과 언어폭력	빈곤 건강 악화	빈곤 실패감 사회적 고립	빈곤 모녀 갈등

〈표 5-12〉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의 특징

	사례 11	사례 29
연령	20대 초반	20대 후반
가족 형태	한부모 아버지 3인 가구	부모와 거주
소득활동	파트타임직 대학생	없음
주관적 소득계층	중하층	중간층
불안 내용	생계유지, 취업	공무원 시험 준비

〈표 5-13〉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도 높은 집단의 특징

	자유 추구+높은 불안	성취 추구+높은 불안	의미 추구+높은 불안
연령	사례 4 20대 초반	사례 12 20대 후반	사례 5 30대 초반
가족 형태	부모와 거주	부모와 거주	부부 가구
소득활동	파트타임직 대학생	없음	정규직
주관적 소득계층	중간층	중상층	중하층
불안 내용	생활비, 취업 준비 자유 침해, 여성 안전	성취 불안	가치 불안 사회적 지위 불안

〈표 5-14〉 불안과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의 특성

구분	취업 준비 그룹	정착한 정규직 그룹	미취업 기혼 여성 그룹
사례	사례 10, 사례 19, 사례 27, 사례 28, 사례 30, 사례 31, 사례 36, 사례 37(8명)	사례 9, 사례 13, 사례 24, 사례 25(4명)	사례 7, 사례 34(2명)
연령	30세 전후	30대 중반~40대 초반	40세 전후
가족 형태	1인 가구(사례 10, 사례 36) 한부모가족(사례 19) 나머지는 부모와 거주	사례 9는 부모와 거주 나머지는 기혼 독립 가구	기혼 독립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중간층~하층	중간층~중하층	중하층
불안 내용	미래 불확실성 안정적 직장 찾기 인생 방향 혼란	사회적 지위 불안 중간층 소득 유지하기 업무 과다 역할 과중 업무 불안	자녀 교육 갈등 재취업

〈표 5-15〉 불안이 중간이고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의 특징

구분	돌봄 필요 가족원이 있는 경우	직장 업무 불안이 있는 경우
사례	사례 17, 사례 32	사례 6
연령	사례 17(23세 여성), 사례 32(59세 남성)	37세 여성
가족 형태	사례 17(한부모 3인 가구), 사례 32(미혼 형제 3인 가구)	1인 가구
소득활동	사례 17(정규직), 사례 32(없음)	정규직
주관적 소득계층	사례 17(중하층), 사례 32(하층)	중하층
불안 내용	간병, 가족 돌봄	직장 업무 트라우마

〈표 5-16〉 불안이 낮고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의 특징

	전반적 안정 그룹	전략적 안정 그룹
연령	사례 33(33세 여성) 사례 22(43세 여성) 사례 23(50세 여성)	사례 26(45세 여성) 사례 20(48세 여성)
가족 형태	사례 33 사례 23(기혼 여성) 사례 22(미혼 여성)	한부모 여성
소득활동	사례 33(정규직) 사례 23(없음) 사례 22(프리랜서)	차상위계층, 수급자
주관적 소득계층	중간층	중하층

다. 불안 경험의 영향 요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도출된 불안 경험 유형은 〈표 5-17〉의 A유형(고불안 저만족), B유형(고만족 중불안), C유형(중불안 중만족), D유형(고만족 고불안)의 네 가지이다. 참여자들의 불안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불안 특성, 사회적 지지, 불안 대처 등 세 가지가 발견되었다. 불안 특성은 참여자가 평가하는 불안의 특성을 말하는데, 참여자가 느끼는 불안이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 불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등이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지원을 뜻한다. 불안 대처는 참여자가 자신의 불안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뜻한다.

〈표 5-17〉 불안 경험 유형

		생활 만족		
		하	중	상
불안	상	A유형		D유형
	중		C유형	B유형
	하			

1) 불안 특성

불안 특성은 연구 참여자가 느끼는 불안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파악된 불안 특성은 그들이 느끼는 불안이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 불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불안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등이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특성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불안의 구체성과 막연함에 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였고 이러한 불안의 특성이 생활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2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은 과거의 좋지 않은 경험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미래의 좋은 일에 관련된 막연한 불안이라고 했고, 사례 18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은 경험해 보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는 막연한 불안은 아니라고 했다. 구체성이 높은 불안은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반응 불안이고, 구체성이 낮은 불안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염려해서 느끼는 예견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2의 예견 불안은 생활 만족과 공존할 수 있지만, 사례 18의 반응 불안은 아동학대, 고

등학교 시절의 공장 노동, 생활비 부족, 공과금 체납 등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불안이어서 생활 만족과 공존하기 어려운 종류의 불안이다. 구체적인 불안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의 개별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사례 32)는 말이 해당되는 그런 종류의 불안이다.

둘째, 면접 조사에서 참여자가 느끼는 불안의 효과를 질문하였다. 사례 27은 어느 정도의 불안은 발전의 동력이 되고 다른 관점을 고려해 보는 기회가 되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33명 중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효과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참여자는 10명이었다. 이 중 8명이 자살 충동, 자살 미수, 자살 시도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불가피성과 전면성에 대해 표현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통제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불안의 특성은 생활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함(사례 21),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숨 막힘(사례 16), 인생이 막막한 총체적 난국(사례 17)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을 피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불안이 자신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례 29는 살면서 현재 상황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지만, “딱 2년 준비하고 안 되면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연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불안은 통제할 수 있고 일시적인 불안이다. 한편 위의 사례 16, 17, 21의 불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에 걸친 불안이며 그래서 더욱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참여자들이 현재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 선택에서 ‘답답하다, 화가 난다,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같은 분노 감정과 ‘괴롭다, 막막하다’ 같은 슬픔 감정을 표현한 것은 불안 요인을 통제할 수 없으며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지원을 말한다. 지지는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정보적 도움, 역량 강화의 도움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지원을 뜻한다. 사회적 지지는 불안 완화와 해소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사회적 접촉과 연결의 기회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취약하다는 것은 불안 완화 및 해소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면접 조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기관에 대해 물었고, 여가활동,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 정도도 확인하였다.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양호, 미흡, 취약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이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제외하고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은 자활근로, LH 전세금 지원, 복지관, 대학 및 대학원 교수, 교회/성당, 서울시 청년수당과 상담 프로그램, 은행, 동네 학원, 동사무소,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긴급 생활 지원, 정신보건센터, 다산콜센터,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쉼터, 상담센터 등이다. 수급제도와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힘든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줄어들고(사례 16), 돈이 없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가 어렵고(사례 18), 수급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어 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사례 21). 그러나 경제적 형편은 그대로인데도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시기에는 불안이 감소하고 지낼 만했다(사례 18, 37). 사례 10은 한 부모 아버지와 살았는데 “남자 셋이 사회 활동을 다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있다든가 그런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사회 활동이나 사회적 접촉이 활발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살기가 수

월하고 성공 기회도 많아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사례 31은 고3 수능을 앞두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다니던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 학원에 사정을 얘기했더니 돈을 내지 말고 다니라고 했다. “그 기억이 큰 의미로 남아 있어서 나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했다.” 사회에서 관심과 보살핌을 받은 경험은 한 개인을 사회와 연결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었다.

3) 불안 대처

같은 수준의 불안이라도 청소년기처럼 상황에 대처할 자원과 능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언급이 자주 나왔다. 사례 31은 가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10대가 인생에서 가장 불안했다고 하면서, 불안 요인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청소년기의 불안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대에는 집안 사정이 갑자기 나빠져서 힘들었지만 가족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청소년기 사건들이 제일 컸다기보다는 대처할 힘이 부족한 나이여서 타격을 많이 받아서 불안해졌던 거 같아요. 20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마음이 힘들면 친구를 불러내거나 가족에게 내 상황을 얘기하거나 그러면서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불안 대처는 참여자가 불안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참여자가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 참여자가 느끼는 불안이 대처 능력 부족과 관련이 있는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불안 대처는 불안 극복을 목표로 하는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 불안을 완화하려는 폭넓은 불안 관리의 시도를 뜻한다. 불안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개인적인 불안 완화 방법 모

색하기, 사적이거나 공적인 통로의 도움 청하기 등 능동적인 대처에서부터 불안의 회피, 인내, 수용 같은 수동적 대처까지 포함된다. 면접 조사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 때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참여자의 불안 대처 능력을 양호, 미흡, 취약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라. 불안 경험 유형과 유형별 과제

연구 참여자가 평가하는 불안 특성을 ‘구체적/추상적, 긍정적/부정적, 통제 불가능/통제 불확실/통제 가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불안 대처와 사회적 지지 수준을 양호/미흡/취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불안 경험 유형 분석 결과는 <표 5-18>과 같다.

<표 5-18> 불안 경험의 유형 분석

	불안 특성	사회적 지지	불안 대처
A유형	구체적/부정적/통제 불가능	취약	미흡
B유형	구체적/부정적/통제 불확실	양호	양호
C유형	추상적/부정+긍정/통제 가능	양호	미흡
D유형	추상적/긍정적/통제 불확실	양호	양호

1) A유형의 불안 경험

첫째, 이들의 공통적인 불안 요인은 빈곤이며,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살아오면서 경험한 좋은 것의 상실이나 나쁜 일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고통이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 통제되기 어렵다고 여긴다. 이들의 불안은 구체적

이고 부정적이며 전면적이고 장기적이어서 피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 둘째, 이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취약하였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느끼며 원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수동적 대처를 주로 하였으며 불안 대처는 미흡하였다. 이들의 불안은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된 반응 불안이어서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려는 능동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2) B유형의 불안 경험

첫째, 이들의 불안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희귀 난치성 질환 가족원(사례 17), 간호사 직장 괴롭힘 트라우마(사례 6), 조현병·지적장애가 있는 두 동생의 돌봄(사례 32) 등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불안 요인이 통제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지만, 이러한 불안 요인은 빈곤만큼 이들 생활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불안 요인의 통제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다. 둘째, 이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양호하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느껴 본 적이 없다. 셋째, 이들의 불안 대처는 양호하다.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불안 요인이 상존함에도 생활 만족이 높은 것은 이들의 불안 대처가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3) C유형의 불안 경험

C유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불안과 생활 수준이 모두 중간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고유한 특성이 적다. C유형의 참여자들은 취업 준비 그

룹, 정착한 정규직 그룹, 미취업 기혼 여성으로 구분되는데, 취업 준비 그룹과 나머지 두 그룹은 전반적 생활 여건과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다음의 유형 분석에는 취업 준비 그룹과 나머지 그룹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첫째, 이들의 불안은 미래 불확실성, 안정적 직장 찾기, 인생 방향 혼란, 사회적 지위, 직장 업무, 자녀 교육, 재취업 등과 관련이 있으며, 막연하고 일반화된 불안의 성격이 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상실과 어려움을 예측하여 생기는 예기적 불안이며, 불안을 느끼는 상황의 개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안의 성격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다. 불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섞여 있었다. 이들의 불안은 미래 지향적 선택 가능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불안 요인의 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취업 준비 그룹 사례 19, 36, 37의 경우 상담이라는 방식의 제3자 개입을 통해서만 불안 요인의 통제가 가능했다. 둘째, 이들의 현재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양호하다. 셋째, 이들의 불안 대처는 미흡하다. 세 그룹 중 취업 준비 그룹의 불안 대처가 가장 미흡하였다. 정착한 정규직 그룹 역시 불안 대처가 양호하지 않았다. 사례 9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전후 기혼자라는 조건과 관련이 있었다. 미취업 기혼 여성들 역시 불안 대처가 미흡하였는데, 이는 부부 관계 역학과 학부모 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4) D유형의 불안 경험

생활 만족과 불안이 모두 높은 D유형의 불안은 추상적이며 긍정적이다. 이들의 불안은 과거의 구체적 어려움이나 현재 당면한 구체적 과제와의 관련이 상대적으로 적다. 자유 추구로 인한 불안, 성취 추구로 인한 불안, 의미 추구로 인한 불안은 경제적 안정과 관련이 비교적 낮으며 네 유

형 중 추상성이 가장 높다. 이들의 불안은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가치 추구, 삶의 방향과 관련이 있으므로 통제가 불확실하고 장기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을 이해받지 못하거나 공유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느끼지만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의 사회적 지지와 불안 대처 수준은 양호하다.

불안 경험의 유형별로 필요한 대응과 과제가 상이하다. A유형은 상황을 요약하면 ‘사는 게 불안하고 막막하다’이다. 이 유형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의 확충이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탈피 유예 조건과 기간 현실화, 복지 행정 담당자의 재량권 인정 등 수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관리 체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수급자 한부모 남성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을 수급자가 아니라 학부모로 호명하여 부모 역할 지원 차원으로 접근하면 낙인감을 줄여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경제적 지원 이외에 불안 대처와 사회적 지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연결을 회복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B유형의 상황은 ‘그 문제 말고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유형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대체로 특정 문제에 대한 대응인데 예를 들어 돌봄 부담이 큰 가구들을 대상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연구 참여자 중 간호사는 3교대 초과근무가 일상적이고 휴식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 교육은 업무 과중이 크지만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습 교육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꼈다. 적지 않은 참여자가 취업 이후 직무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였고 직무 수행 중 불공정을 경험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C유형은 ‘걱정스럽고 피곤하다’로 요약된다.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속에서 참여자들은 불안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불안에 상이하게 대처하는데 대처가 양호한 집단 외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대응을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 집단에 대해서는 첫째, 정신건강 지원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불안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 교육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며, 초기 학령기부터 고착되기 시작하는 사회적 지위 차별 문화를 완화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D유형은 ‘편안하고 감사한데 불안하다’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삶에 대한 자유의 부족으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이 집단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삶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이 다양하여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안전한 사회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즉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여성 안전,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중심 수사와 엄격한 처벌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야 한다.

2. 분석 결과의 함의

이 장의 분석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의 불안 경험은 빈곤, 취업, 사회적 지위, 특정한 가족 및 사회 환경 요인, 개인적 가치 추구 등과 관련이 있었다. 자신의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빈곤층이라고 평가한 저소득층은 빈곤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느껴 무기력하고 답답하며 화가 나 있었다. 20~30대 취업 준비 청년층은 미래 불확실, 안정적 직장, 인생의 방향 등과 관련

된 불안이 크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성장기 불안 경험의 연장선에서 취업 불안을 경험하고 있어 심리적 압박과 위기감이 크다. 이들의 불안 수준은 취업 준비 기간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30대 전후 시기를 최고점으로 완화되었다. 수도권 중하층~중간층은 자녀 교육과 소득 확보(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등과 관련된 사회적 지위 불안이 컸다. 부의 대물림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가족원의 난치성 질환, 정신질환, 장애, 본인의 직장 업무 트라우마 등 특정한 요인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는 집단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자 하는 지향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준거 집단과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데서 불안감을 느낀다. 불안의 크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빈곤이나 가치 추구로 인한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살면서 불안했던 기억에 대해 물었다. 관련 정보가 있는 29명 중에서 9명이 발병이나 사망 등 가족원의 사건·사고, 6명이 가족 경제 파산, 6명이 취업 관련 경험, 4명이 가족 해체, 3명이 생활비 부족을 언급하였으며 1명은 그렇게 불안했던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불안했던 기억이 있다고 언급한 28명 중 가족원의 사건·사고, 가족 경제 파산, 가족 해체 등 가족으로 인한 불안 언급이 19명, 취업 관련 불안 언급이 6명,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불안 언급이 3명이었다. 다시 말하면 살면서 가장 불안했던 기억은 가족, 취업, 생활고와 관련이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살면서 행복했던 기억에 대해 물었다. 관련 정보가 있는 28명 중 행복했던 기억으로 가족 관련 경험을 언급한 경우가 15명이었다. 이들 중 4명이 자녀에 대해 언급했고, 4명이 '가족이 함께 밥 먹던 어

느 날'을 떠올렸으며, 3명이 결혼과 출산을 행복한 기억으로 말했다. 28명 중 11명이 청소년기 동아리 활동, 청소년기 친구 관계, 해외 인턴 경험, 대학 합격, 진로 선택, 20대의 좌충우돌, 국내외 여행, 연애, 취업 등 개인적 경험을 행복했던 기억으로 떠올렸다. 2명은 행복했던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이 살면서 느꼈던 불안감과 행복감은 상당 부분 가족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살면서 불안감을 유발한 요인이 가족, 취업, 생활고 등 세 가지로 집약되었던 반면에 행복감을 느끼게 만든 계기는 더 다양했다.

이 연구에서는 불안과 생활 만족의 관계가 단일하지 않았다. 불안과 생활 만족은 한 차원의 양극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으로 밝혀졌다. 불안과 생활 만족이 모두 높은 유형,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불안 요인이 있지만 생활 만족이 높은 유형,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생활 만족이 높은 사례 등은 불안 경험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불안과 생활 만족이 서로 다른 차원이며 불안 경험은 인간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은, 행복-불행 프레임 이외에 성장-멈춤, 포용-배제, 자율-의존 등 인생의 다른 프레임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행복은 불행이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성장, 포용, 자율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복의 기본 요건인 경제적 안정 확충 이외에도 성장을 통한 자기 역량 강화, 포용을 통한 더불어 살기, 자율을 통한 스스로 살기의 가치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성장, 포용, 자율이 가능해지면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요구와 기대, 경제적 안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후속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유형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C유형(불안과 생활 만족이 모두 중간인 집단) 취업 준비 그룹의 사례 19, 36, 37의 몇 년 전 상황은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중간인 집단에 해당되었다. 어려운 형편에 취업 준비를 하고 이들의 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의 압박감은 더욱 심했다. 사례 19와 36은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사례 37은 취업을 통해 불안 수준이 완화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 사례 모두 20대 중후반 시기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에 모든 것을 바쳐 예기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중하층~하층 청년들의 20대 중후반은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시기이다. 33세 정규직 기혼 남성인 사례 5는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였을 때보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이 훨씬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시험에 실패해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데 준비를 하는 동안의 압박감은 죽음 앞에 선 것처럼 위태로웠다고 했다. 사례 19의 경험 역시 마찬가지였다. 30세 전후가 되면 사회생활 경험도 늘어나고 대처 능력도 향상되어 취업 준비 초반과 같은 위기는 감소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하층~하층 취업 준비 청년의 불안 경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장의 분석에서는 연령에 따른 불안 경험을 분석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대처 능력과 불안 경험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청소년기 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떻게 정서적 어려움으로 변화되고 심리적 위기가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상황 파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되어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부모는 위기를 인지하지 못했고 학교 역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차별 경험을 유발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

면 교육복지 차원에서 청소년기 학교를 통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므로 생애 주기에 따른 대처 능력과 불안 경험에 대한 회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대한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교육복지 차원의 후속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생활 만족과 불안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생활 만족과 불안이 모두 높은 유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자유, 성취, 의미를 중시하면서 고통의 감소보다는 성장을 추구한다. 이들은 자기 역량을 강화하여 자기 자신으로 사는 데 관심이 있으며,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고 보호되기를 바란다.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가치와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 중 두 명이 예비 조사 참여자여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유형 해당자는 20~30대 초반으로 나타나는데 이 유형의 경험이 생애 주기상의 일시적 현상인지 새로운 현상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생활 만족이 낮지 않으나 불안한 집단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 불안이 소득 하위 집단에 한정된 경험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제적 지원 외 사회가 고려할 과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제 6 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 2: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불안의 요소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불안 유형

제3절 불안의 기저 원인

제4절 불안의 대처·대응

제5절 소결: 사회적 불안의 구조

6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 2: <<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불안의 요소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앞 장과 달리 질적 연구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연구의 핵심 질문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경험하는 불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불안을 경험하는 원인, 관련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Atlas.ti 8 버전을 활용하였다. Atlas.ti는 독일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는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로, 텍스트 문서뿐만 아니라 그래픽, 오디오 및 시각적 데이터 파일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주제와 관련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색하고 시각적으로 각 코드를 유형화할 수 있도록 한다(Creswell, 2013). 본 소프트웨어는 한글 버전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연구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녹취록과 같이 방대한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김영천, 김진희, 2008). 또한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는 쉽게 코딩(coding)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network) 형성이 가능해, 분석한 코딩을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영천, 김진희, 2008, p. 8). 따라서 본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해당 분석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40개의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며, 코딩과 추출 그리고 메모 기능

을 활용하여 1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총 593개의 코드가 추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분석에서는 복잡한 코드의 개념적 관계를 수직, 수평적으로 그려 내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3차 분석에서는 시각적으로 구현된 네트워크상에서 코드 첨가, 삭제, 이동, 통합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각각의 코드, 범주, 하위 주제들이 재조정되기도 하였다. 4차 분석에서는 공동 연구자와의 회의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과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제2절 불안 유형

1. 노동시장 문제

가. 고용 불안정성

연구 참여자들 중 특히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서 두드러졌다. 비록 정규직에 종사한다 하여도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시대에서 정규직인 청년들조차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이제 저도 아직 직장을 제대로 다니는 게 아니어 가지고 알바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직장도 그렇고.”(사례 38)

“근데 저는 계약직이 아니긴 한데. 그래서 그 다른 팀원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솔직히 정

규직도 사유는 갖다 붙이면은 해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발로 나가는 거 아니어도 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사례 37)

나. 업무 환경

직장에 종사하는 경우 본인의 업무 환경에서도 불안을 느끼곤 하였다. 신입 시절 익숙지 않은 업무로 인해, 아니면 업무 실수로 인해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다. 또한 회사 소유주의 갑질과 비뚤어진 주인의식 탓에 직장에서도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기도 하였다.

“뭐 최근으로 보면은… 이제 뭐… 뭐라고 해야 하지. 이게 뭐 업무적으로 뭐를 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실수해서 이제 민원인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럴… 그럴 때 이제 아 큰일 났다 그런 불안. 예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사례 30)

“음, 다 이것도 다 거기에선데. 사장이 엄청난 갑질의 소유자였어요. 항상 직원들을 ‘야, 너’로 부르고. 그리고 자기 회사다 보니까 모든 수익이 나면 자기의 이득이 되는. 뭐 비품 하나 아껴 써야 되고, … 아껴야 된다고. 그러면서, 비품을 하나 새로 꺼낸 직원한테 엄청 면박을 주는 거죠. 그게 갑질이었던 거 같아요. 자기가 이 가게 주인, 이런 식의.”(사례 5)

다. 취업난

청년들은 고용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심각한 취업난으로 힘들어하였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힘든 환경에 놓인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가 실로 어려웠다.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 감당하기 힘들게 되거나, 지자체의 규정 변경으로 인해 구청에서 제공하는 취업패키지를 더 이상 무료로 이용하기 힘들게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당분간 연기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돈이 되게, 돈돈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돈에 되게 예민하고… 그래서 경찰 공부를 하면서도, 돈이 계속 나가니까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아끼면서 더 공부를 할 수 있을까.”(사례 19)

흥미로운 점은, 연구 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고용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진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시간을 투자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는 등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아 급격한 자신감 하락을 경험하였고, 심지어는 우울증을 앓기도 하였다.

“그… 준비해야 되는 기간에서 오는 압박이 되게 큰 거 같아요. 이만큼 한 몇 년을 걸치는 기간에 하루 종일 앉아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교 진학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다 보니까, 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대학교 전보다 훨씬. 그래서 그런 걱정이 더 큰 거 같아요. 훨씬, 상대적으로.”(사례 11)

“시험 준비를 3년을 하다가, 그것 땀에 불안한 것도 좀 생기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우울이 좀 돼 가지고.”(사례 19)

2. 경제적 문제

가. 어려운 경제적 자립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는 위기에 처하거나 학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본인의 월급이 모두 생활비, 월세 혹은 빚을 갚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구조에서 청년들이 저축을 하거나 비상금을 모으는 것은 꿈꾸기 힘들었다.

“(연구자: 비상금이 전혀 없는?) 네. (연구자: 그래서 한 달 받으면 쓰고, 한 달 받으면 쓰고.) 네, 그렇죠 그렇죠.”(사례 10)

“예. 겨울에… 이제 집에 가는데, 휴대폰 미납 문자가 와서… 휴대폰이 정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문자까지 받는구나. 이 휴대폰 정지되면은 활동도 못 하고 받는 것도 못 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해결하려고. 막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

고… 돈 좀 빌려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례 36)

한편 중장년층의 경우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본인의 회사 부도, 사 이비 종교에 빠진 아내 등으로 인하여 전 재산을 크게 잃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는 이들의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재기하려고 노력을 하여도, 노화 및 건강 문제 때문에 소일거리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후 자금은 충분히 준비되고 있지 못하였다.

“50대 초반에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음…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가 또 그 XX동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가 되어 버렸어요.”(사례 15)

“오늘 월급 받아서 돈 주면 내일 용돈이 깡통에… 돈을 빼려면 돈이 없어요, 돈이. 200만 원이 하루 사이에 다 나가 버리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단에 빠져 가지고…”(사례 35)

“네. 과거… 빚이 한, 한 7~8년 전서부터 이제 빚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서, 그거를 이제 다 갚아가지가 않네요. 빨리 이제 빨리 갚고서 이제 저축을 한다든가 이제 이러면서 여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노후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뭐 빚을 다 갚아 내지를 못하는데, 노후는 젼장, 이런 느낌 때문에 요즘 상당히 불안해요.”(사례 8)

나. 주거 문제

주거 문제는 특히 청년층과 빈곤층에서 두드러졌다. 청년들은 월세가 밀리거나, 집주인이 집 상태를 이유로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빈곤층의 경우 자녀의 취직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면 공공 조직에서 제공한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을 알고 불안해하였다.

“이삿짐 싸고, 짐 정리하고 방 빼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막 뭐… 벽지가 어떻게 됐네 이러면서 돈을 막 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카드값이나 그런 돈 쓸 일도 많고 그런데… 내가 50만 원을 지금 쥐 버리면은 카드값도 연체되고 대출금도 연체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불안했었어요. 그게 한… 한 달쯤 전? 네.”(사례 36)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여기 지금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그나마 여기 와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도 걱정, 눈만 떠도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LH 집에서 사는데, 어… 애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취직을 하게 되면 졸업하고, 이 집을 빼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막… (불안한) 생각에 너무 힘들어요.”(사례 15)

3. 건강 및 안전 문제

가. 건강 문제

건강 문제 역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불안 중 하나였다. 동생의 다리 수술, 어머니의 루게릭병 및 조현병, 남편의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우울증, 동생의 지체장애 등은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매일 감내해야 하는 불안이었다.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시다 했잖아요. 엄마가 갱년기랑 그런 것도, 다 혈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에 그런 것까지 겹치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맨날 저랑 말도 안 통하는데 화만 내면, 저한테만 짜증을 내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다 대고 또 뭐라 할 수도 없고.”(사례 18)

“눈이 계속, 뭐가 보인다. 병원 가시라고 얘기했는데, 병원 갈 돈으로 그냥 아끼시다가... 어머니가 어제 갑자기 눈 떴는데 앞이 안 보이신다 그래서 병원 갔는데 정확한 진단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태까지 안 오셨냐고. 그래서 지금도 잘 안 보이세요. 눈앞에 하얀 게 계속 보이신대요.”(사례 37)

나. 안전 문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여성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였다.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자녀가 딸이라서, 안전 문제에 많이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이들의 불안감은 그 외 주거 유형에 사는 이들보다 매우 컸다.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룸에서 살다 보니까 창문만 열어도 남의 집이 훤히 보이는 (연구자: 보여?) 그러니까 서로 문을 닫고 지내죠. 맞은편 집들도 그렇고, 우리 집들도 창문을 다 닫고 지낼 정도로 앞이 가깝고, 또 요즘 뉴스도 사건·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전한 이사 계획도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사례 5)

“딸들이다 보니까, 내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은, 묻지마 이런 것들, 성폭행 이런 것들은 내가 해 줄 수가 없는, 이렇게 애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애를 믿어야 하는데. 요즘은 뭐 애만 잘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은, 약간 무서워요. 저는 그제. 딸을 키우기도 하니까. 뭐 학교에서도 남자 애들도 많이 이제 그러고 하니까.”(사례 34)

4. 가족 문제

가. 가족 갈등

연구 참여자들은 엄마, 형제자매 혹은 시댁과 다양한 가족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딸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딸의 역할을 하는 데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항

상 그 기대와 역할을 충족시킬 수 없어, 많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불편했던 거 또 있죠. 한국만의 시월드. 하나 또 있는 게 그거예요. (연구자: 그래도 이사 가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독립해서?) 좀 나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보다는 훨씬 덜 하죠.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벗어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매달 오시잖아요. 다음 주에도 또 오시거든요.”(사례 6)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거짓말이라는 거를 안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나서 들켰을 때에 엄마가 분노하는 모습이랑, 막. 뭐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죄책감도 느끼고, 그 게 두려웠어요.”(사례 19)

나. 가족관계의 단절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혹은 사춘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혹은 조부모 손에서 자라면서 가족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혹은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생활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자,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놓쳐 부모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단절되기도 하였다.

“네. 저는 일단 기억이 나는 거는 뭐, 완전 5살 막 이럴 때니까. 계속 할머니 손에서 큰 거나 다름없었어요. 엄마는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신 거였어서, 거의 아침 일찍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는.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사례 19)

“네 그때는 저만 생각해서 막 무작정 그런 거를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뭐 미워했던 그런 거는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부담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거마저도 막 그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서 못 챙겨 줬던 부분을 저희는, 저는… 아, 아버지가 우리를 별로 안 챙겨 주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이가 더 안 좋았던 것도 있던 거 같아요. 아버지랑. 저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례 11)

제3절 불안의 기저 원인

1. 국내외 경기 상황

국내외 경기 상황은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경기 상황이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도 하고 또는 당장은 영향이 없더라도 그 영향이 조만간 도래할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는 모두 참여자들이 현재 그 영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고 이 영향이 생활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결국 경기의 영향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국의 경기 상황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비록 현재에는 본인의 일선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웃 나라인 중국의 기술력 발전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종사하는 직종에 큰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종종 엄습하기도 하였다.

“그거는 지금의 상황이고, 앞으로는 계속 현 상황이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3년 정도만 해도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차량이 판매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판매량 자체도 많이 준 편이고, 그만큼 이제 중국에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장담을 못 하는 거죠.”(사례 13)

인터뷰 중 IMF 경제위기 또한 심심치 않게 불안의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한국은 1997년 12월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직장에서 해고된 이들은 노숙자로 전락하여 많은 가정이 붕괴되는 등 참혹한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당시 청년이던 중장년층은 본인의 학업, 진로 및 경제활동에서 큰 시련을 경험하였다. 물론 인터뷰 당시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위기로 겪은 어려움을 상당수 극복하였지만, 이를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혹은 이때 상흔이 아직 극복되지 못해 현재의 불안으로 지속되기도 하였다.

“네 이제 그때가 이제 IMF, 제가 고등학교 처음 1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때가 이제 IMF 왔을 때였는데, 97년도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실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학교.”(사례 13)

2. 한국 특유의 문화

가. 남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

한국 사회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 역시 불안의 한 원인으로 꼽혔다. 흥미로운 점은 장년층들보다 오히려 청년들 사이에서 주위 친구 및 동료들을 의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 후 하나둘 사회에 진출해 직업을 갖고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현재 상황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위 친구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하나둘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며, 인생 과업으로 여겨지는 결혼을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예전에는 사람을 비교를 잘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들어 사람을 비교하는 거 같아요. 저와 다른 사람을. 근데 그, 거기서 불안이 시작되는 거 같아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불안이나 고민들은, 예전에는 친구가 잘되면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애가 열심히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근데 요즘은 어… 막 결혼해서 애기 낳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을 그냥 분리시켜서 못 보고, 그 친구들이랑 저를 이렇게 세워 놓고 제가 보게 되는 거 같아요.”(사례 9)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첫 직장 들어가기 전 그 시기가, 그 시기에도 불안했고. 또… 직장, 그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나

오고 나서, 지금까지 쭉. 지금까지 쭉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제 계속 인턴에서 뭐… 8급 되고, 7급 되고 막 승진하는데. 승진하고 자리 잡아 가는데… 전 약간 계속 허우적대는 느낌이라서… 시작을 잘못했나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사례 36)

나. 직업의 귀천 의식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의 귀천 의식 역시 불안의 한 요인이었다. 아직도 유교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직업이 단지 개인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현재 직업에 자부심이 있을지라도,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직업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그냥 이제 대학 때 있었던 친구들의 어떤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사회적 위치나 처우가 좋진 않기 때문에… 이제 30대 들어오면서 내 아이들이 (직업들의)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사실 나도 내가 하는 직업이 좋고 이 일이 만족스럽고 그런 것에서 성취감을 얻었다면, 30대에는 좀 더 현실적인 것… 뭐 예를 들어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투명하게 공개하진 않지만 얼핏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직업군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차이들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조금….”(사례 31)

“아버지가 계속 일용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 (연구자: 없다고 하지만 사실 엄청 있다 이런 거예요?) 아 우, 없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어디 가서 저희 어머니 마트에서 일하시고 아버지 일용직 하시고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왜냐면 그런 분위기이니까.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장 나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사례 37)

3.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는 청년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과연 어느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곳은 어느 직장인지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염려하였다. 비록 본인의 적성을 찾고, 대학원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이들 또한 졸업 후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어 근데 제가 아무래도 대학원 이제 박사 수료인데, 어 이제 대학원 생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온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약간 박사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흔히 말하는 박사병이라고 하는데 약간 미래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뭔가 잘 안 그려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사례 1)

“음… 아무래도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뭐 해 먹고 살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사례 19)

비록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걱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회사에 입사하였지만, 현재 직장이 평생직장이 아니기 때

문에 언젠가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또한 청년들은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암울하게 내다봤다. 부모 세대와 달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집 한 채조차 마련하기 힘든 부동산 시장은 가까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더군다나 일부는 가까운 미래에 본인의 직업이 기계 혹은 로봇에 의하여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인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었다.

“취업을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취업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자: 어떤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냥 막막해요. 그냥 미래가 까만 것 같아요.”(사례 17)

“네, 네.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그런, 나라의 정부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보면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못 살 것 같아요. 서울에 웬만한 데 집값이 보통 10억인데. 그러면 뭐 10억을 모으려면은 평생 본인이 1억씩 받는다고 해도 안 쓰고 모아도 1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인데. 그게... 그걸로 가능할까 싶어요. 사실 대출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미래가 너무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이구요. 경제적인 상황도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죠.”(사례 13)

“네 생존... 결국은 뭐 일자리랑 관련해 가지고 직업적인, 아무래도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은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하지만 내가 향후 미래에서 그리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세계가 이

제 막 원래 제가 막 SF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다 기계가 막 대체되지 않을까? AI도 너무 막 잘되어 있고 하니까 인간이 그러면은 사회 시스템 내에서도 불안하고, 그냥 이 사회 내에서 인간으로서의 지위도 조금 불안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사례 7)

4. 통제 불가능한(uncontrollable) 소셜 미디어(SNS)

연구 참여자들은 소셜 미디어(SNS)를 우리 사회 혹은 개인의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았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고, 이로 인해 시시각각 올라오는 뉴스 및 정보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담감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듣고 싶지 않은 소식 혹은 나쁜 소식들까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게 되면서 불안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본인의 처지와 다른 부유한 이들의 삶을 속속들이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음, 미친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뉴스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인터넷,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로는 보게 되거든요. 기사는 읽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소식 들렸을 때는… 불안해요. 무슨 살인 사건, 비행기 추락.”(사례 6)

“어 여긴 그냥 신도시라 다들 새로 입주하고 이사하고 가전도 새로 바꾸고 가구도 새로 바꾸고 해서 들어온 사람이 꽤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전, 가구를 사야 함에도 나는 10만 원짜리 이걸 살 수 있

는데 SNS, 뭐 인스타 뭐야 막 떼어, 그럼 브랜드 있는 70만 원짜리 들여놓고 싶은 거야. 그리고 괜히 자기 커피 마시는 사진 찍는데 그 기계가 살짝 나오게 찍어요. 일부러.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제가 SNS 안 하는 거예요. 인스타 이런 거 안 해요. 너무 꼴 보기 싫어서.”(사례 6)

5.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또한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삼풍백화점 붕괴, 천안함 혹은 세월호 같은 예기치 못한 국가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오히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키웠다고 답하였다.

“건물 붕괴 뭐. 옛날 일이지만 삼풍 사고…”(사례 5)

“나는 그때 제일 가슴 아픈 게 천안함이라고 봐요. 군인들 죽은 거. 나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나도 아들이 있고 그러는데.”(사례 15)

“직장 다닐 때는 내 삶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를 키우고 보니까 사회가 오히려 보이니까, 사회가 정치인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게 보호받지 못하거나 사건·사고들이 빵빵 터지니까. 왜 외국에서는 터지지 않는 것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정말 터질까, 그리고 희생될까. 뭐 세월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왜 터질까, 재네들이 왜 희생되어야 될까 뭐 이런 거.”(사례 34)

6. 미흡한 사회안전망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의 미흡한 사회안전망, 제도 및 정책 역시 불안의 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참여자 중 일부는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열악한 복지제도로 불안을 느껴 심지어는 이민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장년층 참여자들은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고령화 대비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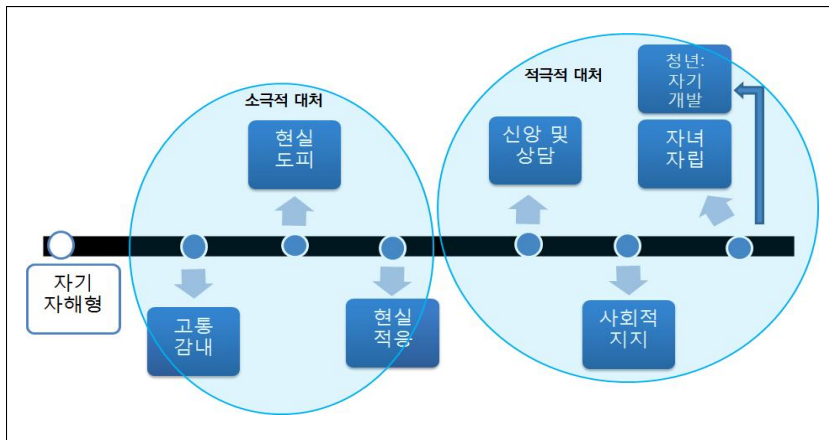
“다른 거는, 그… 요즘 뉴스 보니까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고위층이나 재벌들이나 그쪽에서 독식하잖아요, 독식. 솔직히. 숨겨진 비리도 많고. 그게 좀 짝 퍼져서 평등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지 쪽으로? 그런 게 조금… 미국 같은 데 못 따라가죠? 아직? 복지가 선진국, 좋은 나라 많잖아요. 스웨덴이나…”(사례 14)

“이제 주변에 보시면 이제 부모님 세대는 이제 정년 퇴임 다 하시잖아요. 그 뒤에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 이제 나이가 드셨다는 이유로 그렇게 일도 잘 못하시고. 물론 요새는 뭐 공공 일자리 이런 거 어르신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사례 22)

제4절 불안 대처·대응

[그림 6-1]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불안의 대처·대응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6-1] 연구 참여자의 불안 대처·대응 방법



1. 개인적 수준

가. 소극적 대처형

소극적 대처형에 속한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처·대응 양상을 보였다. 우선 불안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인의 불안을 누구에게 터놓거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혼자 술을 마시거나, 혼자 삭이거나, 스스로 억제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탓하였다.

“아뇨 저는 그런… 조언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제가… 그냥 스스로 묵혀 두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구요. 저 혼자 참고, 예. 제가 남한테 말하는 걸 싫어해서. 그냥 저 혼자 그냥 뭐라고 해야 하지? 안에 담아 두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남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사례 30)

또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혼자 노래를 듣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축구 경기를 보기도 하고,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도 하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혼자 산에 가기도 하였다. 혹은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저는. 예. 그냥 저는 이어폰 끼고 그냥 노래… 노래 듣는 그런 방법… (연구자: 다른 분께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혼자 음악 듣고 이러는 게 더 편하신 이유는 어떤 거세요?) 이게 아무래도 그냥 남한테 제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꺼려져서 그런 것 같고, 딱히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사례 30)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청년들은 고용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규모가 큰 소비를 하기보다는 ‘소확행’을 즐겨 하기도 하였다. 혹은 본인의 상황을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기도 하였다.

“뭔가 큰 걸 못 사고 그냥 이제 소소한 거에 만족하게 돼요. … 네네 소확행 … 네네 다이소 가 가지구 이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사례 28)

“잘살면 또 사람 일은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혼을 하고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고 자만할 수가 없어요. 저 친구가 잘되고 뭐 어찌고 해도, 이제는 그게 어 그래, 거기서 너는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내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다를 뿐이지 내가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더라고요.”(사례 26)

나. 적극적 대처형

연구 참여자들은 굳건한 신앙적 믿음 혹은 상담을 통해 불안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모습도 상당히 많았다. 또한 현실에서는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않지만,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살려고 노력하였다.

“저는 일단 그, 믿는, 기독교라서. 신앙이 있었고, 일단 거기서 오는 그… 믿음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든 잘 이끌어 주시겠다는 믿음이 항상 늘 있고.”(사례 12)

“근데 이제 상담 전에는 내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상담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게 강해서. 그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 이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아요.”(사례 19)

“물질적인 거는 사실 낙오됐죠. 물질적인 부분은. 왜냐면 우리같이 원룸에 복층 사는 가정은 없으니까. 월세에다가. 또 월세도 음, 보증금

도 대출받아서고 좀, 낙오됐죠. 그렇지만 또 살다 보니까요. 옛날 같으면 되게 쪽팔려 했을 거예요. 옛날의 XXX라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부자고 가난하고의 그건 마인드에 달렸더라고요.”(사례 20)

다음으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 및 지인, 가족 및 기타 활동에서 맺은 인연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불안에 대처하거나 대응하는 경향이 짙었다. 친구, 이성 친구 및 지인들과 고민거리를 얘기하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비슷한 종류의 고민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인의 불안감을 낮추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등 긍정의 경험을 쌓아 가면서 불안감을 줄여 나갈 수 있었다. 혹은 교회 목사 및 성당 지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불안에 대응하는 모습도 드러났다.

“지금 일단 직장 내에 같이 들어온 동기들과 항상 끊임없이 이 고민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서… 그걸로써 위로받고는 있어서, 네 그나마 네. 그게 또 해결책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례 3)

“아, 그리고 저희 작은언니. 제일 나한테 제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우리 작은언니요.”(사례 26)

“저는 신문 배달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다 칭찬 밖에 안 해 줬어요, 사람들이. 너는 어이구 이렇게 푹푹하네, 막 이렇게 열심히 사네, 약간 이려고.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또 오히려 신문

넌던 컴퓨터 가게, 거기 이제 사장님이 그냥 여기 와서 살아. 사정 아 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 1년 학교 다닌 적도 있고. 같이 밥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오히려 그런 좋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수가 있었는데.”(사례 39)

“목사님하고는 많이 풀어 나가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 니까,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사례 35)

흥미로운 점은 대상별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는 것이다. 중장년층에서는 친구 및 형제자매보다는 배우자의 지지를 받 으며 불안에 대처하는 경향이 많았다. 반면 청년들은 대학교 혹은 대학원 의 교수와 친구 및 동료들, 구체적으로 대학원 동기들 혹은 지도 교수로 부터 학업에 대한 사항이나 진학 문제와 관련해 진지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았다. 심지어는 교수의 도움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어 학업을 이어 갈 수도 있었다.

“(연구자: 주로 막 그런 고민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는 누구랑 그 런 얘기를 해요?) 신랑하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음… 얘기는 해요.”(사례 34)

“최근에는 이제 그 제가 원래 있었던 곳에서 다시 연구실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한동안 연구실을 이제 잘 안 가다가 이제 연구실을 가 게 되면서, 같은 동료들을 만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나 만 우울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깐 서로 어 려운 지점들이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뭐 그런 서로 대화들 을 하면서 최근에 좀 풀렸던 것 같고.”(사례 1)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서 사실 교수님한테 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좀 그런 불안한 감정이 좀 많이 그래도 감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 많이 받았구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사례 13)

이처럼 청년들은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불안감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을 하며 불안에 적극 대처하려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이들은 가만히 주저앉기보다는 자기개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의 취업 스테디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토익 학원에 등록하거나 군대에 재취직을 고려함으로써 고용 불안정성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이제 또 사회복지 하는 친구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네가 만약에 그렇게 그냥 보수가 좋고 일이 약간 힘들다 그런 게 좀 관심이 있으면은 사회복지도 나쁘지 않다 추천을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2급을 이제 듣고 있어요.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전공은 아니지만, 아 괜찮을 거 같아요. 그쪽도 이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어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2급 듣고, 바로 1급을 따려고. 네 그래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사례 28)

본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살림살이를 알려 주거나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등 자녀가 자립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아르바이트, 자활센터 근무, 취업 등을 통하여 집안 경제에 일정 정도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제가 쓰러지면, 지금 쓰러지면. 집세는 어떻게 할 거고 세금은 어떻게 할 거고 우리 아들내미한테 일주일에 다 전해 줘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갈수록 몸은 제가 안 좋아지고. 만약 제가 쓰러져서, 우리 아들내미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가 의식 불명이나 식물인간 됐을 때, 너희 집세는 몇 년 계약이어서 어떻게 했고, 세금은 어떻게 냈냐 누가 하나 했더니 아무도 모르죠 그랬더니 아빠가 알려 주면 잘 볼래 안 볼래 했더니 볼게요. 너희들 보험료 얼마짜리 어떻게 들어가고, 아빠 거 보험료 얼마짜리 어떻게 들어가고 하다못해 그런 거 잘 보고 너희들 전화 요금 어떻게 내는가 보고. 어?”(사례 35)

“자활은, 공공근로. 우리 이름이 공공근로텐데. 자활인가 공공근로예요. 그거 하고, … 월화수목금. 네. 근데 이제 두 시간 할 때도 있고 많이 받아요. 월급으로 나와요. 60만 원 정도 줘요. 그리고… 의료 보험 혜택 다 되죠, 의료 혜택 되죠.”(사례 16)

다. 자기 자해형

마지막으로 자신을 해하는 방식으로 불안에 맞서는 이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폭식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자살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가만히 속상하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가만히 텔레비전 보다 보면 아우 왜 저리 살지 안 그래야겠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혼자, 혼자 삭이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막 저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 걸렸었어요. 너무 힘들고. 한강 가잖아요. 막 뛰어내리면 진짜 시원하고 좋겠다. 제가 가끔 가거든요. 혼자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다 뛰어내리면 훨훨 날아가겠다 싶단 생각 엄청 많이 들었어요.”(사례 16)

“어… 술 말고, 제가 먹는 걸로 좀 많이 풀었어요. 뭐 시켜 먹… 배달 음식 치킨 피자 이런 거 시켜 먹고 그랬을 때도 많았었고. 살이 되게 많이 찌더라고요. 살이 한… 15kg 정도 켜쥔. 근데 직장에서 한창 힘들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진짜 자살 생각도 하고 막 그랬어요.”(사례 36)

2. 제도적 지원

가. 기관·센터의 이용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보건센터, 120 다산콜센터, 쉼터,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및 센터 등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불안에 대처할 수 있었다. 특히 한 청년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쉼터의 도움으로 그곳에 단기간 거주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빈곤층에 속한 한 참여자는 새로 이사한 지역의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여러 복지 도움, 지원 및 수당 등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기도 하였다.

“네. 쉼터에서 지냈었어요. 세 달인가 여섯 달인가. 여기 XX에서.”
(사례 17)

“아, 한 분 계세요.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읍에, 읍에 있어요. 그분이 내가 처음 여기 와 가지고 XX 읍사무소에. 네. 그분한테 도움을 처음에 와서 많이 받아서.”(사례 26)

나. 현금 지원 및 수당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로부터 현금 지원·수당을 받아 불안에 대처하기도 하였다. 빈곤층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금으로 주거 불안 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청년층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통해 본인의 학업을 이어 갈 수 있었고, 또한 상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아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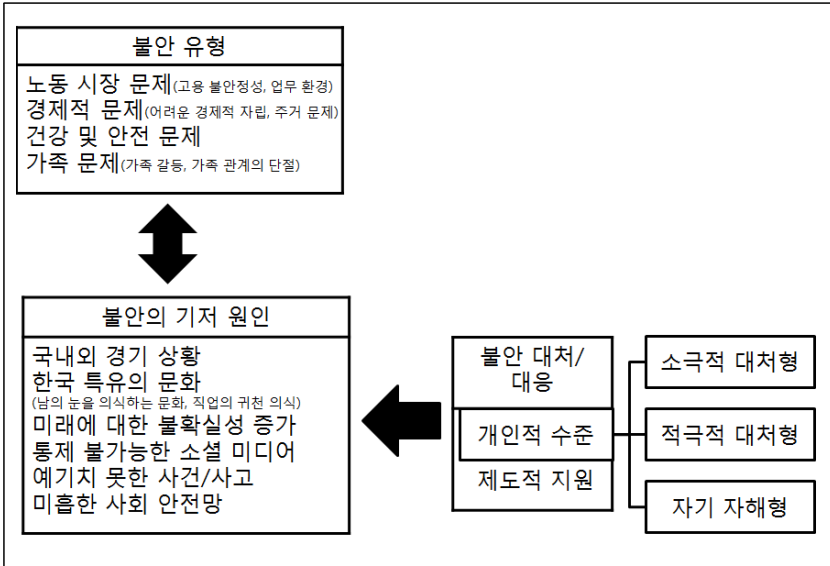
“늘 그랬죠. 늘 그랬었고, 뭐 도움 없고, 굉장히 고마웠던 것은 그거예요, LH였어요. 전세금 지원하는 거.”(사례 21)

“일단은…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1년 정도 돈을 모았었거든요. 공부할 돈을. 근데 그 돈이 이제 다 끝난 상태였었고, 그래서 청년수당 통해서 공부할 그 돈도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상담도 지원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였어서.”(사례 19)

제5절 소결: 사회적 불안의 구조

이 장은 연구 질문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경험하는 불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불안을 경험하는 원인, 관련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아래 [그림 6-2]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불안 유형, 요인 그리고 대처(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6-2] 본 장의 결과 요약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이들이 경험한 불안은 크게 노동시장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및 안전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이 개인적 삶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외 경기 상황, 한국 특유의 문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통제 불가능한 소셜 미디어(SNS),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그리고 미흡한 사회안전망이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차원의 불안감이 환경 차원의 불안인 불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불안에 대처(응)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개인적 차원, 사회적 지지 그리고 제도적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참여자들은 제도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 의존하여 불안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보

다는,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적인 영역 내에서 불안에 대응·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불안은 중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개인 체계 및 환경 체계는 여러 하위 체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하위 체계 간의 항상성이 깨질 때 불안이 발생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들 중 다수는 가족, 건강 문제 그리고 학업 문제가 중첩적 및 상호 교차적으로 작용하여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 갈등 및 가족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개인 혹은 가족 구성원들은, 대체로 수술 혹은 만성적 통증과 같은 질병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다. 결국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 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불안은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 체계 중 한 요소의 항상성이 깨질 때 그리고 이에 대한 회복이 느리거나 회복이 되지 않을 때, 결국 다른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어 개인의 불안감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불안의 요인 중 일부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문화적 요인들도 혼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불안은 환경 차원의 불안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SNS 등과 같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요인이 개인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의 불안에 직업의 귀천 의식과 같은 전통·문화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등장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선비인 사(士)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농부, 공장, 상인 순으로 존비(尊卑)가 결정되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관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직업 세계관은 아직도 남아 있어, 화이트칼라를 높게 평가

하는 반면 노동을 하는 블루칼라 직종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가치관을 함양하는 동시에, 아직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이러한 간극이 개인 체계와 환경 체계의 불균형 현상을 발생 시킴으로써, 개인이 불안을 느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특정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된 불안에 대한 집단별 정책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집단의 경우 고용 불안정성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불안이 다른 집단보다 유난히 높았고, 중장년층은 노후 문제에서, 그리고 여성 집단은 안전 문제에서 가장 높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문제의 불안은 청년층과 빈곤층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불안 유형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전적 혹은 조기 예방을 강화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되, 사후적 안전망과 상호 연계 및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또한 본인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불안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족관계의 단절, 갈등 등 가족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본인 스스로 혹은 자신의 제한적인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향후에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불안에 대처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사회는

개인이 불안에 대처 혹은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불안은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악화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Renn, Jovanović, & Schröter, 2011). 실제로 본 연구 결과에서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불안의 요인으로 지적했듯이, 공적 영역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기 단계에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들이 구축된다면, 개인이 경험하는 혹은 느끼는 불안은 감소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국가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7 장

결론: 주요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함의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제2절 정책적 함의

제3절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함의

7

결론: 주요 결과의 해석과 << 정책적 함의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그리고 그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자문 회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의 불안 경험, 둘째 불안 관련 요소, 셋째 불안에 대한 대처이다.

1. 불안의 경험: 생활의 무게와 불안의 만연

불안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기분, 경험이지만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또는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경험하는 불안이 지속될 때 이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 수준의 특수성을 지니는 불안은 긍정적 요소가 강하거나 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각할 때 그 영향이 개인과 그 주변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사회적 불안은 이와 달리 사회에 상대적으로 넓게 그리고 길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불안 경험은 참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는 반응 불안으로 매우 구체적인 생활 불안에 가깝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상황을 염려하는 예견 불안이었다. 이 불안은 생활 만족과 공존하는 경향이 있어 특별히 저소득층에 한정되

지는 않았다. 한편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가, 즉 대응 가능성에 따라 불안의 경험 수준도 상이하였다. 통제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분노나 슬픔, 원망 등의 감정과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 빈곤층은 불안이 높고 생활 만족이 낮으며 사회적 지지도 낮아 가장 심각한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도 통제, 대응이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하나 이상 경험하면 역시 불안 수준이 높았다. 이 경우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만족스럽다 해도 불안이 낮지는 않았다.

청년은 주로 미래의 예견 불안을 경험 중인데 이 불안은 추상적이지만 보편적이었다. 교육과 취업은 상당히 길게 지속되면서 정신적 어려움으로 변질 만큼 간단하지 않은 불안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다른 삶의 유형을 지향하는 집단은 생활에 대한 불만족보다 그저 불안함을 드러냈다. 불안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가장 불안했던 기억은 가족, 취업, 생활고와 관련이 있었다. 불안에 대한 주관적 경험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삶의 지향에 따라서도 상이하였으나 이러한 삶의 지향은 아동기의 양육 경험 등 과거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내용 분석과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종합하여 보자면 세대에 따라 불안의 기전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젊은 층은 비교, 경쟁, 책임을 중심으로, 중년은 보상 불공정, 탈락 공포 등을 중심으로 불안 경험의 주 매개, 또는 관련 요인도 조금 상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불안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불안의 경험이 단지 저소득층에서만 발견되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불안이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이었으나 생활 만족이 높은 집단에서도 불안 경험이 적지 않았다. 생활의 무게가 불안을 높이지만 불안은 넓게 확산되어 있다.

2. 불안 관련 요소들: 불확실성과 자기 결정의 상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주요 불안 관련 요인으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로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그 안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의 삶에 대한 지배와 연관된다. 첫째,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하여 허용적이지 않다는 점이 불안과 무관하지 않았다. 사회에서 주목받는 삶의 방식이 아니면 삶의 대안적 선택이 없다고 여겨진다. 둘째, 불확실성(정보 부족, 급변과 관계망 축소, 직장과 학교 등 공동체의 약화, 공정성 불신 등에서 빚어진)은 불안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심지어 사회정책의 급변으로 수급과 비수급 등 지위 변화가 큰 불안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지원 여부는 그 자체로 실질적 생활상의 큰 차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먹고살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의 붕괴로 이어져 예견 불안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은 중요한 불확실의 요인이 되었다. 공무원 시험 외에는 다른 취업 기회가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로라고 인지하고 이러한 이해는 더욱 취업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정상적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심지어 판결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인식한다. 모든 시도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회로 한국 사회를 간주한다. 불안은 그 자체로 더욱 심각해지면서 비합리적 수준의 불안으로 이어지는데 면담 참여자 중 정규직인데 해고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충분할 만한 스펙도 부족하다고 불안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연대는 무너지고 부담은 남았다. 어릴 때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는 시대적 특성도 문제를 가중하고 있다. 경쟁이 심한 학교 생활은 그보다 더 험난한 경쟁의 취업으로 이어지면서 동료, 친구

등 연대가 매우 약해지고 가족은 생활고에 서로를 돌볼 여력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은 불안과 가족이 연관어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과도한 타자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너무 많은 역할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였다. 노동 기회는 낮고 시작하면 노동 시간은 길고, 전체적으로 자기 결정, 선택의 자유는 상실되고 있다. 내 뜻대로 살자면 내게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는 불안을 더 악화시킨다.

외환위기와 세월호 사건은 그 자체로 개인사,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불안을 경험하는 참여자 중 IMF 외환위기의 경험을 언급하는 참여자가 다수인데 언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가족의 일상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토로하였다. 세월호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낮추어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면서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경험들과 개인불안의 가중이라는 고리를 만들었다.

3. 불안에 대한 대처와 한계: 자기 책임과 고립

사회적 불안의 기능에 대하여 송관재, 홍영호, 박수애(2004)의 연구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불안의 긍정적 효과는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불안은 결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유발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송관재, 홍영호, 박수애, 2004. pp. 20-21). 반면 불안의 부정적 효과도 있는데 불안에 무감각해지거나 혹은 불안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두 가지 유형이

불안의 역기능적인 문제라 설명한다(송관재, 홍영호, 박수애, 2004. pp. 21-25). 예를 들어 각종 사회적 사건 발생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분노, 우울을 경험하거나, 불안을 회피하는 부적응적 행동이나 시위에 나서는 등 반응을 할 수 있다.

또는 불안에 대한 개인 수준의 긍정적 대응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행스럽게 개인 또는 사회에 불안의 해가 거의 없거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 다수 구성원이 불안에, 그것도 사회적 요인이 적지 않아 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경험하는 불안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부정적, 왜곡된 방식의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대응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불안에 대한 부정적 대응은 사회의 정책 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불안에 대한 부정적 대응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대응은 개인과 가족의 대응으로,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이다.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거나 개인주의적 문화와 과거 가부장적 문화의 충돌로 갈등이 유발된다.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언급이 자주 반복되는데, 사회적 문제와 일상을 해리시키는 경향이나, 가족 내 갈등이 더 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져 가족의 문제로 내부화되고 만다.

연대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니, 홀로 감당하게 되는 경향이 만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안을 야기한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압축적인 성장과 변화를 들 수 있고, 일제, 6·25, IMF, 세월호 등이 있음. 특히 IMF가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때를 계기로 내가 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존의 뇌로 퇴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폭발하여, 기본적인 안정감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다.”(전문가 인터뷰 중)

사회 공동체의 책임 인식은 낮아 전통적 공동체 속 역할이 강조되어 고립을 더 가중하게 된다. 한국의 사회적 변화는 서구보다 빠르고 왜곡되어 이 불안이 더 심화된다. 신자유주의는 빠르게 수용되었지만 사회적 대응은 과거 전통적 방식이 잔존한다. 문화의 격차, 일종의 신종 아노미를 경험하고 있다. 혼술과 혼밥으로 취약한 개인은 노출되는 것을 기피한다. 여가 또는 휴식은 대부분 혼자 보내는 걸 선택하고 있다. 부끄러운 면을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도움보다는 경쟁 비교의 기회가 될까 무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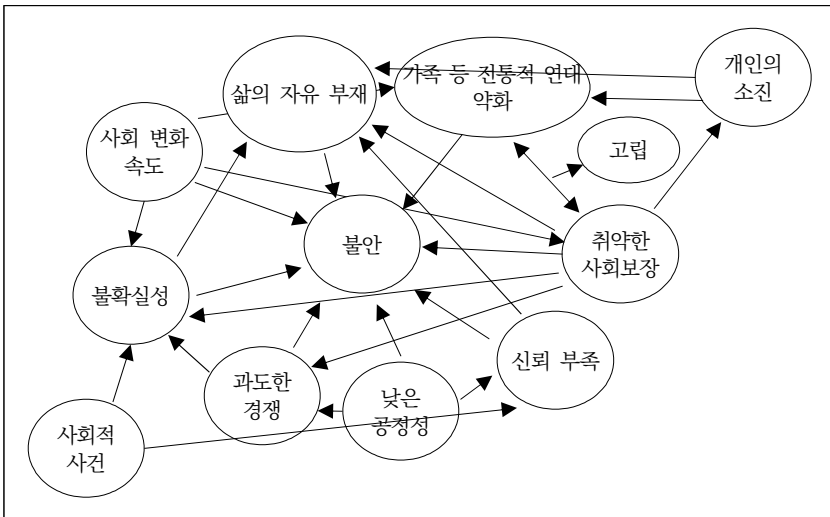
결국 두 번째 대응으로 이어진다. 개인 수준의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소진적 대응이며 이는 자기 착취로 이어진다. 자기개발로 치닫는 사회 분위기는 개인의 불안 회피 방식이다. 참여자는 “자기개발을 할 때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위안을 받아요.”라고 이 점을 언급한다. 영어가 스트레스의 주 연관어이다. 그리고 공황장애 요인 중 하나는 만성 스트레스이다. 이런 험한 환경에서 돈 중심의 사고가 탄생하고 강화된다. 모든 문제와 해법이 돈으로 치환된다. 돈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도 불안의 증상이다. 다시 말해 안전망으로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고 혼자라는 생각(고립)에 빠지다 보니 돈에 몰두하는 것이다.

3.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 현상·원인·대응의 구조물

사회적 불안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불안은 불안 경험이라는 현상과 불안을 초래한 원인, 그리고 대응의 혼합으로 이해하여야 했다. 주거 불안, 치안 불안, 취업 불안과 같은 불안의 경험은 단지 해당 영역의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만 여겨서는 불안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불안 경험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이해하

는 것은 개별 정책적 보완이나 개선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불안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은 서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 경험을 보면 몇 가지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으며 일부 요인은 서로 영향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림 7-1] 사회적 불안과 관련 요인의 관계 구조도



불안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불확실성은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한편 공정성이 낮은 상태에서 과도한 경쟁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외환위기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세월호 사건은 불확실성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불안을 가중시켰다. 사회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과 같은 전통적 연대가 약화되면서 개인의 소진은 더 심해지고 고립을 초래하며 이로써 불안 경험이 확산된다. 연대가 약화되면서 스스로 삶을 지탱하여야 하는

기초적 보장을 하지 못하는 삶의 자유는 상실된다. 모험적 선택이나 전형적인 사회경제적 행동 외 선택이 기피되면서 자유의 폭은 더 좁아진다. 이러한 문화적 행태는 불안을 야기하고 전형적인 일부 삶의 유형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불안 경험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소진과 사회적 불기능은 불확실성과 불신을 경유하며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불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취약함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삶의 안정성이 낮지 않은 경험자도 불안을 경험하고 있고 그 불안은 사회적 위험으로 설명되는 불안의 그 이전의 불안과 관련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공정성, 신뢰의 부족으로 미래 불안을 느끼거나 스스로 삶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사회에서 전통적 연대가 약화되면서 삶의 자유를 포기하고 과도한 경쟁에서 자기개발에 계속 매진하며 고립, 소진하는 참여자도 적지 않았다.

불안 경험은 우리 사회 소수 구성원에게만 한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회적 불안의 만연은 향후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을 암시한다. 사회 제반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로 기초적인 삶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빠른 변화 속에서도 이러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사회정책의 성공은 사회정책적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제2절 정책적 함의

질적 분석으로 불안 경험과 요인을 살펴보았다. 정책적 함의는 사회정책의 수준과 무관하지 않지만 사회정책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선 사회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을 사회정책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불안은 객관적 기제의 수준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불안은 위험보다 크게 작용하기 쉽다. 제도는 많이 갖추어졌으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 제도의 빠른 변화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예 없는 경우에는 기대치가 없을 수 있지만, 제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기대 수준에 반해 여러 엄격한 기준 등으로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예 없는 경우보다 불안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사회정책의 안정성도 중요하다. 정책의 중장기 기획과 속도의 합리적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불안의 개별적 요인보다 각 요인에 대한 반응 기제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메르스,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대응에 대한 신뢰가 없어 더 예민하고 불안해졌다. 고용 불안도 유사하다. 낮은 고용 기회보다 사회적 대응력 부족을 의심하면서 불안은 더 가중된다. 정책이 불안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생길 위험이 있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는 주요 위험 영역에서는 부담을 차등화하더라도 보편적 안전망을 두어 제도 인지, 사회 신뢰를 높이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정보의 수평적 소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 정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구를 전제로 수용적인 정책 구상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 단위 부담을 감소하는 정책을 확충하는 것은 많은 참여자가 경험하는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긴요한 정책 과제이다. 앞서 언급한 빠른 속도의 변화 속에서 정책을 이해하자면 정책이 쉬워야 그나마 정책을 알고 적응할 수 있다.

개인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도 하여야 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증진 모델을 소개한 바 있다. 불안할수록 변화를 기피한다. 희망이 없다는 자기 인식은 사회적 변화에도 부정적으로 대응할 위험을 초래한다. 상담을 받은 연구 참여자는 이전의 높은 수준의 불안을 완화할 기회를 얻고 이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의 불안 대응을 보여 주었다. 가족 내 부적절 양육, 공정하지 못한 통제 불가능의 위험 경험 등 사회 구성원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위험이 적지 않다.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강하는 것은 사회정책의 보장 수준을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다.

제3절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함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와 국제기구의 지표 개발을 참고하고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차 연도의 설문조사를 위한 중요한 몇 가지 함의를 발견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는 관련 설문조사 실시와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조사표 개발이 2차년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골간이 된다. 조사표는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 요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표 개발을 위한 함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표의 구성에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을 구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개인이 경험한 불안과 개인이 불안으로 인지하는 불안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대부분 경험보다 인지는 더 강하고 크다.

둘째, 불안의 기저에 작용하는 요소를 포괄하는 조사표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적 위험의 영역별 불안 경험과 인식뿐 아니라 사회 변화의 속도에 대한 체감, 사회적 신뢰, 공정성 등에 대한 인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불안의 기저에 있다.

셋째,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문항 개발에서 보다 정치한 설계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취업의 어려움만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취업 후 직장의 문화는 취업 전부터 청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 특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주의 수용 정도, 가족과 친구 등 전통적 지지에 대한 태도 등도 불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경쟁이 심화되면서 악화되는 직업의 귀천 의식이나 남을 의식하는 문화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불안에 대한 인지는 과거 경험과 미래 예견이 함께 작용한다. 이렇게 인지의 기준 시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견 불안에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도 적지 않아 인터넷 이용 등 관련 행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도 하다. 국제기구의 사회적 불안 파악에서도 이 점을 주지하고 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대응 기제와 능력을 파악하는 조사 문항의 개발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대응 능력에 영향을 준 요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일곱 번째,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연령이나 성과 같은 일반 특성 등 불안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 사회적 불안과 행복과 같은 정서의 차이를 규명하는 분석 설계도 유용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안이 높지만 행복한 집단이나

행복하지만 불안이 낮지 않은 집단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최근 행복을 주제로 정책을 구상하는 경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 강상경. (2013). **한국 정신보건서비스의 전개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강상경.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나남출판.
- 강진화, 이정애, 오강섭, 임세원. (2013). 한국판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2), 291-312.
- 경찰청. **연도별 집회 개최 현황**. www.police.go.kr에서 2019. 10. 24. 인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MH002_MI003&conn_path=13에서 2019. 10. 30. 인출.
- 구훈정, 양은주, 권정혜. (2012). 사회불안 상황과 관련된 미묘한 회피 빈도 검증 척도(SAFE)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3), 693-712.
- 국립국어원. (2019a). **우리말 썸**.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에서 2019. 9. 14. 인출.
- 국립국어원. (2019b).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19. 9. 14. 인출.
- 권석만. (2013). **임상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남재. (2004). 한국판 사회공포증과 불안 검사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4), 1011-1027.
- 김영천, 김진희. (2008).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 소프트웨어 접근의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11(1), 1-35.
- 김태형. (2010). **불안 증폭 사회: 벼랑 끝에 선 한국인의 새로운 희망 찾기**.
- 김혜진. (2015). **비정규 사회-불안정한 우리의 삶과 노동을 넘어**. 서울: 후마니타스.
- 네이버. <https://www.naver.com/>.
-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에서 2019. 6. 5. 인출.
- 다음. <https://www.daum.net/>.

- 박수애, 송관재. (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사회문제**, 11(2), 1-29.
-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 안주엽, 강현중, 김주영, 김지경, 오선정, 정세은. (2016). **일과 행복 II**. 한국노동연구원.
- 오강섭, 임세원. (2008). 사회공포증의 아형 분류와 가해형 사회공포증의 임상적 의미.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7(3), 225-229.
-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29-443.
- 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문, 채수미, 차미란, 김효진. (2015). **한국의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열. (2015). 이중으로 위험한 불안사회, 한국. 임현진, 손열, **光復 70주년 大韓民國 7대과제: 21세기 일류국가를 위한 정책제언**(pp. 213-236)에서.
- 이재열. (2019).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21세기북스.
-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사회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법문사.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정임, 단비뉴스취재팀. (2018). **벼랑에 선 사람들: 서럽고 눈물 나는 우리 시대 가장 작은 사람들의 삶의 기록**. 오월의 봄.
- 조권중. (2014).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 조병희, 이재열, 구혜란, 유명순, 박상희, 양준용. (2018). **아픈사회를 넘어: 사회적 웰빙의 가치와 실천의 통합적 모색**. 파주: 21세기북스.
- 주영기, 유명순. (2016). **위험사회와 위험인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 통계청. (2018). 2017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에서 2019. 10. 24. 인출.
- 통계청. (2019). **2018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에서 2019. 10. 24. 인출.
-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 129-16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Arlington, VA: APA.
- Barca, M. (2018). *Understanding the 'social' in social anxiety*. <https://pursuit.unimelb.edu.au/articles/understanding-the-social-in-social-anxiety>에서 2019. 3. 25. 인출.
- Boeree, C. G. (2007). *Personality Theories*. Sigmund Freud. <http://webpace.ship.edu/cgboer/perschapterspdf.html>에서 2019. 9. 14. 인출.
- Christina, A. B., & Schmidt, L. A. (2008). Social anxiety disorder: A review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Neuropsychiatric Disease and Treatment*, 4(1), 123-143.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n. London: SAGE.
- EBS 감정 시대 제작팀. (2017). **감정 시대-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EBS 미디어. 파주: 월북.
- El-Anzi, F. O. (2005).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anxiety, self-esteem, optimism, and pessimism in Kuwaiti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3(1), 95-104.
- Giordano, J., O'Reilly, M., Taylor, H., & Dogra, N. (2007). Confidentiality and Autonomy: The Challenge(s) of Offering Research Participants a Choice of Disclosing Their Identit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7(2), 264-275.

- Gross, J. J. (2002). Emotion regulations: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39, 281-291.
- Hall, C. S. (2010).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유상우, 역). 서울: 홍신 문화사.
- Horwits, E. K. (2017). Chapter 3. On the misreading of Horwitz, Horwitz, and Cope (1986) and the need to balance anxiety research and the experiences of anxious language learners. In Gkonou, C., Daubney, M., & Dewaele, J. (Eds.), *New Insights into Language Anxiety: Theory, Research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US: Edwards Brothers Malloy, inc.
- ILO. (2011). *World of Work Report 2011-Making markets work for jobs*.
- ILO. (2012). *World of Work Report 2012-Better jobs for a better economy*.
- ILO. (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Repairing the economic and social fabric*.
- ILO. (2019).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19*.
- Jovanović, A. S., Renn, O., & Schröter, R. (2012).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Social Unrest*. OECD.
- Kelley, J., Zayac, R., & Correia, C. (2008). Curvilinear relationships between statistics anxiety and performanc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Evidence for optimal anxiety. *Statistics Education Research Journal*, 7(1), 4-15.
- Lecrubier, Y., Wittchen, H. U., Faravelli, C., Bobes, J., Patel, A., & Knapp, M. (2000). A European perspective on social anxiety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15, 5-16.
- Maxwell, J. A. (2009). **질적연구설계** (이명선, 역). 서울: 군자출판사.
- OECD.Stat. Health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19. 10. 24. 인출.

- Renn, O., Jovanović, A., & Schröter, R. (2011). *Social Unrest. Stuttgart. Germany: OECD.*
- Sheikh, J. I., Leskin, G. A., & Klein, D. F. (2002). Gender differences in panic disorder: Finding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9, 55-58.
- Singh, S., & Thukral, P. (2009). The role of anxiety in achievement. *Journal of Exercise Science and Physiotherapy*, 5(2), 122-125.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track, J., Lopes, P. N., & Esteves, F. (2015). Will you thrive under pressure or burn out? Linking anxiety motivation and emotional exhaustion. *Cognition and Emotion*, 29(4), 578-591.
- Strack, J., Lopes, P., Esteves, F., & Fernandes-Berrocal, P. (2017). Must we suffer to succeed?: When anxiety boosts motiv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8(2) 113-124.
- Tamir, M. Y. & Ford, B. Q. (2009). Choosing to be afraid: Preferences for fear as a function of goal pursuit. *Emotion*, 9(4), 488-497.
- Thelen, D. P. (1969). Social Tensions and the Origins of Progressivism.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56(2), 323-341.
- Von Bertalanffy, L. (1968). *General System Theory: Foundations, Development*. New York: George Braziller.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3). *How to use the ICF: A practical manual for us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ICF)*. Geneva: WHO.

부록: 면접 조사 가이드 <<

1) 상호 소개

- 면접자: 면접 동의서 및 서류 서명, 면접 시간 1시간 30분 이내 소요 등 알림(질문당 5~10분 내외)
- 피면접자: 가족관계, 직장(이력 등) 등 일상 개요

2) 현재 주된 감정

- 현재 자신에게 해당하는 형용사 2가지 고르기, 그 이유

(기쁨) 기쁘다 / 만족스럽다 / 재미있다 / 편안하다 / 행복하다
(두려움) 걱정하다 / 긴장하다 / 두렵다 / 불안하다 / 혼란스럽다
(분노) 답답하다 / 화가 난다 / 억울하다 / 원망스럽다 / 짜증나다
(불쾌) 피곤하다 / 무기력하다 / 부담스럽다 / 지루하다 / 부럽다
(슬픔) 우울하다 / 슬프다 / 괴롭다 / 외롭다 / 막막하다

3) 최근 불안 경험

- 불안 관련 인생 그래프 그리기: 현재 불안 점수 포함
-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느꼈던(느끼는) 불안 수준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인지 그래프로 그려 주세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10점(매우 불안하다)



- 최근 불안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긍정적 불안인지, 부정적 불안인지 파악
 - 질문 예시 1) 나의 발전을 위한 동기로 불안을 이해할 수 있다.
 - 질문 예시 2) 나의 발전에 해가 되는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불안이다.
- 친구들에 비해 뒤처질까 봐 낙오될까 봐 초조하고 불안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먹고살 걱정이 없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4) 과거 불안 경험

- 살면서(생애) 가장 불안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5) 불안에 대한 대응

- 개인의 대처 역량 부족의 문제인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인지 파악

- 질문 예시) 불안을 느끼는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본인은 남들보다 불안을 크게 느끼나요?

○ 도움을 청하는 주변 사람(가족 포함)이나 기관이 있나요? 있다면 몇 명이고, 누구(혹은 어떤 기관)인가요?

○ 도움 청할 곳 없을 때 어떻게 불안을 해소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사회 참여(여가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봉사 등) 경험

○ 혹은 혼술/혼밥/SNS 사용 빈도, 과거와 비교하여 빈도 변화와 그 이유

7) 한국의 사회불안

○ 한국이 싫다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 우리 사회 불안 수준에 대한 12개 문항 체크

- 사회불안은 내가 한국 사회에 사는 한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를 피할 수 없고 나도 언제 이런저런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뜻함.

* 다음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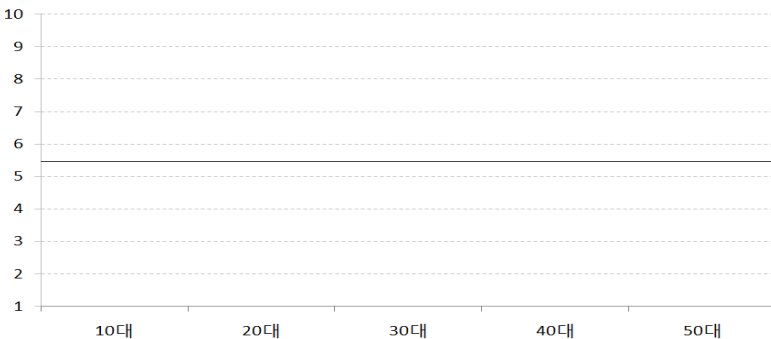
(1)-----	(2)-----	(3)-----	(4)-----	(5)-----	(6)-----	(7)
전혀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 우리 사회에서는 기준이나 규칙이 너무 자주 바뀐다()
2.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3. 우리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다()

4.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5.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 편법이 더 잘 통한다()
6.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7.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8.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9. 내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걱정된다()
10.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는 정보를 나만 모를까 봐 걱정스럽다()
11. 대형 사고가 날까 봐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불안할 때가 있다()
12.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8) 생활 만족, 행복

- 생활 만족 관련 인생 그래프 그리기: 현재 생활 만족 점수 포함
-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만족했던(만족하는) 수준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인지 그래프로 그려 주세요.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매우 만족한다)



- 최근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 살면서(생애)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9) 가까운 미래 전망: 5년 뒤

- 미래(5년 뒤)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0) 인터뷰 마무리

- 피면접자 기본 정보와 관련하여 빠진 부분 체크: 가족 형태, 정규직 여부, 근무 기간 및 근로 시간, 주관적 소득계층, 월 소득 등
- 추가로 사회적 불안이라는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
- 필요한 경우 재방문 가능성 알림

※ <인터뷰 종료 후> 참여자 기본 정보 별도 작성

- (1) 연령
- (2) 성별
- (3) 결혼 여부
- (4) 빈곤 여부
- (5) 고향
- (6) 현재 가족 형태
- (7) 직업: 정규직 여부(안정적 일자리인지 파악)
- (8) 근로 형태: 근무 기간, 근로 시간
- (9) 주관적 소득계층: 상층-중상층-중간층-중하층-하층-빈곤층
- (10) 월 소득: 가능한 경우 확인하고, 캐묻지는 않음
- (11) 불안 점수: 10점 만점 중 몇 점
- (12) 생활 만족 점수: 10점 만점 중 몇 점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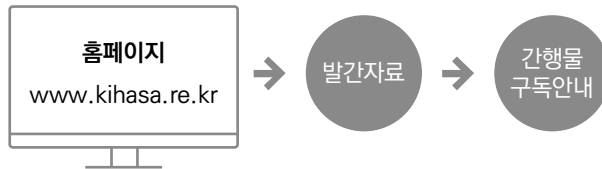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